자기를 바로 봅시다

금주의 법구

그대의 본성을 알고 싶거든
삼서 등한 생각을 범추어라.
마음을 보되 그 본체가 없는 줄 알면
바야흐로 고향에 이른 것이네.
-보우스님-

현대불교

佛事 전념 30年
불교미술전시관
사찰불사의 모든 것
책임 성심껏 도와드립니다.
02)733-4800 http://www.Buddha.co.kr
신흥사 청동대불

대표전화 02) 737-8861 구독문의 02) 737-0081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4년(서기 2000년) 8월 16일 수요일(주간) 제 282 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인터넷시대 막차라도 타자
사이버 불국토 만들자



목동청소년수련관은 지난 5월14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교이해하기 정보사냥 경시대회'를 개최했다.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시대에 걸맞는 청소년 포교방편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불러모았다. 실제로 서울 목일중학교 정민호(15)군 등 몇몇 청소년들은 불교 관련 사이트들을 직접 방문해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흥미로워 했다.

행사가 열리지 못했지만 이같은 시도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한 좋은 프로그램으로 받아들여졌다. 부처님께서도 개개인의 근기에 맞게 대기설법을 했듯이 인터넷이 갖가지 정보를 통해 불교를 쉽게 알릴 수 있는 요즘 정보검색대회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현대식 대기설법인 셈이다.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자수가 1600만에 육박하고 그중 다수가 청소년층이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같은 정보검색대회는 청소년포교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점에서 적극 장려되어야 한다. 또한 사이버시대에 법당을 찾거나 경전을 들춰보는 청소년이 없다는 현실속에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가상공간의 사이버 법당 찾게 하고, 사이버 경전을 보게 하는 것도 불교를 알리는 좋은 방법임을 고려할 때 불교계 사이트들이 앞으로 정보검색대회를 자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보검색대회로 청소년 포교확대

사찰 홈페이지의 경우 지금처럼 단순히 사찰을 소개하고 법회를 안내하는 수준에서는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기에 이같은 행사는 필수적이다. 수많은 인터넷 사이트들이 경품행사, 복권제도 등 이벤트를 통해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해 사이트를 홍보하듯이 사찰홈페이지도 정보검색대회를 개최해 불자 청소년은 물론 비불자 청소년들에게도 불교를 알린다면 어린이 중고등부 법회 활성화라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최근 가상세계의 활동이 현실세계의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여서 정보검색대회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네티즌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해 내야만 인터넷시대에 불교는 살아남을 수 있다.

김두식 기자(doobi@buddhapia.com)

조계사 신협 '70억 횡령' 발생…교계 꼬리무는 '돈사고'

"경영-재정 투명화 시급"

또 공금횡령사건이 터졌다. 95년 소쩍새마을 후원금 횡령사건을 시작으로 97년 불교방송에 이어 이번 조계사 신협까지 지난 5년간 교계에서 일어난 공금횡령 사건만 해도 10여건에 이른다. 이렇게 공금횡령사건이 계속되자 사찰과 각 단체들의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발생한 횡령사건은 대부분 삼보정재를 '주머니돈'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과 관리감독의 소홀, 전문경영 부재, 재정운영의 불투명성 등에서 비롯됐다. 돈이 있는 곳에 비리가 상존할 가능성은 크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막으려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람을 믿어야 하는 종교단체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안이하게 삼보정재를 관리하는 풍토가 교계 저변에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발생한 조계사 신협 공금횡령사건은 바로 이런 요인들이 뒤얽혀 발생한 사고다. 1년이 넘도록 횡령이 저질러졌음에도 이를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은 아예 '맘대로 쓰라'고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 됐다. 이번 사건으로 종단 단체들의 관리운영과 감독의 엄정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에 크게 뒤떨어졌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97년 발생했던 불교방송 공금횡령사건은 관리감독소홀과 전문경영 부재가 야기시킨 횡령사건의 전형으로 꼽힌다. 1백억대가 넘는 거액을 하급간부와 평사원들이 마음대로 주물러왔다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비전문인들이 요직을 상당수 차지함으로써 정확한 업무파악과 관리가 힘들었던 당시 상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95년 소쩍새마을 가짜승려 일력의 수십억원대 횡령은 불교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얼마나 소홀했던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99년 서울 자양복지관 관장과 부산 공창복지관 회계책임자의 공금유용사건도 마찬가지다. 정재를 자신의 '주머니 돈'으로 여긴 관계자들의 행태도 문제지만 제도적으로 이를 막을 장치가 전혀 돼 있지 않았다는 것은 더욱 큰 문제다.

여기에 최근에는 모 복지단체의 후원금이 불법적으로 유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삼보정재를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끌어다 쓸 수 있는 돈'쯤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99년 조계사 전 주지 현근스님과 경주 불국사 재무관계자의 사찰공금 횡령사건, 98년 군승단 군법사들의 공금횡령 및 불사비리사건도 이와 다르지 않다. 돈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재정투명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임을 새삼 일깨워 준다.

교계의 한 재무 관계자는 "삼보정재를 자기 돈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각 사찰이

☞2면으로 계속

"불자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

정대스님, 조계사신협 횡령사건 사과

조계종총무원장 정대스님은 조계사신협 고객예치금 횡령사건과 관련, "물의를 일으켜 불자들과 국민들께 대단히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정대스님은 11일 조계사 주지 자홍스님과 총무원 부·실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계사신협은 총무원과는 다른 별도의 법인이지만 교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조계종 집행부 수장으로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대스님은 또 "자금은 가입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수습할 시기"라며 "조계사 주지 인사는 사태 수습 이후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대스님은 횡령금액이 총무원장 선거자금으로 흘러들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파렴치해도 신협의 돈을 선거에 썼겠느냐"며 의혹을 일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조계사 신협 과장이 고객예치금 70억 횡령

조계사 신용협동조합(이사장 지홍·조계사 주지)에서 직원이 70억원대의 고객예치금을 빼내 주식투자 및 구권화폐 매입 등에 사용한 횡령사고가 발생, 조계사 신협 송석윤 과장(44)과 신협 감사 조택동씨(39, 조계종 총무원 재무과장)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 1일 종로경찰서에 구속됐다. 〈관련기사 3면〉

이에 따라 조계사 신협은 횡령사고가 확인된 직후 임시이사회를 열고 업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업무정지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대출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을 제외한 모든 업무가 중단됐다.

조계사는 7월26일 외부 회계법인을 대동, 신협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송과장이 50억원 가량의 고객예치금을 빼내 주식에 투자한 사실과 송과장과 조과장이 함께 구권화폐 매입을 위해 24억원을 불법인출한 사실을 밝혀냈다.

사고당시 신협 회계상에는 모두 68억여원이 횡령된 액수로 파악됐으며, 이중 20여억원이 환수조치돼 48억원의 순손실이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한명우 기자



위안부 추모위령탑 일본군 위안부 추모 위령탑이 11일 위안부 할머니들의 보금자리인 경기도 광주군 나눔의 집에 세워져 광복 55주년을 더욱 뜻깊게 하고 있다. 연꽃의 이미지를 담은 위령탑에는 할머니들이 불국정토에 태어나길 기원하는 불자들의 비원도 함께 담겨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지리산 살리기 국민행동' 각계지도자 공동대표로 30일 창립대회 연다

(가칭)'지리산 살리기 국민행동' 준비위원회는 3일 서울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각계 지도자 초청간담회를 개최하고 오는 30일 '지리산 살리기 국민행동' 창립대회를 거행하기로 했다.

국민행동 준비위는 이날 △지역 대표로 실상사 주지 도법스님 △종교계 대표로 수경스님과 인명진 목사(기독교환경운동연대 이사장), 이선종 원불교 교무(종로교당) △환경단체 대표로 이세중 환경연합 공동대표, 이병철 녹색연합 공동대표, 김상원 환경정의시민연대 공동대표 △문화·예술계 김지하 시인, 김정헌 문화개혁시민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사회단체 이종훈 경실련 공동대표 △학계 최창조 전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등 11명의 공동대표를 추천했다.

준비위는 추가로 8명의 공동대표를 추천해 오는 30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또는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에서 창립총회 및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조계종 하안거 해제 혜암종정 법어발표



조계종 종정 혜암스님〈사진〉은 하안거 해제(14일, 음력 7월 15일)를 앞둔 9일 경진년 하안거 해제 법어를 발표하고 쉼없는 정진을 당부했다.

조계종 등 전국 70여 선원에서는 지난 4월 15일(음력)부터 2500여명의 스님들이 참선수행을 하는 결제에 들어갔으며, 14일 90일간의 정진을 해제했다. 〈법어 전문 3면〉

정성운 기자

붓다뉴스 새연재

buddhanews.com

'N세대 위한 불교강의' '환타지아 실크로드'

현대불교신문사는 인터넷 현대불교 '붓다뉴스'에 'N세대를 위한 불교이야기'를 이달 16일부터 선보인다. 아울러 소설가 정찬주씨의 돈황기행문 '환타지아실크로드'를 지난 8월초부터 연재하고 있다.

N세대를 위한 불교이야기는 새로운 세기를 맞아 새 문명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불교사상을 젊은이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알리기 위해 마련된 불교강좌.

독자들은 이 강의를 통해 불교의 인생관, 자연관, 역사관, 찬란했던 불교문화, 지혜의 나침반인 선사상, 생활속의 불교등 불교 가르침을 쉽고 굉이하게 만나볼수 있다. 강사는 종단협사무국장 법현스님, 문학평론가 김홍근씨, 소설가 정찬주씨, 증광상고 최시선 교사이다.

한편 '환타지아 실크로드'는 돈황발굴 100주년을 맞아 교계 사이버매체로는 처음싣는 돈황기행기. 암자기행기로 널리 알려진 소설가 정찬주씨가 문학적 상상력과 감수성을 바탕으로 '불교미술의 보고' '사막의 대화랑'이라 불리는 돈황의 신비를 오늘의 시각으로 재조명한다.

16 나한 木 500 나한


규격×높이 : 1자(30cm)



나한이란? 모든 사람의 존경과 공양을 받을 만하고 공덕을 두루 갖춘 성자를 말합니다.



나한의 공덕
① 살적(殺賊)
우리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나쁜 생각을 떨쳐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응공(應供)
우리에게 말과 행동의 모범이 되므로 정성을 다하여 공양해야 합니다.
③ 불생(不生)
나한은 뼈를 깎는 수행을 하고, 마음의 평정을 방해하는 마음의 적을 없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윤회의 고통이 없습니다.

木 나한의 특징
◆ 혼이 담긴 작품으로 정교하게 조각되었습니다.
◆ 반가격으로 보시해 드립니다.
※ 스님의 주문에 따라 상호와 크기(규격)를 별도 제작해 드립니다.
◇ 전화주시면 사진을 보내드립니다.

한국불교전통공예
서울 중랑구 망우3동 518-34(효성빌딩)
대표전화 : (02) 494-4890

"전사법 조례 제정하라"

직지사 본·말사 주지 70명 촉구
"절 주변 개발허용 조례 반대"도

사찰 주변의 건축을 제한하는 전통사찰보존법이 개정·공포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자치단체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조례제정의 안(案)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지역에서 준농림지 개발허용 조례를 제정할 움직임을 보이자 조계종 제8교구 사찰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제8교구 본사인 직지사(주지 녹원)를 비롯한 본·말사 주지 70여 명은 3일 김천 직지사에서 '전통사찰보호법 조례제정 촉구 및 난개발 조장 조례제정 반대모임'을 갖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모임에서 스님들은 "지난해 2월 건통사찰 및 문화재 주변의 건축을 제한하는 건축법 시행령 등이 폐지된 뒤 각 지자체가 조례제정을 늦추고 무분별한 건축허가를 남발하는 바람에 불교계는 사찰주변 환경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찰주변 건축제한 조례안의 제정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전통사찰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해 지난 1월12일 전통사찰보존법을 개정·공포하고 각 기초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 4월15일부터 시행토록 했으나 경북 영주시, 경기도 성남시 등을 제외하고는 어느 곳도 아직까지 이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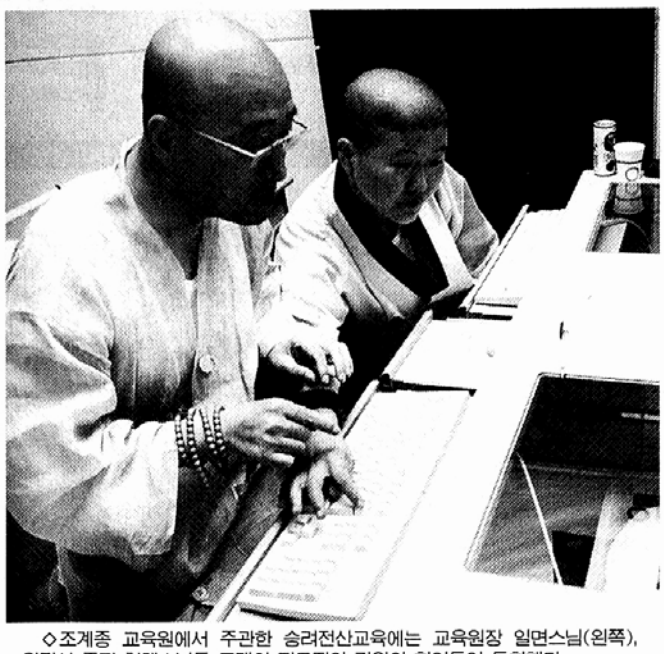
영주시와 성남시가 지난 5·6월에 제정·공포한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는 전통사찰이 위치한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을 위한 전통사찰보호구역 주변지역을 조례로서 정하고, 그 지역 안에서 건축행위를 할 경우 건축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법일 직지사 연수원장은 "일부 기초의회에서 준농림지역에 음식점 등을 지을 수 있는 조례를 만들려 하고 있다"며 "직지사는 앞으로 환경보호단체 등 시민 운동단체와 연계, 이같은 자연환경 훼손 행위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은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과 관련, 4일 발행한 종보를 통해 해당 전통사찰에 대응지침을 시달했다. 총무원은 지침을 통해 조례 제정의 사전 절차로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전통사찰과 지자체가 협의해 전통사찰보존구역을 정해야 한다며 해당 사찰은 경내지 도면을 작성해 지자체와 보존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도록 했다.

한편 구미 경실련과 YMCA등 7개 시민·환경단체와 불교계는 10일 성명서를 발표, 경북 구미시의 준농림지역 개발 조례 제정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정성운·김재경 기자
(swjung@buddhapia.com)



◇조계종 교육원에서 주관한 승려전산교육에는 교육원장 일면스님(왼쪽), 월정사 주지 현해스님등 교계의 지도지와 강원의 학인들이 동참했다.

조계종 교육원 승려 전산교육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7~12일 6일간 동국대 전산원에서 승려 전산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원장 일면스님이 직접 교육생으로 참가한 이번 전산교육에는 월정사 주지 현해 스님과 청암사 지형스님, 전국 강원의 학인 스님 등 50여 명이 참가했다.

교육은 컴퓨터를 다루는 법에서부터 워드프로세스, 인터넷 기초 등을 공부하는 초급반과 인터넷 활용방법을 심화하는 중급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한편 교육원은 이번 전산교육에 참가한 강원 학인들에 한해 교육비를 전액 지원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1면 '조계사 신협' 서 계속

나 단체별로 재정을 엄격히 관리하려는 의지자체가 없는 것이 문제"라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공금을 빼낼 수 있는 상황에 초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안건회계법인 주요식 사장은 내부통제시스템이 빈약한 종교단체에서 횡령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철저히 사업차원에서 접근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주사장은 "이제는 불교계도 일반 기업의 관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지금까지 노출된 문제들은 공개적이고 경쟁적인 사회시스템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며, 따라서 전문가에게 맡길 것은 맡겨 자문과 내부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가연대는 9일 성명을 발표하고 "현재 조계종단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설과 기관들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적절한 운영관리 개선조치를 취해 종단을 위태롭게 하는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지리산 공원구역 확대
쌍계사지구등 포함

정부가 지리산 국립공원구역으로 경남과 전남·북 일원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어서 공원구역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6일 환경부의 '지리산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올 연말께 경남과 전남·북 일원의 9개 지구에 걸친 44.023㎢의 면적이 지리산 국립공원으로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경남의 경우, 산청군 삼장면 내원사 및 대원사지구 14.925㎢,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지구 0.966㎢, 하동군 화개면 쌍계사지구와 청암면 일원 14.068㎢, 함양군 마천면 백무동지구 10.054㎢의 면적들이 지리산 국립공원 구역으로 새로 편입된다. 전남 구례군 현은사 및 화엄사, 연곡사 지구 3.01㎢의 면적이 편입되고 전북 남원시 주천면 구룡폭포지구 1.343㎢의 면적이 추가 편입될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이대정스님=독립운동가

조계종 불학硏 '일제고법 판결문' 발견

불교계 독립운동사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이대정(강원도 월정사) 스님의 '고등법원 판결문'이 발견됐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는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에서 '1920년 월정사 승려 이대정의 경성복심법원 형사부 판결문 및 1921년 고등법원 형사부 판결문'을 찾았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중국 상해 임시정부의 '의원참모사'(지금의 의원비서)라는 직책의 이대정 스님은 1920년 4월 의친왕 이강(李堈)을 임시정부로 망명시키고 항일독립운동의 구심체로 삼으려 했지만, 자금 부족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해 8월 서울 영락정에서 체포돼 2년간의 옥고를 치렀다는 것이다.

이 판결문은 불학연구소 박희승 연구원이 1997년부터 독립운동가이자 조선불교조계종의 초대 총무원장인 이종욱(강원도 월정사) 스님에 대한 '친일 의혹'에 쐐기를 박기 위해 관련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김광식(근현대불교사 연구가·대각사상 수석연구원) 박사는 "이대정 스님의 판결문은 불교계 항일운동사에 새로운 자료라는 점에서 주목된다"며 "판결문을 토대로 스님의 항일투쟁의 여정을 되짚는 연구가 따른다면, 이종욱 스님의 '친일 의혹'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정·이종욱 스님은 강원도 월정사 출신으로 1910년대~1920년대 사이에 '이강 망명'과 '대동단 활동' 등 동일한 항일운동을 전개한 만큼, 이대정 스님의 활동에 대해 역학 관계를 추적한다면 이종욱 스님의 '친일 의혹'도 자연히 풀리게 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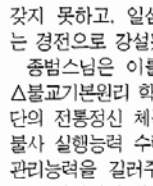
이에 따라 불학연구소는 지난 3월부터 추진해 온 '근현대 한국불교사·조계종단사'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가 자료 수집과 정밀 분석 과정을 거쳐, 이대정 스님과 이종욱 스님의 관계를 명확히 밝힐 계획이다.

이대정 스님의 판결문은 불교계의 새로운 항일(抗日) 사료로, 이종욱 스님에 대한 '연구'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강원교과목 개선 필요"

종범스님 '선문수행 위주 편성' 주장



전통강원의 교과목이 선문 수행에 적합하도록 편성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종범스님(중앙승가대 교수·사진)은 조계종 교육원이 발행한 〈승가교육〉 제3집 '승가의 기본교육과 교과과정'이라는 논단을 통해 주장했다.

종범스님은 사미과의 '조석송주'는 선수행 등이 포함돼 있으며, 〈초발심자경문〉과 〈치문〉은 산중수행과 선수행을 강조한 선문의 지침서라고 강조했다. 또 사집과의 〈도서〉〈절요〉는 선교일치를 피력했고, 〈서장〉〈선요〉는 간화선 수행을 역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교과의 〈능엄경〉〈기신론〉〈원각경〉은 조사선지의 근원이 되는 여래장 청정심을 선설한 것이고, 〈금강경〉은 오가해를 통해 별전선지로 이해해 왔으며 대교과 〈화엄경〉도 화엄의 교의와 사상을 연구하고 학습하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일심의 근원을 밝히는 경전으로 강설됐다고 설명했다.

종범스님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불교기본원리 학습과정 필요 △교단의 전통정신 체득과 계승 △교화불사 실행능력 수련 △교단수호 및 관리능력을 길러주는 등의 교과목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오수처리지원단' 설치
환경부, 4대 강에

지리산댐 건설계획과 관련 수량관리 정책보다는 종합적인 수질관리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4대강 유역의 수질 보전을 위한 '오수처리시설 기술지원단'을 구성, 운영한다.

환경부는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4대강 유역 환경감시대 산하에 오수처리시설 기술지원단을 이달 중 별도로 설치, 시설점검과 함께 계도성 기술지원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기술지원단은 환경부로부터 기술검증을 받은 우수 오수처리시설 제조업체의 기술인력과 환경관리공단 직원들로 구성된다. 기술지원단에는 인천 대현산업㈜, 광주 ㈜장호, 울산 ㈜엔비켐 등 총 25개 업체가 참여한다.

김재경 기자

"군종선발 기준 확대"
군승단, 조계종에 요구

군승단(단장 김말환)은 8일 호국 원광사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군종사관후보생 수급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운영위원들은 교구본사 강원에 재학중인 학인을 1년에 한두명 정도 군종요원으로 선발해 줄 것과 군법사를 희망하는 동국대·승가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등 특별관리해 줄 것을 조계종 포교원에 요구키로 했다.

김두식 기자

현대만평 박구원



통일을 기원하며…

'남북선언 실천법회' 24일 관문사서

종단협 이사회, 대각종 가입 승인



종단협의회(회장 정대 조계종 총무원장)는 9일 상임이사회의를 열고 '남북공동선언 지지·실천을 위한 범불교도법회'를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종교분과위원회(위원장 송석구 동국대총장)와 공동 주최해 24일 오전 11시 천태종 관문사에서 봉행하기로 했다.

상임이사회에서는 또 대각종(총무원장 만청)의 종단협의회 가입을 승인했다. 그러나 한국불교법화종의 재가입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대각종이 가입함으로써 종단협의회 가입 종단은 27개로 늘어났다.

대각종은 96년 10월 1일 현재 총무원장인 만청스님(사진)이 창종했으며, 고구려 순도 화상을 종조로, '석가세존의 자각, 대각, 각행, 교와 선을 봉제하신 순도화상의 대승풍 선양'을 종지·종풍으로 삼고 있다. 소의경전은 금강경이다.

서울 부산 대구 경북 충남 등 5개 교구에 소속된 500여 사찰에서 90여명의 스님과 6만2천여명의 신도들이 수행과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총본산은 충북 부여의 미암사이며, 원로원과 중앙종회, 총무원, 사정원, 포교원, 교육원, 수선원, 문화원 등의 중앙기구를 두고 있다.

종단협의회에 새로 가입한 대각종 총무원장 만청스님은 "여러 종단의 총무원장 스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 불교 발전에 기여하는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특히 총본산이 부여에 자리하고 있는 점을 활용해 백제불교의 얼을 살리는 사업과 한-일 불교문화 교류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訃 告

大韓佛敎 曹溪宗 比丘 靈山堂 正眞 大和尙께서 世緣이 다하시어 佛紀 2544년 8월1일(陰曆 7월 2일) 오전 11시 서울 상도동 普門寺에서 圓寂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永訣日時 : 불기 2544년 8월 3일 (음력 7월 4일) 오전 8시 ⊙永訣場所 : 서울 동작구 상도동 보문사 ⊙茶毘場 : 전남 나주 경현동 多寶寺 茶毘場

■증 명 : 혜암, 서옹
■고 문 : 정대
■장의위원장 : 정련
■장례위원 : 혜창, 원공, 덕기, 원명, 기봉, 경남, 혜남, 도원, 정각
■호 상 : 기현
■집행위원장 : 성웅, 자용
■집행부위원장 : 송묵
■지도위원 : 효경, 일연, 운월, 현성, 지암, 무염, 혜언, 법성, 오원, 동훈, 도안, 법해, 법일, 혜도, 혜자, 성관, 성오, 대련, 법경, 현철, 백운, 정수, 견진, 영운, 도성, 법진, 명은, 우정, 법승, 보현, 호명, 담교, 능화, 도암, 자음, 적운, 정혜, 법성, 설산, 법운, 장적, 원타, 영진, 지근, 심우, 진성, 법우, 법웅, 성후, 일수, 수진, 수안, 주오, 적묵, 탄공, 지정, 동건, 진웅, 진석, 범해, 지광, 연담, 귀영, 법농, 혜성, 동희, 혜인, 법안, 무구, 종률, 영진, 혜진, 상덕
보문 중앙 방생자비회 일동, 보문 용두 자비방생회 일동, 보문 마산 자비방생회 일동, 보문 거사회 일동, 보문 자비방생 합창단 일동, 국군 벽제병원 자견사 일동, 국립 재활원 일동. (무순)

■사 형 제 : 적명, 종호, 일륜, 능인, 정담, 도업, 제철
■문 도 : 회정, 선타, 일지, 성일, 성수, 성오, 성관, 성달, 성각, 청암, 심적, 대안, 성우
■상 좌 : 지공, 지암, 지범, 지인, 선문, 지천, 지월
■장의도감 : 현법

人事말씀

공사 多忙하심에도 불구 하시고 永訣式에 參席해 주신데 대하여 일일이 찾아 뵙고 人事드림이 도리인줄 아오나 慌忙中 우선 지면으로 심심한 感謝의 인사를 올리오니 널리 惠諒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려 49齋를 상도동 보문사에서 奉行하오니 무루 參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도 대표 : 지 암 합장

▶ 49재 일시 : 불기 2544년 9월18일(음력 8월 21일) 오전 10시
▶ 장 소 : 서울 동작구 상도4동 279-390 보문사
▶ 문 의 : 02)823-7443

靈山堂 正眞 大和尙 葬儀委員會

목어

바삭바삭한 돼지껍질

인간과 가장 닮은 동물이 돼지라 하면 어리둥절해 할지 모른다. 원숭이도 있지 않느냐고 할 것이다. 여기에 현대의학은 돼지 쪽에 편을 든다. 이유는 사람에게 장기이식을 할 때 돼지의 장기를 쓰면 부작용도 적을 뿐더러 사이즈도 어지간히 맞아 앞으로 이용가치가 많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인지는 모르나 프랑스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쓴 〈아버지들의 아버지〉에는 유인원과 인류 사이의 연결고리에 돼지를 끼어 넣는 기발함을 보여준다. 한 고고학자가 원숭이 대신 돼지를 인류 조상에 편입시키려 사건을 꾸미지만 결국은 조작임이 밝혀진다는 것인데, 소설은 독자들로 하여금 마지막까지도 '혹시 돼지가…' 하는 의혹을 떨쳐 버리지 못하게 한다.

돼지는 불결하다는 일반 상식과는 달리 깨끗한 것을 좋아하고 미각에 있어서도 최고급만 찾는 동물인데 어쩌다 인간들 손에 길러지게 되면서 그 모든 것을 체념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사람들이 돼지 주변을 깨끗이 청소해 주지도 않을 뿐더러 돼지에게 주려고 일부러 맛있는 음식을 만들리도 없다.

프랑스 요리에서 가장 맛있고 값비싼 요리의 재료, 송로버섯(truffle)은 돼지의 힘을 빌지 않고는 찾을 길이 없다. 개보다 후각이 더 발달한 돼지는 천하일미 송로버섯의 냄새만 맡고도 달려가 찾아낸다. 하지만 천하일미가 돼지차지가 될 수 없는 일. 사람들은 당연한 듯이 버섯을 돼지로부터 갈취하게 된다.

소와 마찬가지로 돼지는 죽어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몽땅 바치는 동물이다. 그런데 요즘 미국에서 돼지껍질 튀김이 간식용으로 날마다 인기를 더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포테이토칩보다 더 바삭바삭하고 맛있는 데다 다이어트 효과까지 있다니 인기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불이 날 대량수요에 맞추어 돼지껍질칩을 만들자면 앞으로 돼지가 얼마나 죽어 나가야 할까.

옛날 조선 부자 가운데 고등어 껍질 구워서 쌈 사먹는 것을 즐기다 3년도 못돼 재산을 거덜내고만 만석꾼 이야기가 생각나는 것은 어째서일까.

어찌 되었거나 돼지들에게 새로운 수난이 시작되고 있다.

김징자(언론인 · 본지 논설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논설고문 : 고 은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감사 한번도 없어…감독 소홀

조계사 신협 횡령사건 '파문'

조계사 신협 직원의 고객예치금 횡령사건은 지난 7일 검찰로 넘겨져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피해액이 얼마고, 피의자들이 주식 및 구권화폐 이외에 따로 은닉해 놓은 돈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그렇게 큰 돈을 과연 송석윤과장 혼자서 횡령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가시지 않고 있다. 조계사 마저도 이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을 정도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송과장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뿐이다. 하지만 신빙성이 크게 떨어져 검찰 수사가 마무리돼야만 사건전모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사건경위

조계사 신협 자체 감사결과 송석윤 과장은 지난해 6월부터 올 7월까지 1년이 넘게 50억이 넘는 고객예치금을 빼내 개인 또는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주식에 투자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 3월에는 구권화폐를 구입해 차익을 남기기 위해 신협 감사 조택동씨와 함께 24억원을 불법인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구권화폐 매입과 관련해 송 · 조씨 두 사람은 24억을 인출, 구권화폐를 사주기로 한 김포축협 모지점장 우모씨에게 24억원을 건넸다가 구권화폐를 받지 못하자 도로 24억원을 되돌려받았으나, 송 · 조씨와 마찬가지로 구권화폐를 매입하기 위해 우모씨에게 돈을 건넸던 사람들의 수표를 받았고, 자신들의 수표를 추적한 이들이 돈을 내놓으라는 일종의 협박에 무마금조로 16억5천만원을 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 돈이 이들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송과장의 경찰진술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번 사고는 지난 5월부터 자체 감사 일정이 잡혀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송과장이 감사를 계속 연기해오자, 이를 의심한 임원진들이 감사를 강행하면서 밝혀졌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은 뒤였다.

●무엇이 문제였나

금융관계자들은 직원들이 나쁜 마음만 먹는다면 금융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그만큼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필연적이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1년이 넘게 횡령이 저질러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은 관리감독 소홀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도 없다. 일각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 몸통설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그렇게 큰 액수가 1년이 넘는 동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운용할 수 있는가 하는 데 있다.

우선 신협은 정관에 명시돼 있듯이 3개월에 한 번 하기로 돼 있는 자체감사를 조계사가 신협을 인수한 99년 1월 이후 단 한차례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창구직원 3명과 송과장 등 모두 4명의 직원들이 서로 업무를 감시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돼 있지 않았고, 송과장으로부터의 입출금관리 등에 대한 보고도 1주 또는 2주에 한 번꼴로 이루어졌다. 물론 송과장이 이사장에게 보고한 서류도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특히 이사장 지홍스님의 직인을 송과장이 지니고 있게 함으로써 신협의 실질적인 권한이 송과장에게 이양돼 있었던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심지어는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도 법인등기부 등본상 이사장이 전 주지 현근스님으로 돼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신협 임원진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만 떼주고 모든 업무를 송과장에게 맡겼고, 송과장은 지홍스님이 '3년 이상된 조합인'이라는 이사장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도 이를 보고도 하지 않은 채 묻어놓았던 것이다. 또한 비전문가가 운영권을 맡았다는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계사는 마땅히 책임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조계사가 신협을 인수한 때가 종단사태 직후여서 제대로 인수인계를 못했고, 또 이후 실추된 조계사의 이미지를 되찾기 위해 사찰 업무에만 집중하다보니 신협에 대한 정비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고 밝히고 있다.

●조계사 신협의 앞날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계사 신협이 파산할 지 아니면 다시 정상영업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예측하기 힘들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48억의 손실분을 메울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 파산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재로서는 사고직후 일주일간 감사를 벌인 신협 중앙회의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가 중요하다.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된 신협 중앙회의 보고서에 회생가능성이 적다는 판단이 들어있다면 금융감독원은 조계사 신협에 대한 경영지도에 들어가게 된다.



◇간판내린 조계사 신협. 조계사 신협은 사고직후인 1일부터 대출금 관련 업무외에 모든 업무를 중단했다.

작년 6월부터 예치금 빼내
과장 맘대로 이사장 직인 사용
'수십억 횡령 혼자서' 의문
모든 거래자 원리금 보호

경영지도는 금융감독원이 예금보험공사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예금보험공사에서 파견된 인사가 업무를 관장하며 실사를 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신협 임원진들의 권한은 정지된다. 그리고 실사에 따른 최종판단이 회생불능으로 모아지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고 이에 따른 절차를 밟게 된다. 그리고 예금보험공사가 신협을 대신해 예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검찰 조사과정에서 송 · 조과장 두 사람의 은닉 재산이 밝혀지고 손실액 48억원을 충당할 수 있는 돈이 상당부분 확보되거나 인수자가 나타날 경우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조계사측에서도 이 경우는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1일 현재까지 신협 중앙회 감사결과 보고서의 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금융감독위원회에는 보고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금자 어떻게 되나

조계사 신협의 예금자들은 예금 손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신협이 파산하게 되는 경우라도 95년 제정된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액 일체를 정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조계사 신협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에 가입돼 있어 공제상품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출자금, 예탁금, 적금)을 보호받는다. 현재 조계사 신협의 경우 공제상품은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거래자들이 예금을 보호받는다고 보면 된다.

다만 98년 8월1일 이후 신규로 가입한 예금 중 2천만원을 넘는 경우는 원금만 보호받을 수 있으며,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최고 2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98년 7월31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에 대해서는 원금과 약정이자를 모두 보호받을 수 있다.

지급절차는 신협의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을 신문에 공고하게 되며, 예금자들은 신문에 공고된 내용에 따라 예금을 지급 받으면 된다. 따라서 현재 예탁금을 찾는 것은 물론 실사가 끝나고 최종판단이 내려지기까지 걸리는 통상 2~4개월 내에 예금을 인출할 수는 없다.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들의 예금을 대신 지급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일차적으로 피의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하게 된다. 구상권이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 가지는 상환 청구권으로, 피의자로부터 청구할 수 있는 액수가 적을 경우 나머지 부족분은 책임의 대소에 따라 임직원에게 청구된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조계종 예암종정 하안거 해제법어

"봄오니 여전히 풀은 푸르네"

第一句下에 薦得하면 與佛祖爲師요
第二句下에 薦得하면 與人天爲師요
第三句下에 薦得하면 自救도 不了라하니
臨濟老漢의 好介雜語여 將南作北하고
認賊爲子하니 非但 却天下人眼이요
亦乃自喪本辰命根이로다
山僧은 卽不然하니
第一句下에 薦得하면 生陷地獄이요
第二句下에 薦得하면 消風明月이요
第三句下에 薦得하면 殺佛活魔로다
雖然恁麼나 出纏羅身에 猶膠著地하니
透脫一句作麼生고 (良久)云
五更에 鷄唱家林曉요 春來依舊草自靑이로다
喝 一喝

第一句 아래서 깨달으면 부처님과 祖師의 스승이 되고
第二句 아래서 깨달으면 사람과 하늘의 스승이 되고
第三句 아래서 깨달으면 자기도 구하지 못한다 하니
일제 늙은이의 좋은 잠꼬대여 남쪽을 가리켜 북쪽이라 하고
도적을 인정하여 자식을 삼으니 天下사람들의 눈을 멀게 할 뿐 아니라
自己의 본래 生命도 스스로 죽임이다
山僧은 그렇지 않으니
第一句 아래서 깨달으면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고
第二句 아래서 깨달으면 맑은 바람 밝은 달이요
第三句 아래서 깨달으면 부처를 죽이고 魔王을 살린다
비록 그러하나 독사가 사람 몸을 휘감으매 해골이 땅에 깔렸으니
透脫한 한 마디는 어떠한가? (한참 묵묵한 후에 말하였다)
五更(오경)에 닭이 우니 집 앞이 밝아지고 봄이 오니 여전히 풀은 푸르네
아 악 -

불기 2544년 8월 14일
조계종 종정 혜암

"사면 꼭 해야 한다"

정대스님 밝혀…가을경 새청사 기공

조계종총무원장 정대스님이 사면 실시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정대스님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사면은 꼭 해야 한다. 그래야 종단이 정상화된다. 계속 사면을 추진할 것"이라며 사면 실시 의지를 밝혔다.

정대스님은 체탈도첩당한 7~8명의 스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사면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설득하겠다" "체탈도첩 당한 사람이 너무 많다. 시비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도 터놓고 봐야 한다"는 말까지 할 정도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사면안을 종회에서 통과해줘야 하는데" 라며 종회에 대한 서운함도 감추지 않았다.

지난 3월 총무원이 사면을 실시키 위해 중앙종회에 제출한 종헌개정안은 현재 종헌 · 종법 제 · 개정특위(종헌특위)에 계류돼 있으나, 종헌특위는 6월초 이후 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

정대스님은 또 이날 간담회에서 "가을경 새 총무원청사를 기공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대스님은 "조계사신협 횡령사건이 일단락되면 중앙종회와 집행부, 재가자들로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총무원청사 신축은 98년 당시 총무원장인 고산스님이 추진했으나, 종단사태로 기공식을 앞두고 중단됐다. 정대스님은 또 종무행정 전산화를 위해 전산국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 기사 넘쳐 '선과 21세기' 쉽니다.

한국전통민속·문화대학 설립에 즈음하여
(독지가나 투자 하실분을 모십니다.)

미래에 젊은 인재를 양성하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연구, 개발, 보존해서 세계의 문화속에 우리고유의 전통민속문화를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보다 다양한 인재를 양성해 세계속에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통문화 창달에 기여하여 국가관, 민족관이 살아있는 한국전통 민속문화 대학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1. 사업내용
- 학교 전통민속, 문화대학 설립 및 전통서당(학당) 설립

2. 교육학과
- 국악 및 전통악기, 민속한의학, 한문, 서예, 전통무예, 전통춤, 전통의복등 전통문화 관련내용

3. 예상 소요경비
- 300억원

4. 학교부지 (위치)
- 학교위치 선정은 국악의 발상지인 남원, 운봉, 구례, 곡성등으로 학교부지를 물색 중에 있으며 추후 독지가나 투자자 분들과 협의해 최종 학교부지를 선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교 설립에 뜻이 있으신 독지가 분이나 학교설립에 투자 하실분을 모십니다」

◆가 칭: 한국 전통민속·문화대학 및 전통서당 (학당) 설립추진 준비위원회
◆설립추진준비위원장 : 이 학 수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30번지
TEL : 063)634-7283 H·P : 019)634-7283
FAX: 063)634-1237

※ 뜻있는 독지가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

■농 협 513148-52-061376
■우체국 400077-02-010610
예금주 : 이 학 수

영공스님 입적 사리 300과 나와



효봉·성철스님 등과 함께 금강산 유점사에서 수행했던 조계종 응선사 조실 영공스님이 세수 96, 법랍 68세로 1일 서울 응선사에서 열반했다. 3일 경기 벽제화장장에서 다비식을 가진 스님의 법구에서는 팔알 크기의 옥색 사리 9과를 비롯 쌀알 크기의 사리 300여과가 수습됐다.

1905년 경기 양주에서 출생한 영공스님은 33년 화성 수도암에서 박금봉스님을 은사로 득도, 37년 금강산 유점사 능인계단에서 박한영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금강산 마하연 선방에서는 송만공스님 문하에서 효봉, 성철, 만해, 덕암스님 등 20여명의 수좌들과 함께 참선 수행에 매진했으며 양주 회암사, 도봉산 천축사, 서울 응선사 중창불사를 완수하는 등 포교에도 힘을 쏟았다.

"관세음보살을 끊임 없이 염할 경우 관세음보살이 내 몸에 상주하고, 결국에는 내 자신이 관세음보살로 화현됨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염불선"이라고 강조해 온 스님은 참선과 염불을 한시도 늦추지 않았고 절약과 무소유 정신실천에 앞장섰다.

"스님이 공부 안하면 지옥이 3천개"라며, "스님들은 시줏밥 무서운 줄 잘 알아야 하고, 수행자라면 돈과 명예욕을 철저히 버리고 살아야 한다"고 늘 제자들에게 강조한 스님은 "불교는 신라시대처럼 생활불교가 되어야 살아난다. 불자가 없으면 불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사찰은 생활불교의 도량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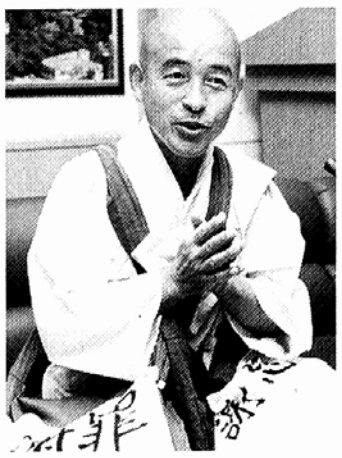
동국대 총동림회장 정진스님 입적



불우한 이웃들에게 보살행을 실천해 종단 안팎의 존경을 받아오던 영산 정진〈사진·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림회장〉스님이 서울 보문사에서 1일 입적했다. 법랍 45세 세수 60세. 스님의 다비는 3일 전남 나주 다보사에서 봉행됐다. 1941년 경기도 화성군에서 태어나 1960년 우화 스님을 은사로 서울 대각사에서 득도한 정진스님은 은해사 대교과와 동국대 불교대학원 불교학과를 수료했다. 이후 병상심방원 원장, 보문정사 유치원 이사장, 불교간병인협회 회장, 사회지원복지전문학원 원장 등을 역임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중생들을 돕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또 30여 년 간 국군병원과 전방의 군부대를 방문하며 포교에 진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97년 1월 조계종 포교대상 공로상을 수상했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日스님 독립기념관서 참회기도



위안부 문제 등 사죄 한국 일주 도보순례

두달 간 1000km를 걸으며 '한국 일주 사죄 순례길'에 오른 일본 신텐(神泉)시 산묘법사(山妙法寺)의 이와타루조(岩田隆造) 스님〈본지 280호 22면 기사참조〉이 14~15일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이틀 동안 단식하며 '사죄 기도'를 올렸다.

스님은 "과거 일본이 한국을 강점해 군 위안부, 강제징용 등의 죄를 저지른 데 대해 일본인의 한사람으로 사죄하기 위해 고행길에 올랐다"며 "나의 한국 도보순례가 일본인들에게는 자성의 계기가 되는 동시에 한일관계 개선과 문화교류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7월12일 도쿄역을 출발, 시모노세키에서 페리호를 타고 부산에 도착(7월14일)한 후 도보로 마산과 진해, 진주, 순천, 광주, 익산, 인천, 서울을 거쳐 독립기념관에 도착한 스님은 10일에는 서울시청을 방문해 지난날의 일본의 만행에 대해 사죄하기도 했다.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박원순 변호사 "불교 사회참여 시대 요구"



"시민단체도 폐업 선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지옥 같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21세기에는 '하화중생'을 도모하는 사회적 의식이 있는 종교가 필요합니다." 5일 우리는선우 8월 정기법회에서 '21세기 시민운동과 불교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강의에서 박원순 변호사(참여연대 사무처장)는 "자기만을 위한 위한 수행은 부처의 길이 아니다"며 "현실참여 불교는 시대적 요구이자 불자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도필선 기자



강진 백련사 군장병 수계법회

강진 백련사(주지 혜인)는 8일 육군 제8539부대에서 장·사병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계법회를 가졌다.

주지 혜인스님은 "군에서는 5계 모두를 실천하기 어렵지만, 성실한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정성을 다하면 참다운 불자가 될 수 있다"면서 "지금의 수련이 통일의 밑거름이 된다는 발원으로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윤오 목포지국장



불교유아교육협 불교 유치원교사 수련회

대한불교유아교육협회(회장 정인)는 28, 29일 양일간 내원정사 및 내원정사 어린이집에서 제27회 대한불교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수련회를 개최했다.

'늘 푸른 마음, 부처님 마음'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에는 서울, 제주, 부산, 대구, 경북 등지의 교사 3백 여명이 참가했다.



설법연구원 수운회관 이전법회

설법연구원(원장 동출)이 종로구 경운동 수운회관 403호로 사무실을 옮기고 7일 이전 법회를 가졌다. 이날 법회에는 진관 스님(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주경 스님(조계종 총무원 포교국장), 법현 스님(종단협의회 사무국장), 성전 스님(옥천암 주지), 김봉소 삼천사 부부불자회 회장 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했다.



불상에 핀 하얀 꽃

Foc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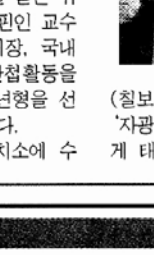
천태종 대전 광수사(주지 세운) 대적광전 비로자나불 오른쪽 팔꿈치에 신비한 하얀 꽃이 피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7월 21일 오전 김갈룡 부전스님이 불단을 청소하다 발견한 이 꽃은 길이가 2.5㎝ 정도로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울 만큼 가는 뿌리를 내렸으며, 줄기 또한 낚시줄처럼 가늘고 투명하며 끝 부분에 여러 가닥의 가는 가지가 뻗고 그 위에 3㎜ 크기의 하얀 꽃이 피어 꽃을 보기 위해 하루 평균 천여명이 광수사를 찾고 있다.(042)823-0332~4

주지 세운 스님은 "우리 국토의 중심지인 대전 광수사 부처님 불신(佛身)에 신비로운 꽃이 핌으로써 민족에게 서광을 주고 나라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보여주는 것 같다"며 반가워 했다. 이경숙 기자(gslee@buddhapia.com)

일주문

진신사리 친견 회향법회



신허 통도사 주지는 14일 설법전에서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회향 법회 및 백중 법회를 봉행했다. 통도사는 이날 부방장 상우 스님의 하안거 해제 법문으로 시작된 이날의 법회를 마치고 통도사를 방문한 어린이들에게 통도사 전경, 어린이 캐릭터가 디자인된 스케치북 2천개를 무료로 증정했다.

북한에 밀가루·옷감 전달



법타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공동대표는 7월31일 조선불교도연맹을 통해 북한 사리원 금강국수공장에 중국산 밀가루(특A급) 50톤과 여름 옷감 천 3500m를 전달했다.

재생불량 빈혈환자에 성금



영조 생명나눔실천회 광주지역본부장 스님은 28일 오후3시 광주 관음사에서 재생불량성빈혈을 앓고 있는 오성애씨에게 성금 1백만원을 전달한다.

네팔 건축인과 사찰순례



법신 네팔 룸비니 대성 석가사 주지는 5일 네팔 사찰 건축 기술진과 함께 귀국, 2개월간 해인사, 통도사 등 10여 사찰을 순방한다.

'부처님의 건강법' 법문

경훈 무안 약사사 주지는 25일 광주 불교교육원에서 '부처님의 건강법'을 주제로 법문한다. 062)228-9098

법화경 사경·탑돌이 법회



도림 평화통일불사리탑사 주지는 15~17일 평화통일과 구국안민을 발원하는 한민족 법화경 사경·독송 및 108탑돌이 대법회를 제주 조천에 있는 평화통일불사리탑사에서 개최한다.

이화여대서 불교미술 강의

강우방 국립경주박물관장은 최근 사표를 제출하고 이화여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초빙교수로 자리를 옮겨 9월부터 불교미술을 강의한다.

정수일씨 8·15특사로 출소



산사서 수행 희망

동서교류사를 전공하고 불교계에는 서역불교 교류사연구의 권위자로 잘 알려진 정수일 (일명 무하마드 깐수, 前 단국대 사학과 교수)씨가 15일 8·15 특사로 출소했다.

정씨는 지난 74년부터 5년간 북한에서 간첩교육을 받은 뒤 84년 레바논계 필리핀인 교수 무하마드 깐수로 위장, 국내에서 12년 동안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98년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98년 4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3개월만에 이슬람교에서 불교로 개종, 오원스님(칠보사 주지)에게 계를 받고 '자광(慈光)' 정수일로 새롭게 태어난 정씨는 밥알로 부처님을 조성해 놓고 매일 108배를 하고, 〈천수경〉〈금강경〉〈반야심경〉등을 읽고 쓰면서 보낼 정도로 불교에 깊이 빠져 들었다.

정씨는 동국대 정각원장 법산스님에게 편지를 통해 "이곳 도량(대전교도소)의 일주문을 나서게 되면 산사에 들어가 수행을 계속할까 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도필선 기자

고불총림 백양사 참사람 무차대법회

■증 명 : 서옹 대종사, 혜암 대종사
■고 문 : 관응, 고송, 월하, 원담, 벽암, 석주, 응담, 도천, 도견, 지종, 청하, 성수, 숭산, 종산, 보성, 정천, 법전, 녹원, 도원, 월인, 청화, 송담, 법룡, 정영, 진제, 지유, 활안, 인허, 법행, 정일, 월주, 혜정, 벽봉, 천운, 고산, 정대, 능가 (무순)
■자문위원 : 거혜, 고봉, 고우, 광제, 구암, 구한, 근일, 노학, 능연, 능혜, 다정, 덕민, 무진장 대원, 덕명, 도문, 도영, 도성, 도후, 동광, 명선, 몽산, 무분, 무여, 무공, 무비, 밀운, 법등, 법안, 법의, 법장, 법정, 법조, 법조, 법타, 법현, 법홍, 벽파, 백운, 보광, 보선, 봉주, 부림, 선곡, 설정, 성덕, 성오, 성우, 성우, 성주, 성타, 성파, 세민, 송경, 암도, 우송, 원명, 원융, 원성, 월운, 월은, 월단, 월파, 인각, 인환, 일면, 일우, 정관, 정광, 정락, 정련, 정명, 정무, 종걸, 종범, 종성, 종원, 종진, 중원, 지관, 지선, 지성, 지은, 지하, 진철, 진허, 진호, 초우, 천계, 철우, 철우, 철형, 초삼, 통광, 평전, 학능, 화암, 헌기, 현산, 현성, 현해, 현호, 혜광, 혜국, 혜남, 혜산, 혜성, 혜정, 혜총, 효광, 효산, 홍교 (가나다순)
■지도위원 : 각수, 각현, 경훈, 계성, 계현, 광복, 광조, 금산, 금성, 금송, 능성 대성, 대오, 대우, 대원, 대현, 대효, 덕상, 덕함, 도각, 도문, 도법, 도선, 도안, 도오, 도완, 도원, 돈각, 돈수, 동덕, 동명, 동욱, 두백, 마근, 만조, 명곤, 명관, 명언, 명정, 명조, 명진, 몽산, 무관, 무량, 무산, 무상, 무연, 무착, 백산, 범종, 법각, 법공, 법담, 법두, 법보, 법성, 법안, 법연, 법우, 법인, 법일, 법체, 벽담, 벽상, 보광, 보성, 부동, 불산, 상경, 상운, 상련, 석호, 선광, 선봉, 선요, 선용, 선용, 설송, 설조, 성관, 성로, 성문, 성문, 성우, 성운, 성원, 성재, 성주, 성혜, 세영, 소연, 수경, 수완, 수진, 시몽, 심경, 양산, 여연, 연관, 연수, 영담, 영명, 영배, 영선, 영조, 영진, 영환, 우담, 우화, 유광, 원담, 원명, 원연, 원우, 원응, 원타, 원택, 원행, 원행, 원효, 월우, 의정, 인각, 인담, 인묵, 인행, 일륜, 일철, 임조, 장곡, 장윤, 장주, 재문, 적연, 정각, 정경, 정관, 정념, 정묵, 정우, 정우, 정인, 정중, 정찬, 정태, 정혜, 정호, 정휴, 제우, 종경, 종고, 종광, 종대, 종락, 종림, 종밀, 종심, 종상, 종안, 종열, 종우, 증지, 종표, 종하, 종현, 자승, 제호, 주일, 지공, 지광, 지근, 지만, 지묵, 지법, 지송, 지승, 지오, 지우, 지운, 지윤, 지윤, 지원, 지일, 지진, 지하, 지향, 지현, 지형, 지홍, 지환, 진각, 진관, 진광, 진만, 진성, 진아, 진원, 진현, 천진, 철산, 철우, 철인, 청원, 청제, 청화, 탄공, 탄우, 태공, 태연, 태욱, 태응, 평상, 평중, 학담, 합주, 향운, 향적, 허정, 현각, 현근, 현봉, 현소, 현암, 현용, 현웅, 현장, 현전, 현지, 현진, 현진, 혜관, 혜권, 혜산, 혜안, 혜암, 혜원, 혜정, 혜창, 호연, 화법, 효광, 효종, 경륜, 계호, 도문, 법성, 본각, 수현, 운달, 육문, 일법, 재운, 지형, 진성, 해주 (가나다순)
■조직위원장 : 다정
■조직위원 : 총혜, 창봉, 선각, 백암, 원연, 혜숭, 진공, 수인, 창렬, 창오, 원공, 원진, 도형,지일, 응각, 현광, 법일, 성덕, 범륜, 진우, 법운, 화봉, 현명, 도륜, 원응, 법장, 도안, 법성, 향공, 법영, 맹연, 명공, 탄우, 법승, 일수, 진오, 도성, 설재, 정법, 타파, 현공, 정연, 도일, 진우, 무공, 창운, 보현, 진석, 현공, 석용, 현각, 혜성, 무연, 정헌, 의연, 원일, 세정, 선공, 토진, 성륵, 일도, 광진, 자성, 동참, 동화, 동파, 자연, 보연, 원종, 석장, 본묵, 혜현, 장우, 원철, 명진, 대묵, 법광, 본연, 청연, 도연, 초연, 상연, 금강, 현묵, 무아, 무상, 정만, 용우, 형공, 여혼, 보행, 문성, 심연, 법현, 무경, 현정, 관연, 호산, 영공, 규암, 혜각, 동산, 경진, 대만, 지승, 도현, 무학, 제영, 관명, 정명, 법지, 정재, 도일, 정견, 학연, 석연, 한북, 원광, 법령, 주경, 성천, 성오, 대주, 재연, 차연, 철우, 원명, 성윤, 광전, 명진, 대천, 현암, 선각, 션공, 법연, 대연, 혜용, 명원, 수안, 서혼, 동선, 금인, 홍원, 원융, 정진, 용진, 법우, 보인, 지상, 경선, 광인, 여연, 혜종, 만당, 성광, 영만, 대현, 상진, 귀본, 심연, 광연, 승연, 시연, 홍진, 진성, 삼진, 남연, 무애, 법선, 정일, 효진, 서진, 서강, 본연, 우선, 진성, 광조, 상암, 정본, 청호, 지암, 혜원, 석붕, 남운, 지택, 혜연, 현오, 유진 〈비구니〉 수련, 관불, 정홍, 정덕, 명신, 경신, 법명, 현정, 법조, 법현, 법정, 유정, 정일, 정안, 법홍, 혜근, 벽담, 일연, 선법, 상진, 정원, 자윤, 종현, 선각, 수인, 혜진, 대관, 혜종, 원공, 법혜, 자인, 지용, 화진, 지훈, 지원, 도현, 혜타, 지수, 지윤, 자원, 지광, 지명, 지장, 무석, 지홍, 정법, 지현, 혜준, 지현, 지인, 해만, 정화, 삼홍, 관송 (법랍 순)
■준비위원장 : 암도
■준비위원 : 원응, 원진, 타파, 일수, 현광, 진우, 원일, 무아, 호산, 도연, 법신, 현묵, 석연, 무학, 만당, 정견, 법구, 법주, 소궁, 정진, 법전, 보광, 덕룡, 범상, 혜장

古佛叢林
참사람 無遮大法會

2544년 8월 19일(음 7.20) 토요일

고불총림 백양사
전화 (061) 392-7502 팩스 (061) 392-2081

■법어 : 서옹 고불총림 방장, 월하 영축총림 방장, 숭산 화계사 조실, 진제 동화사 조실
■강설 : 성본 동국대 교수
■일정 • 오전 9시30분 큰스님 법어
• 오후 2시 큰스님 법어 및 강설
• 오후 6시 : 연등 점등
※ 오전 8시30분~수시 : 방생법회(일광정 호수)

■주최 : 고불총림 백양사
■주관 : 참사람 무차대법회 조직위원회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문화관광부, 대한불교진흥원
불교방송, 불교텔레비전, 불교신문,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 대한불교신문, 주간불교신문

10년째 무사고 법회… '금강신심' 자랑

전철 구로사무소법우회 16일 창립 10돌

회원 70명…회보 내고 매월 사찰순례
양로원 · 고아원 위문 보살행도 모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긴 세월. 하지만 그 긴세월동안 한결같이 매달 한차례씩 법회를 계속해온 철도청 구로승무사무소 법우회가 16일 구로동 관음포교원(원장 일명)에서 창립 10돌 기념법회를 가진다.

구로승무사무소 법우회(회장 박창식)는 철도청 수도권 전철을 운전하는 불자 기관사들의 신행단체로 그동안 매달 셋째주 수요일 정기법회와 마지막 주 화요일 서울 경기지역의 사찰을 참배하는 순례법회를 통해 신심을 키워왔다. 또한 매년 10월에는 1박2일로 성지순례를 가져 철원심원사, 진안마이산 탑사, 두타산 삼화사 등 그동안 참배하지 않은 성지가 없을 정도다.

법우회는 신행활동 뿐만 아니라 복지관, 양로원, 고아원을 방문해 대승보살행을 꾸준히 실천해왔다. 특히 구로복지관에서 반찬나르기, 김장담그기, 장애인 나들이 봉사 등 지역주민을 위한 활동을 해왔고 지금도 관내 20가구에 매달 일정 금액을 지정기탁하고 있어 주위의 칭찬이 대단하다. 지난 5월에는 시흥에 위치한 혜명양로원을 방문해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목욕 뿐만 아니라 말벗이 되어 주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처럼 법우회가 왕성한 활동을 하기까지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5년전 성북승무사무소가 생기면서 법우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던 회원 절반이 성북으로 전출을 가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활발했던 법우회도 침체의 길로 접어들었고 회원들 사이에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게 됐다. 그래서 법우회 회지 '성불'을 만들어 기관사들에게 불교를 알리는 등 남아있는 회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지금은 회원도 70여명으로 늘고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되찾았다.

법우회장 박창식씨는 "10년동안 열심히 활동해 왔듯이 앞으로도 회원들의 신심을 키우고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계속 하겠다는 것이 회원들의 다짐"이라며 "구로 역사가 확정되면 조그마한 법당을 하나 마련하는 것이 법우회의 최대 소망"이라고 밝혔다.



◇구로 승무사무소법우회는 지난 5월 혜명양로원을 방문, 어르신들을 목욕시켜주거나 말벗이 되어주는 등 봉사활동을 벌였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일터에서 쓰는 마음의 편지



한 수 갑
〈서울우유 영업5 본부장〉

"어제는 업중생(業衆生) 오늘은 행보살(行菩薩) 내일은 원성불(願成佛)."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유전(流轉)하는 고해에 태어나 자기의 근본자리를 찾지 못한 채 네 마리의 뱀 실체를 한 몸에 안고 다섯 가지 욕망에 이끌려 살아간다. 네 마리의 뱀이란 지 수 화 풍으로 이루어진 무상한 육신을 말하고 오욕락(五欲樂)은 재욕, 색욕, 식욕, 수면욕, 명예욕 등 다섯가지를 일컫는다.

지금 우리 인간은 대우주의 섭리하에 그 생성(알파)과 종말(오메가)을 알지 못한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생명의 이치를 문(聞) 사(思) 수(修) 하다가 사라져간다. 인간은 무한한 우주 가운데 콩알만한 지구상에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칭하면서 국가, 민족, 정치, 과학 게다가 전라도, 경상도를 운운하며 꼴사나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 차라리 꼬마손 유치원생들의 거짓없는 참모습이 부럽기만 하다.



지금으로부터 28년전(1973년) 나는 서울우유 공채 1기생으로 입사, 서울우유 협동조합을 서울우유 주식회사로 착각하여 근무하다가 직장의 쓴맛을 본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협동조합 특성상 선출직 임기제 조합장은 있어도 평생을 생사고락할 사장이 없었기에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갈망하는 '승진'에 있어서는 마음 고생을 많이 했다. 특히 상식을 초월한 간부직 승진이 있을 때마다 오장육부를 뒤틀게 만들었고 왕성한 식욕도 수면욕도 다 떨어졌다. 이것 또한 불자라면 남의 탓이 아니라 나의 과보라고 생각해야 하지만 아직 중생이라 괴롭기만 했다.

명예도 부귀도 편안함도 마음으로 살아가는 안심입명(安心立命)일 때 비로소 행복하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 일찍 알았더라면 그때 그렇게 마음 아파하진 않았을 텐데….

90년대 초 경남 마산에서 서울우유 지역 총괄 지점장으로 재임시 그곳 불자님들의 지극한 호응으로 서울우유 협동조합 사상 전대미문의 전국 영업부문에서 91, 92, 93년 3년간 연속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같은 결과는 서울우유 전 판매사원과 함께 어제의 중생업을 참회하고 영업현황을 정확히 판단, 대응책을 강구하고 내일의 보리를 증득하는 영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하루하루 용맹정진 하였기에 가능했다.

그 후 나는 부처님 믿는 마음이 더 단단해졌다. 특히 모든 중생들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며 고객을 만나다 보니 고객은 어느새 나에겐 소중한 부처님이었다. 항상 마음을 낮추고 공경하는 자세로 그들을 대하다 보니 그들 또한 마음을 열고 나를 대하는 것 같았다.

"하심하니 고객들도 마음 열어"

이같은 인연으로 서울로 전출 온 뒤 봉은사와 능인선원을 다니며 본격적으로 불교 공부를 시작했다. 부처님의 법을 알면 알수록 이렇게 좋은 것을 남에게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지난 98년 2월 조계종 포교사가 되었다. 평소 사찰을 참배할 때 누군가 사찰에 대한 안내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나는 포교사단 사찰안내에 가입하고 부처님 전에, 살아생전에 백만명에게 사찰을 안내하겠다는 원을 세웠다.

구체적인 실천은 하지 못하지만 요즘도 직장생활 틈틈이 어떻게 하면 사찰을 찾는 일반인들에게 불교를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다면 그것이 불국토가 아니고 무엇이랴.

불국토 건설의 그 날까지 불교를 알리고 모든 사람들이 성불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부처님 전에 기도한다.


◇지난 7일 경희의료원 본관 입구 안내 데스크. 한 자원봉사자가 방문자들에게 병원 안내를 하고 있다.

의료파업 영향 자원봉사자 줄어

경희의료원 법당 못열어

자원봉사자의 부족으로 경희의료원 법당 개원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경희의료원측은 지난 6일중순경 자원봉사자 대부분이 불자인 점과 병원 내 법당이 없는 현실을 감안, 임시법당을 개설키로 했으나 최근 자원봉사자가 급감하자 병원공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이를 유보키로 결정했다.

경희의료원 자원봉사자들은 지난 6월 1일부터 일주일간 경희의료원 노조가 파업하자 환자식 배달 및 환자식기 세척, 청소, 안내 등의 역할을 수행해 병원의 원활한 운영에 큰 도움을 주었고 이에 경희의료원측은 임시법당을 8월 16일까지 오픈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파업당시 월 60여명이던 자원봉사자가 8월 들어 20여명으로 줄어들자 병원측은 하루 한 두명을 위해 4인 병실 크기의 법당을 만들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고 있는 경희의료원 불자회 총무 권혁운씨는 "병원측과 협의를 통해 불자를 상대로 자원봉사자 모집 포스터를 제작, 서울시내 사찰에 배포하고 있으나 여전히 자원봉사자는 늘지 않고 있는 형편"이라며 불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02)953-8113 김두식 기자

불자 의원

"종교 · 당론 맞설땐 결정 미루겠어요"

16대 국회의원 84명 조사

국회의원들은 종교가 의정활동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불자국회의원들은 정당결정과 종교적 신념이 상충되었을 때 다른 종교인과 달리 결정을 유보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국회 사무처가 '국회의원과 종교'를 주제로 종교를 가진 16대 국회의원 2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84명이 응답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것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종교가 의정활동과정, 특히 정책결정과정에 어느정도 도움을 주느냐'는 질문에 개신교 82%, 가톨릭 93.3%인데 반해 불교는 61.6%만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고 '정당의 결정과 종교적 신념이 상충하는 경우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개신교 46%, 가톨릭 60%가 있다고 한 반면 불교는 15.4%만이 있다고 밝혔다.

'종교적 신념과 정당의 결정이 상충할 경우 어떤 입장을 택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개신교, 가톨릭 각각 33.3%가 정당결정에, 38.1%, 55.6%가 종교적 신념을 따르겠다는 입장인데 반해 불교는 100% 결정을 유보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개신교와 가톨릭 의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낙태반대, 생명복제 금지, 일요일에 각종 시험을 치르는 문제에 있어서 당론보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행동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국회사무처가 16대국회의원들의 기록카드를 분석한 결과, 종교를 가진 의원은 전체 72.1%인 207명으로 개신교 107명, 가톨릭 69명, 불교 30명, 성공회 1명, 무교 66명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번 조사와는 달리 불자국회의원은 한나라 26명, 민주당 13명, 자민련 3명인 것으로 각 당은 파악하고 있다.

김두식 기자

우리 모임에선

SBS법우회 종서스님 법문

SBS법우회(회장 허원재)는 2일 여의도 불교문화회관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종서스님이 "마음은 곧 당신의 종교다"는 주제로 설법했다.

교사불자련 하계수련

전국교사불자회 서울 · 경인지부는 11~13일 오대산 월정사에서 수련회를 개최했다. 전국 80여명의 교사불자들이 참석한 이번 수련회는 입제식을 비롯해 초발심자를 위한 기초교리 강의, 참선실수, 산내암자순례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마지막날에는 강원지부 창립법회도 가졌다.

심우회 신병교육대 위문

심우회(회장 이춘심)는 20일 을지부대 신병교육대를 방문해 국군장병들을 위문한다. 심우회는 이날 합장주를 비롯해 빵, 떡 등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돌아오는 길에 낙산사 홍련암을 참배할 계획이다. 출발은 20일 오전 6시 강남고속버스터미널 LG주유소 앞. (02)575-2525 채희주

정부기관불자회 연합법회

농림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불자회는 16일 오후 6시 10분 과천종합청사 농림부 대회의실에서 연합법회를 봉행한다. 송광사 청율스님이 "마음을 다스리는 법과 참선"을 주제로 설법할 이번 법회에는 중앙부처 공무원 1백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클릭! 새 홈 페이지

■화계사 불교 청년회(http://www.freechal.com/goComm.asp?url=hwabul)-대한불교청년회 서울지구에 소속된 화계사 청년회의 홈. 젊은 불자들이 모여 다양한 불교활동과 봉사활동을 통해 21세기를 열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작은선방(http://www.freechal.com/goComm.asp?url=dowoon)-8월6일 개설. 작은선방 도운선원은 불교교리 공부와 더불어 수행을 행하는 곳.

■무소유(http://www.freechal.com/goComm.asp?url=greenfeild)-8월5일 개설. 무소유 정신을 실천하면서 불교수행에 매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터.

*홈페이지를 개설한 불자님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2)722-4162 jygang@buddhapia.com

법화종 총무원 주최
도라전망대 평화의 종 회향대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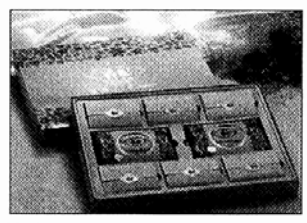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광복의 8 을 맞아 세계 인류의 평화와 민족의 통일을 염원하는
도라전망대 「평화의 종」 불사 회향 대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합니다.

■일 시 : 법기55년(2544) 8월 22일(음 7월 23일) 1시
■장 소 : 도라전망대 (임진각 주차장 오전 11시까지 도착)
◆연락처 :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1가 11-73호(법화종 총무원)
TEL 02)762-2678, 764-2678
FAX 02)747-5044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박 법홍 합장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항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 · 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개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몰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 영 희)

※ 전국 대리점 모집중 ※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 1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사 설

또 횡령사고…왜일까

조계사 신협에서 70억대의 금융사고가 터졌다. 그것도 부실운영에 의한 것이 아니고 유용과 횡령에 의한 것이다. 불교계에서 터져서는 안될 가장 나쁜 형태로 터져버린 이 금융사고로, 1997년 불교방송의 공금횡령 사건으로 실추되었던 불교계의 시설과 단체 운영능력에 대한 신뢰성은 더더욱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청정과 무욕을 근본으로 삼는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시설과 단체가 왜 이토록 탐욕과 비리에 의한 오욕에 휩싸이고, 그로 말미암아 불교의 이미지까지 훼손하는 사태를 빚는가? 이럴 일이라면 차라리 그러한 시설과 단체를 운영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말까지 나올것 같다.

그러나 한 걸음 앞서 나가는 자세로 생각해야 한다. 불교계의 시설과 단체 운영은 바람직하고도 필요한 일이다. 문제는 그것을 운용하는 준비와 자세에 있을 따름이다. 불교계가 운용하는 시설과 단체는 일반에서 운용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모범적이고 선구적이 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확실히 선다면 이런 불미스런 일이 일어날 이유가 없다. 그저 좋은 일이니까 불교계도 뒤따라 한다는 소극적 자세로서는 안된다.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못 적용하여,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며, 그래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제도를 운영해 오는 듯한 양상도 있었음을 반성해야 한다. 출세간의 법 위에 서 있기에 세간법을 더더욱 청정하고도 엄밀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런 시설과 단체 운용을 통해서 보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발탁하여 운영을 맡기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투명하게 시설과 단체를 운영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혹 불미스러운 일에 스님들이 연관되어 승단의 위상에 먹칠을 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 스님들이 세속적인 일에 깊이 개입되면 열에 아홉은 결국 오욕을 쓰기 쉽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왜 횡령이라는사태가 일어났는지 원인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밝혀야 하며 엄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 엄정한 조치 자체가 하나의 모범적인 실례가 되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이번의 불행한 사태가 오히려 반면교사가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의 사태에만 매달려 고식적인 처방으로 넘기려 하는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 출세간의 불교이기에 세속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에 더더욱 엄정해야 한다는 의식을 일깨워, 불교계 내부에 만연되어 있는 불투명성을 제거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자.

장점 많은 납골시설

한국은 세계 3위인 인구과밀 지역이다. 매년 여의도 크기만한 땅이 죽은 사람의 몫인 묘지로 변해가고 있다. 정부에서는 화장과 납골당 시설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조선조 500년의 매장문화에 길들여 온 유교전통의 깊은 관념이 화장이나 납골당 시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경북 안동의 월봉사에서 납골당을 지으려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주민들의 반대 이유는 "산림이 훼손되고 자연 경관이 파괴된다"는 것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납골당에는 단 1평 시설에 따라 몇 십 구(柩)의 유골을 모실 수 있으나, 3평 짜리 분묘를 쓴다해도 1백 구면 300평의 땅이 잠식되므로 국토의 낭비와 자연 훼손이 더 심각할 수 있다.

안동지역 하면 우리 나라 전통 유교문화가 가장 뿌리깊게 남아 있는 지방이지만, 주민들도 국토의 유용성과 진정한 산림 보존과 자연환경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 물론, 납골당 건립으로 인한 장의차와 성묘 차량의 증가로 번거로운 면도 없지는 않겠으나, 지역의 묘지 난을 해소하고 지역 특수성을 살린 홍보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어차피 국가 시책도 납골당 육성으로 가야만 미래의 국토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만큼 지역자치단체의 적극적 해소책이 요망된다. 단순히 시설 자와 주민과의 쌍방대립으로만 방관하지 말고 모두가 자치행정의 몫임을 자인하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공원묘지나 납골당은 누구든지 언젠가는 가야할 곳이지만,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증축이 대단히 어렵다. 안동 월봉사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행정기관에서는 장묘제도 정착의 확고한 정책을 수립, 과감하게 설치 및 운영 할 수 있도록 시행해야 할 것이다.

사자(死者)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면 산 사람의 아파트에만 토지수용이나 건립에 인·허가 내지는 자금융자의 특혜를 줄 것이 아니라, 납골당 건립은 물론, 장례문화개선에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후세에 물려줄 국토에 대해 우리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부와 지자체, 주민 모두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는 과감히 버려야 할 것이다.

열 린 마 당

흔들리는 어린이포교

조계종 포교원이 전국 128개교 3123명의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 7월 27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 전체의 65.1%, 종교가진 청소년의 83.7%가 초등학교 때 종교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새싹 불자들을 잘 키워야 된다는 소리는 계속 있어 왔지만 매번 메아리뿐인 울림에 그쳤다. 서울 근교 모 사찰에서는 최근 새 주지가 오고부터 200여명씩 동참하던 어린이법회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주지스님은 어린이들이 절에 와서 시끄럽게 군다며 어린이법회 지원금을 중단, 현재 학부모들이 기부하는 성금으로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실례만 보아도 교계의 어린이포교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수 있게 한다.

종단과 각 사찰 차원의 어린이 법회를 위한 예산 책정은 물론 지도교사 양성, 포교프로그램 개발 등 선결해야할 과제들이 많다. 이에 일선 현장에서 어린이포교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의 목소리를 통해 어린이 포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듣는다.

"법회 꾸준히 열어야"

태설 〈봉은사 어린이법회 지도법사〉



어린이 포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법사와 교사들의 꾸준한 관심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7월 어린이법회 지도법사의 소임을 맡을 때만 해도 어린이 포교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어 걱정이 앞섰다. 그러나 어린이 포교에 대한 노하우가 없는 대신 성실한 자세로 매주 일요일마다 봉행되는 어린이법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실제로 지난 1년동안의 법회 활동을 되돌아 보니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거의 법회를 빠짐없이 열었다. 이 때문인지 지난해 처음 법회를 시작했을때는 70명이던 어린이들이 1년이 지난 지금 현재는 두 배 가까이 늘어 130명 정도가 꾸준히 법회에 나오고 있다. 특히 봉은사는 사중회의에서 어린이 법회를 위해 따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어린이들의 수련회비, 교재비, 간식비 등에 사용하고 있어 어린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또 중고등부 법회를 통해 돈독한 불심을 쌓은 8명의 대학생 지도교사들이 자원봉사지만 어린이들을 친 동생처럼 헌신적으로 보살피는 것도 어린이 법회 활성화의 큰 디딤돌이다. 이렇게 법회에서 편안하게 해주니까 매주 학교 친구들을 함께 데리고 나오는 어린이들도 많아졌다. 비록 절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아직 종교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회를 한주만 안 열어도 그 다음주 법회에 참여하는 인원이 20~30명 정도 줄어들 정도로 기복이 심한 편이다. 꾸준히 법회를 여는 열의가 없다면 어린이 법회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종단차원 예산 확보"

성민 〈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한국불교의 기둥이 될 어린이 포교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예산 확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종단 후원이 그동안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각 사찰이나 어린이 포교단체 등에서 법회와 수련대회 등을 열면서 자체적으로 포교 활동을 해왔다. 이러다보니 각 사찰에서는 주지스님이 어린이 포교에 관심이 많으면 예산까지 확보해 법회나 행사를 활성화 시키고, 그렇지 못하면 학부모들의 보조금 등으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해 가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지도교사의 자질문제나 어린이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포교 프로그램 개발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오는 10월 포교원은 '어린이교사 불교대학'을 개설할 예정이다. 각 분야별로 어린이 포교 전문가들을 초빙해 상설적으로 지도교사들에게 어린이 법회에 필요한 불교의식 및 불교레크리에이션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킴으로써 양질의 교사를 양성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교육과정을 마친 교사들은 어린이 법회의 운영을 위해 교사를 필요로 하는 사찰이 있으면 파견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종단차원에서 어린이 포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재정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산 지원을 통해 종단에서 불교와 접목된 각종 어린이 문화 행사들을 많이 개최해 새싹 불자들을 포교 현장으로 불러 들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잘 이끌어 나간다면 어린이 포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지도교사 교육 강화"

최정신 〈포교사단 상담팀장〉



어린이 수련 프로그램에 참가해 아이들을 지도하며 또 사무실에서 포교 상담을 해주면서 절실히 느끼는 것이지만 아직까지 어린이 포교에 대한 사찰 및 교계의 지원은 열악한 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선 현장에서 어린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은 2~3년도 안돼 포교현장을 떠나는 것이 다반사가 돼 버렸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데에는 지도교사들에 대한 대우문제도 있겠지만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관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교육을 통해 지도교사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기관 없이 1년에 2~3회 정도의 수련회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아쉬움을 더해 주고 있다.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린이 포교도 물질적·정신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린이 포교에 깊은 관심을 갖던 지도교사들이 차츰 시간이 흐르면서 지쳐버리고 마는 것이다. 또 어린이 포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동화, 만화, 애니메이션 영상물 등 부수적인 교재 개발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언제부터인가 어린이 불서들은 서점에서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다. 어린이 불서를 간행하는 출판사들이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 일반 업종으로 전업하거나 잡지들은 적자가 누적돼 폐간되고 만다.

어린이 포교는 불교에 대한 교리를 먼저 강조하기 이전에 그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 자연스럽게 불교와 접목하는 눈높이 포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탁소리

불심과 국회정각회장

정 성 운 〈취재1부 차장〉

국회정각회장을 놓고 민주당 연등회와 한나라당 불자회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연등회장인 김기재의원과 한나라당 불자회장 김태호의원측에서 서로 회장을 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 연등회는 15대 국회 때 집권여당이 회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 3당 불자회의 합의였다고 상기시켰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불자회는 다수의원이 있는 정당에서 맡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 정각회의 활동은 많은 불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3당 불자회에 소속된 의원들이 뜻을 모아 전통사찰보존법과 농지법을 개정해 전통사찰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수 있게 했으며, 조계종의 재산 망실을 막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정기적이었지만 국회에 마련된 정각선원에서 함께 모여 법회를 봉행하기도 했다.

두 당 불자회의 신경전을 바라보는 불자들의 심기가 편할 리 없다. 어쩔 수 없이 정치인들의 모임은 정치를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벌써부터 각 정당의 관심은 2002년 12월에 치러질 대통령선거에 모아졌다. 불심잡기에 나섰으며, 국회정각회는 유용한 전진기지라는 것이다. 15대 대통령선거가 100만표 이내에서 당락이 결정됐으니 '불심'은 중요한 관리대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치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권을 획득하는 것이 정당과 거기에 속한 정치인의 목적이니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나 정작 표를 줄 불자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지난 총선 이전 불교총선연대 등 시민단체로부터 '낙천낙선 대상자'로 지목되었던 인사가 아무런 반성없이 불자 국회의원들의 얼굴인 국회정각회장에 오르내리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9일 재가연대가 발표한 성명서의 일부분이다. 정작 '불심'은 불자 국회의원 수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으며, 어느 당이 정권을 잡아야 하는지에 있지 않다. 지역과 민족, 종교간의 화합과 조화로운 발전,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자비봉사를 논하는 자리에서 불자국회의원들을 보고 싶다는 것이다.

최봉수 교수와 함께하는 경/전/강/좌
근본불교 대강좌(3년과정)



최봉수 교수의 경전코너인 〈근본불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불자 여러분을 모집합니다. 부처님의 초기경전인 아함경부터 반야, 법화, 화엄, 정토로 이어지는 대강좌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동참바랍니다

1.강의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2.교육장소	동산교육회관(안국동 로타리 웅전갤러리 2층)
3.개강일시	2000년 9월 7일(목) 오후 4시
4.모집내용	주간반 · 통신반
5.입학금	100,000원
6.특 전	3년과정을 이수한 분에게 홍법사를 수여함

※ 근본불교 (아함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십지품→ 무량수경)

본 연구원 사무국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
☎ 02)732-1206~8 / FAX 02)732-1207

동 산 불 교 전 문 연 구 원

김재일법사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불교교리 강좌개강

본회에서는 불교를 처음 찾는 분이나 불교기본교리를 알기 쉽게 공부할 제 11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강의개요

1.강의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가을반)
2.교육장소	동산법당(안국동 로타리)
3.개강일시	2000년 9월 6일(수) 오후7시
4.교 과 목	불교의 정의, 불교의특징, 불교의 분류, 삼보설, 삼과설, 삼법인설, 연기설, 사제설, 수도론, 번뇌론, 반야심경, 불자의 실천덕목, 불교상식 및 사찰예절
5.지도법사	김재일 법사
6.교 재	수강신청자에게 입학당일 제공 (불교의 기본교리, 교리노트)
7.입 학 금	30,000원(반명함판 사진2매)
8.지원자격	제한없음

※ 문의 : 사무국 ☎ (02)732-1206~8
FAX (02)732-1207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반야회

송찬우 교수와 함께하는 경/전/강/좌
불교경전 대강좌(3년과정)



※ 십여년동안 부처님의 주옥같은 한문원전강좌를 열어 경전의 깊은 묘리와 심심미묘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던 송찬우 교수님의 경전통신대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1.강의방법	통신강좌 (학기당 2강좌)
2.접수방법	2000년 8월 1일 ~ 9월 9일(토)
3.모집내용	통신반 30명
4.교육내용	선택5과목 이상, 필수과목:능엄경, 매학기별 소집평가
5.개설강좌	선택과목: ①금강경 ②반야심경 ③유마경 ④육조단경 ⑤원각경 ⑥대승기신론 ⑦조론 ⑧장자 ⑨대승지관 필수과목: ①능엄경
6.입학금	100,000원
7.특 전	3년과정을 이수한 분에게 홍법사를 수여함

본 연구원 사무국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
☎ 02)732-1206~8 / FAX 02)732-1207

동 산 불 교 전 문 연 구 원

불교문화 아는만큼 느낀다

성천아카데미 '절 제대로 알기' 등 가을강좌 잇달아

체감온도는 여전히 한 여름의 중심에 머물고 있지만, 입추(立秋)도 막 지난 요즘 사람들의 마음 한 구석에선 어느새 가을에 대한 기대가 싹트기 시작한다. 이럴땐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적 소양도 쌓을 수 있는 즐거운 불교 공부를 시작해 보자. 성천문화재단과 불교신행연구원, 불교문화센터 등에서 마련하는 다양한 가을 강좌는 그 어느때보다 알찬 내용으로 수강생을 맞이할 준비를 끝냈다.

서울대 명예교수인 류탈영 박사가 일반 시민의 평생교육을 위해 설립한 성천문화재단은 동서의 스승을 만나는 성천아카데미 추계강좌를 9월 4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강좌에는 우리문화 밝힘강좌 불교문화편으로 '우리문화로서의 절 제대로 알기'를 주제로 한 강좌가 진행된다.

한국불교예술의 원리, 사찰 이해를 위한 불교사상, 절 그림의 이해, 사찰 장식 문양에 깃든 상징의 의미, 조형세계를 통해 본 불교예술사상, 사찰의 구성과 배치에 담긴 의미 등에 대해 강우방씨(전 경주박물관장)를 비롯, 허균(문화재 전문위원), 김봉렬교수(한국예술종합대), 정병삼교수(숙명여대) 등 전문가들이 대거 강사진으로 나선다.

또 동서인문고전강좌에서는 성현들이 남긴 대표적 고전을 석학들의 강의를 통해 배우는 시간도 마련했다. 김상현교수(동국대)가 원효와 의상에 대해, 하이데거의 예술철학 부분은 이기상교수(한국외국어대)가, 정신분석학 개관은 류태열교수(카톨릭의대) 등이 맡는다. 오는 29일까지 선착순 접수한다. (02)786-1754

불교신행연구원 불교문화배움터에서도 제2기 불교문화강좌 기초반과 제1기 불교문화강좌 연구반을 9월 1일부터 개강한다. 가람배치, 법당의 구조, 탑, 부도, 불상, 불화, 불교공예 등 불교문화의 진수를 조목별로 가르쳐 주는 기초반 강좌를 통해 불교문화에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주간반과 야간반으로 나눠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 두 차례 강의한다.

불교신행연구원은 또 이번 가을부터 불교문화연구반도 개설한다. 영산회상도, 괘불, 시왕도, 지옥도, 감로탱 등 각 불화별 전공학자를 초청해 총 15회에 걸쳐 불화에 대한 심층적인 공부를 해나갈 계획이다. (02)582-6649

불교문화강좌의 선두주자격인 불교문화센터의 가을 정기강좌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신설강좌로 금박장 백태남씨의 개금강의가 매주 월요일 낮 12시 10분에 열리고, 위빠사나 명상호흡 강좌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된다. 또 단청 초급반과 연구반, 불화그리기 강좌를 비롯해 선어록강의, 육조단경 등 불교교리강좌와 생활꽃꽂이, 한지그림공예, 한국무용 등 다양한 강좌가 준비돼 있다. (02)703-0108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불교문화를 공부하며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자. 불화 그리기에 열중하고 있는 불자들.

TV 리뷰

SBS '백지연의 뷰티풀…' 보고

귀신 쫓는 스님 왜곡 표현 '눈살'

여름철만 되면 각 방송사 오락프로의 납량특집에 단골로 등장하는 테마중의 하나가 '빙의(憑依, 영혼이 옮겨 붙음)'이다. 오락 프로그램들이 시청자들에게 더위를 식혀준다는 명분으로 빙의 현상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이해를 뒤로 한 채 천박한 흥미거리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방송된 SBS TV의 '백지연의 뷰티풀 라이프'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스님을 귀신 쫓는 실험도구로 이용해 자칫 일반인에게 불교와 스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를 낳게 한다. 이 프로는 최근 방송에서 심령의 실체를 파헤친다며 매회 무속인을 등장시킨 데 이어 지난달 9일과 30일에는 성암과 정음 등 두 스님까지 출연시켜 퇴마(退魔) 시연을 시켰다.

더욱이 7월 9일 방송된 성암 스님의 퇴마 현장 모습은 SBS측에서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라 성암 스님이 촬영해 보내 준 것으로 알려졌으며, 7월 30일 출연한 정음스님이 속해 있다는 법왕종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가입돼지 않았음에도 자막에 '대한불교 정음사 주지'라고 소개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 프로그램을 시청한 일부 불자들이 스님의 소재를 제작진에게 묻자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 발생을 우려해 알려줄 수 없다"는 한심하고도 무책임한 대답만 반복했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만해축전 시인학교 현장

남녀노소 1백여명 만해 詩로 한마음



◇8~11일 백담사 만해교육관에서 열린 제2회 만해축전 시인학교. 9일 시낭송대회서는 '나룻배와 행인'을 극으로 표현하는 등 참가자들의 열정이 돋보였다.

9일 저녁, 시낭송대회가 한창인 백담사 만해교육관. 내설악 깊은 계곡의 서늘한 바람도 만해의 사상과 문학을 되돌아보는 참가자들의 열기를 식히진 못했다. 10대 중학생에서 60대 할머니까지, 70여명의 일반참가자들은 만해 스님의 시를 낭송하며 만해 스님의 독립정신과 문학혼을 시심으로 되살렸다.

만해 한용운 스님이 출가한 곳이자 '님의 침묵', '불교유신론', '불교대전' 등을 집필한 '만해사상의 요람'이자 '만해문학의 고향' 강원도 인제군 설악산 백담사에선 8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제2회 만해축전 시인학교가 열렸다. 민족작가회의 강원지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시인학교에는 민족작가회의 강원지회 회원 20여명을 비롯해 시인·일반인 등 1백여명이 참가했다.

올해로 5회를 맞은 이번 시인학교는 특히 일반 참가자들의 열정이 돋보였다. 등단을 꿈꾸는 50대 아저씨, 막 문학적 감성을 키워가는 청소년, 학창시절을 떠올리며 새롭게 태어나는 듯하다는 할머니까지. 세대와 직업은 달라도 마음은 하나같아, 시인들로부터 직접 배우는 시작법 시간은 열의로 가득했고, 만해사상 강의를 듣는 눈빛은 뜨거웠다. '나무'와 '다리', '암자'가 시제로 나붙은 백일장에선 저마다 녹록치 않은 솜씨를 뽐냈다.

96년부터 열린 만해 시인학교에 네 번 참가했다는 김석호 불자(52. 대구 구도회)는 "만해의 시는 어느 것을 읽어도 그 분의 나라사랑·겨레사랑·민족사랑이 마음으로 전해온다"며 "각 지역마다 이런 행사가 활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0여명의 중·고등학생들에겐 책에서만 대하던 시인들을 직접 만나는 것도 기쁨이었다. 만해 스님의 시 가운데 '나룻배와 행인'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한예인(서울 명일여중 3년) 양은 "선생님, 언니 오빠들의 경험담을 듣는 것 자체가 큰 공부였다"며 "내년에는 고교생 백일장에도 꼭 참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남편, 친구와 함께 참가한 이경순(61. 경기도 분당 성파초등학교 교사) 씨는 "학창시절 '님의 침묵'을 즐겨 암송했다. '님'의 마음은 나에게 넓은 포용력으로 다가온다"며 나름대로의 해석을 덧붙였다.

이번 시인학교에는 신경림 교장을 비롯해 이근배, 민영, 이성선, 이상국, 안도현 시인 등 12명이 강사로 참가해 시 창작 강의와 만해사상, 통일에 대한 강연을 했으며, 참가자들은 시낭송 대회, 작가와의 대화, 계곡산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만해의 얼을 시로, 몸으로 느꼈다.

권형진 기자(jinny@buddhapia.com)

불교음악-무용 '세계로'

법현스님 11일 수단으로 올 들어 6차례 해외공연

전통 불교음악과 무용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법현스님(동국대 교수, 불교음악연구소장)이 11일 아프리카 수단 공연을 떠났다. 수단 대사관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공연에서 스님은 영산재 이수자, 동국대무용단 등 10여명과 21일까지 범패와 천수바라무, 요잡무, 나비무 등 불교음악과 무용을 선보이게 된다.

이에 앞서 스님은 7월 19일~21일 스페인 까지스시와 시와디리왈시에서 열린 국제민속페스티벌에도 참가해, 음악상과 의상상을 수상하는 등 올해 들어 미국, 일본, 대만 홍콩, 스페인, 수단 등 6차례의 해외공연에 나서 우리 불교예술의 아름다움을 펼쳐보이고 있다.

이같은 활발한 해외공연은 스님이 지난해 인터넷상에 영어, 일어, 중국어, 한국어 등 4개국어로 접할 수 있는 불교음악연구소 범패 홈페이지(www.pompae.or.kr)를 개설한 이후 본격화 됐다. 이 홈페이지에는 영산재와 범패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이들을 동영상과 음성으로 직접 감상할 수도 있어 국내외인들의 관심이 촉발되고 있다.

"해외공연에서 외국인들의 불교음악과 무용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다"고 말하는 스님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일본 등으로부터 7차례의 공연을 초청받은 상태며, 매회 공연마다 한국 불교예술의 우수성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자 기자



◇7월19일~21일 스페인 국제민속페스티벌에 참가한 법현스님과 단원들.

불교방송 8·15 특집 다큐·대담 등 다채

불교방송은 광복 55주년을 맞아 15·16일 양일간 시사보도, 다큐, 대담 등의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이중 눈에 띄는 것은 15일 방송되는 '광복 55주년에 불러보는 청춘가'(오후 5시10분~오후 6시). 이 프로는 '나눔의 집'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통해 역사의 아픈 상처인 종군 위안부들의 어제와 오늘을 조명한 세미다큐멘터리다. 특히 '광복 55주년…'에서는 할머니들의 오랜 기억속에서 찾아낸 태평양전쟁당시 한국, 러시아, 일본의 군가와 대중가요들이 소개될 예정이어서 청취자들이 주파수를 고정시킬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 때 약탈당해 일본으로 건너가 있는 우리나라 성보 문화재의 현황과 반환 사례 등을 다큐멘터리로 구성한 '일본으로 간 성보문화재'(오전 11시10분~낮 12시)도 알찬 내용으로 꾸며져 있다.

이외에도 16일에는 김연철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등 경제전문가를 초청, 북한의 개방정책에 맞춰 준비해야할 것들을 알아보는 특집 대담 '남북경협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밤 8시5분~밤 9시)와 평화통일을 위한 대토론회 '통일정책 어떻게 세울 것인가'(오전 8시30분~오전 9시)도 방송된다.

김주일 기자

2000학년도 법사과정 경전 연구원 신입생 모집

1. 교과목 및 교수

요일	과 목	교 수	내 용
월요일	밀교의세계	허일범교수(진각대)	밀교개론과 대일경·금강정경의 핵심사상강의
화요일	법화경	박종교수 (동산대)	대승경전의 꽃 법화경! 화엄귀일사상 강의

※ 경전개설과목 : 아함경, 반야경, 금강경, 유마경, 법화경, 능엄경, 화엄경, 육조단경, 비교종교, 중론, 해심밀경, 대일경, 금강정경 등

2.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 출 서 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정규반(30명) 통신반(30명)	① 불교대학(정규)이수자 ② 불교교양대학 이수자 ③ 과목별 이수 희망자	① 입학원서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반명함판사진 3매 ④ 불교교양대학졸업증 1통 ⑤ 자기소개서 1통	2000년 2월 7일~ 2000년 3월 4일(토) (서류전형)	매주 월~화요일 오후 7시~9시 (본연구원 법당)

3. 개강일시 · 2000년 3월 6일(월), 7일(화) 오후 7시

4. 입 학 금 · 일십만원

5. 졸업자격 · 3년과정의 부처님의 법음이 가득찬 경전 (매주 2강좌)을 이수자에게 연구원 졸업장(전법사)을 수여함.

6. 원서문의 교부·접수 · 본 연구원 사무국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 ☎732-1206~8 / FAX 732-1207

법사양성 전문도량 동산불교전문연구원

2000년도 도시생활 포교자를 위한(1년과정)

한글의식교육원 신입생 모집

1. 지도법사 및 교과내용

개강일시 : 2000년 3월 4일 (토) 오후2시
지도법사 : 권지홍 법사, 문종순 법사

한글불교의식 Ⅰ(전반기)	한글불교의식 Ⅱ (후반기)
· 아침·저녁으로 행하는 예경의식 · 사시 또는 형편에 따라 행하는 헌공의식 · 정기적으로 행하는 법회의식 · 송주 …… 장엄염불	· 백일·돌·생일의식과 결혼의식 · 장례의식 (1) …… 일반의식 · 장례의식 (2) …… 임종·매장·화장의식 · 재공의식 및 영혼천도를 위한 천도의식

2.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정규반 50명	① 한국불교의식 희망자 ② 포교당 운영자	① 입학원서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반명함판사진 3매	2000년 2월 7일(월)~ 2000년 3월 3일(금)	매주 토요일 오후 2시~3시 (동산법당)

3. 입 학 금 · 일십만원

4. 원서 교부·접수 · 본 연구원 사무국 ☎ 732-1206~8/FAX 732-1207 (10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

5. 특 전 · 수료자는 동산의식법사 수여

동산불교의식교육원

자연서 배우는 불이와 회통

김재일 '생태기행 1·2'

산천과 나눈 情의 기록





◇김재일

옛날 노승들은 사미들에게 등불을 켤 때 곤충들이 타 죽지 않도록 불꽃을 잘 감싸야 한다고 가르쳤다. 심지어는 썩은 나무로는 불을 따지 말라고도 했다. 그 속에 살고 있는 곤충들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이다.

"생명 있는 것들을 위한 자상한 배려. 그것이 불교의 덕목"이라고 말하는 김재일 씨(두레생태기행 대표)가 최근 펴낸 〈생태기행 1·2〉(당대)은, 옛 사람들의 자연에 대한 예의를 배우러 생태기행을 떠나자는 간곡한 제안으로 읽힌다.

김 씨는 우연한 기회에 '생태, 생명, 민족정서'에 뿌리를 둔 생태기행을 생각해 내고, 뜻을 같이 하는 이들과 함께 94년 두레생태기행이라는 작은 모임을 구성, 매월 한차례씩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함께 하는 생태기행을 하고 있다. 이 책은 생명활동가인 김 씨가 그동안 우리 산천 곳곳을 다니면서 자연과 나눈 애틋한 정의 기록이다. 이를 통해 김 씨는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물질문명시대의 현대인들에게 생명체에 대한 감수성을 길러주고, 생명현상에 대한 무지와 몰지각을 깨우쳐 준다.

겨울 산에 지천으로 깔려있는 낙엽들에서도 생명의 순환을 감지하는 김 씨는 낙엽(落葉)을 '낙엽(樂葉)'이라 부르고, 그 낙엽이라는 작은 우주 속에서 재생과 순환의 생태적 사고를 기억해 내게 만든다. 자연의 경계에 들어서면 모든 것이 연기(緣起)요, 불이(不二)며, 원융회통(圓融會通)이라는 진리를 우리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가야산의 나무를 찾아서'편에서 숲의 종교인 불교, 그 불교 수행의 장소인 절집이 숲을 지키는 마지막 산막(山幕)역할을 해 왔다고 설명한다. 조선조의 숭유억불정책같은 외적 요인이 절을 산으로 들어가게 하는 계기가 되긴 했지만, 오랜 세월동안 절을 지켜온 수행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명산의 숲이 그나마 보존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해인사 팔만대장경과 장경각을 통해 가장 자연적인 것이 가장 과학적임을 밝힌다.

'선운산의 가을꽃들'편에서는 모르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듯이 산과 들의 꽃과 풀들도 그 이름과 생태를 알지 못하면 있어도 알지 못하고, 사랑할 수도 없다고 말한다. 또 '순천 조계산'편에서는 엉성해 보이는 송광사 해우소의 생태적인 건조방식을 통해, 밥과 똥은 불이(不二)라는 주장 아닌 주장을 믿게 되고야 만다.

순도 100% 체험을 근거로 생태적 불교적 시각에서 써 내려간 이 책을 읽는 동안 독자는 "자연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또 다른 모습이며, 생태기행은 사라져가는 또 다른 우리를 만나러 가는 여행이자, 자연을 잃어버린 우리 시대의 문화를 함께 돌아보는 여행"이라는 김 씨의 주장에 공감하며, 자연스레 생태기행에 나서게 될 것이다.

또한 김 씨가 이 책의 뒷부분에 부록으로 첨가한 '올바른 생태기행을 위하여'는 생태기행에 대한 이해와 학습요령, 준비물, 기행 후의 정리방법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생태기행을 떠나는 이들에게 길잡이로서도 부족함이 없다. 값 각권 1만2천원.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무창포 개펄에서 쑥·개맛 등 개펄 생명체들을 관찰하고 있는 모습.

고은 '히말라야 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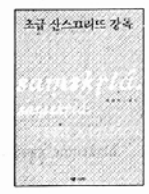
詩 117편으로 히말라야 순례

고은 시인이 티베트 여행기를 시로 엮은 〈히말라야 시편〉(민음사)을 출간했다. 이 책은 1997년 7월, 글쓴이가 중국 시안을 시작으로 둔황, 걸무, 라사, 창탕고원 등 히말라야 일대를 40여 일간 기행하며 느낀 시상을 담아낸 것이다.

'그대 순례'를 시작으로 117편의 시를 담고 있는 이 시집에서 시인은 히말라야의 설산들을 비롯해 창탕 고원의 고산 준령 등 예전에 경험치 못했던 대자연의 마력을 노래한다. 또 이 시들에는 혹독한 기후에도 불구하고 검소한 생활과 생태적 지혜를 통해 건강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꾸려가고 있는 티베트 민중들의 삶도 녹아 있다. 책 말미에는 시로 다 노래하지 못한 히말라야의 대자연을 그린 6편의 산문이 실려있다. 값 6천5백원.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새로나온 책



▲초급 산스끄리트 강독(백도수 편저, 연기사)= 고대어인 범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문법해설과 기초 강독 교습서. 전체 3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연성법과 형용사 대명사의 격변화, 동사의 활용변화를 담은 문법해설편을 비롯 기초강독편, 강독 연습편을 담고 있다. 그리고 부록으로 기초문법서, 강독서 등 산스크리트 관련서적과 사전류를 수록했다. 중앙승가대 불전국역연구원 상임연구원 백도수 씨가 엮었다. 값 7천원.



▲대반열반경 1·2(감수 명성스님, 현토 운문사 승가대학 대학원, 운문사 승가대학출판부)= 운문사승가대학장 명성 스님이 강의한 내용을 정리한 이 책은 법현 스님이 한역한 〈대반열반경〉과 비교하여 36권 25품의 〈대반열반경〉을 현토한 것이다. 1권은 제1 서품부터 제21 영아행품까지이며, 2권은 제22 광명편조고귀덕왕보살품부터 후분 성구곽윤품까지이다. 〈열반경〉 현토본 출간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2권 6만원.



▲그렇다고 생각하면 진짜 그렇게 된다(삭티 거웨인 지음, 박윤정 옮김, 도솔)= 내면의 두려움과 불안, 갈등 등의 문제를 없애는 방법(시각화)을 소개하고 있다. 글쓴이가 말하는 시각화 기본방법은 원하는 것을 마음 속으로 떠올린 뒤 몸과 마음을 편안히 하고 떠올린 소망이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마음속에 그린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는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것이다. 이 책이 강조하는 것은 '내 인생을 방해한 건 내 생각'이라는 것이다. 값 6천9백원.



▲배를 다스리면 만병을 고친다(윤대규 지음, 다우)= 지압(指壓), 수기(手氣), 침(針)을 동시에 시술하는 것이 지압수기침 요법이다. 이 요법은 인체의 기 순환을 가장 적정한 상태로 정상화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 책에서는 복부의 오장육부를 직접 다스려 질병이 발생하는 근본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을 싣고 있다. 값 8천5백원.



▲동양인의 체질에 맞는 멀티테라피 새 그림치료(장성철 지음, 차성회 엮음, 북하우스)= 서양의 미술심리치료 요법에서 탈피, 환자의 정신적인 치료와 육체적인 치료의 시각적인 방법을 담고 있다. 동양의 오행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책은 실제와 이론을 겸비한 지침서이자 연습서이다. 특히 3장 '판독과 치료의 실제'는 실제적인 도움을 준다. 값 1만8천원.

서로 상처 보듬으면서 찾은 나

송기원 구도소설 '또 하나의 나'



소설가 송기원 씨(53)가 인도기행을 토대로 한 두번째 장편소설 〈또하나의 나〉(문이당)를 출간했다. 〈안으로의 여행〉에 이은 연작형식의 이번 소설은 '나'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철저하게 자신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구도소설이다. 인도 북부지역에서 네팔에 걸친 히말라야 일대의 장대하고 다채로운 풍광을 배경으로 내면 탐색의 여정이 심도 있게 펼쳐진다.

주인공 '나'는 인도 북부지방을 여행하는 중에 홀로 트래킹 하던 한국여자 임영아를 만난다. 그녀는 16세에 윤간(輪姦)을 당한 뒤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술집에서 전전하다 삶의 밑바닥에 이르러 인도로 떠나온 여인이다. 이 여자와의 만남과 사랑을 통해 자신 속에 존재했던 '또 하나의 나'를 만나게 되고 새로운 차원의 '진정한 나'를 찾는다는 것이 이 책의 기둥줄거리이다.

모든 것을 접어버린 듯한 자유로움과 초라함, 음식에 코를 막고 아귀처럼 먹어대는 모습….

주인공에게 있어 이러한 임영아 '내'가 다다르고자 욕망하는 밑바닥의 경지를 대변하는 인물이다. 주인공은 걸인처럼 인도를 떠도는 임영아에게서 거짓이나 사치도 있을 수 없음을 본다.

진정한 자기 수행과 깨달음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 안에서 성취되고, 서로의 상처를 캐고 보듬는 가운데 얻게 되는 것임을 글쓴이는 말하려 한다. 인간의 한계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현실적인 삶의 가치에 조명을 밝히는 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마음공부'라는 사실이, 이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정신이라 할 수 있다. 값 8천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개원석교록' '일체경음의 2'

한글대장경 새책 두권

동국대학교 역경원에서 한글대장경 〈개원석교론〉과 〈일체경음의 2〉가 나란히 출간됐다.

〈개원석교록〉은 당나라 지승 스님(668~740)이 편찬한 일체경의 목록이다. 모두 20권으로 되어 있는 이 책은 총·별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총록은 1권에서 10권까지 10권으로 '총괄군경록'이라고 한다. 11권에서 20권까지 10권의 별록은 '분별승록'이라고 한다.

〈일체경음의 2〉는 여러 불전에 나오는 불교용어사전으로 11권 〈대보적경〉부터 20권 〈대방광불화엄경〉까지 모두 61경의 용어를 해설하고 있다. 값 각권 1만5천원.

김중근 기자



달라이 라마 영국 강연내용 '책으로'

'삶의 네가지 진리'

〈달라이 라마, 삶의 네 가지 진리〉(숨)는 달라이 라마가 영국 런던 바비칸 센터에서 강연한 내용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지금까지의 강연집들이 대부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개론적이고 광범위한 주제를 다뤘다면, 이 책은 불교의 기본교리인 '사성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다룬 게 특징이다. 달라이 라마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아무 것도 없는 무(無)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가져온 원인들과 여러 조건들이 결합해서 만든 결과"라며 고통의 원인을 알고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것이 행복의 길이라고 말한다. 달라이 라마의 사성제 강연을 듣다보면 머릿속을 맴돌 뿐 윤곽이 잡히지 않던 그 깊고 오묘한 진리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

옮긴이 주민황 박사(동국대 인도철학과)는 국내에서 몇 안 되는 티베트불교 전문가로 1989년부터 10년 동안 티베트 망명정부가 있는 인도 북부 다람살라에 머물며 티베트불교를 공부했다. 값 7천9백원.

권형진 기자(jinny@buddhapia.com)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법구경(작은경전1)	지 현	민 족 사
2	선방일기	지 허	여시아문
3	전통사찰음식	적 문	우 리
4	영가천도	우 룡	효 림
5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보인다	달라이 라마	문 이 당
6	선가귀감	박 현	바 나 리
7	5박6일 명상체험기	김 남 선	불 광
8	지대방 이야기	송광사 강원	법 공 양
9	지장신앙 지장기도법	김 현 준	효 림
10	부처님 말씀	성 열	현 암 사

도서 안내:(02)737-0695

신간
설 교수가 안내하면 혼자서도
전생 가기 참 쉽다
설기문 지음 / 값 8,500원 ● 전국 서점에서 판매합니다.

전생 다녀오는 시간
45분
전생 유도 테이프 포함

국내 최초의 전생 매뉴얼북
● 전생 유도 테이프에 의한 최면으로
가장 편하고 가장 빠른 방법.
45분짜리 테이프를 한 번 또는 두 번 듣기만 하면…….
● 펜듈럼 · 점막대 · 손가락 · 거울 등의 기구를 이용하여
마술과도 같지만 분명한 사실. 거울 속의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내가 말을 건네면 꿈은 반드시 응답한다.
● 현재의 나와 내 주변을 살펴보면서
지금의 나는 전생의 가장 완벽한 증거. 주의 깊게 주위를 다시 보면…….

설기문
동아대 교수 · 미국 공인 최면 전생 치료사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미국 인터내셔널 대학교 상담심리학 박사.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교 객원 교수 역임.
KBS TV 〈미스터리 추적〉을 포함한 다수의 TV프로그램에 출연.

● 전생을 알고 나면 ➡ ● 몸과 마음의 고질적인 문제가 풀린다. ● 세상이 전과 다르게 보인다.

738-0931 도솔

유명한 사람들의 전생이야기
데이비드 벵슨 / 서민수 옮김

그들이 유명하게 된 까닭은?
● 정주영 중국 수왕조 시대 대운하 공사 감독관 1300년대 태국 부농 집안의 수장 1800년대 중국 광둥의 상인
● 김대중 세종 시절의 학자 1700년대 네덜란드에서 출생 1800년대 필리핀에서 출생
● 박정희 고려말 최의의 환생
● 전두환 고려말 최충헌의 환생

세계 유명 인사 40인 포함
문선명, 존 레넌, 브루스 리, 칼릴 지브란, 에머슨, 스티븐 킹, 괴테, 칸트, 헤겔, 베이컨, 디즈니, 록 웰러, 처칠, 고르바초프, 엘리자베스, 빌리 그레이엄, 키신저, 슐제니친 외

전생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
● 왜 어떤 사람은 실패를,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할까?
● 부부는 어떻게 만나게 되나?
● 천재들은 어떤 진화의 경로로 태어나는가?
● 유학자들은 정치인 · 목회자로 많이 환생했다.
● 외국인이 어떻게 한국인의 전생을 보았을까?
● 이미 바티칸 신학자의 50%가 윤회를 믿고 있다.

"만해스님 불교관 정밀분석 필요"

백담사 만해축전 '불교 개혁사상과…' 학술회의



◇제2회 만해축전 '불교개혁 심포지엄' 모습. 윤원철 교수(서울대)가 '한국불교의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만해 한용운(1879~1944) 스님이 근대 불교사 및 불교사상사에 미친 영향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불교학계의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병삼(숙명여대) 교수는 10일 '불교의 개혁사상과 만해의 개혁정신'을 주제로 강원도 백담사에서 열린 불교개혁심포지엄에 논평자로 참석해, "1920년대에 등장한 용성 스님의 '개혁론'과 이영재 선생의 '조선불교혁신론' 등은 모두 만해 스님의 '조선불교유신론'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는 '추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만해 스님은 6백여 편의 연구 논문 수가 말해주듯, 원효 스님(7백여 편)에 이어 인문학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연구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 스님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정 교수의 이 같은 지적은, 이들 연구들이 대부분 시문학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을 뿐, 정작 근대 불교사 및 불교사상사에서의 스님의 위치를 정확히 짚어주지 못하고 있는 연구의 불균형을 지적한 것이다.

또 만해 스님이 '조선불교유신론'에서 한국불교 발전을 막는 사찰령을 비판하지 않고, 일본 통감부에 '대처금지해제' 건의한 것을 비판하고 있는 사학자들에게, 불교학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정 교수의 문제 제기중 하나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의 '만해 연구논저 총목록'을 보면, 만해 스님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시문학계에 의해서 70년대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연구 주제는 불교유신·독립사상 등과 같은 스님의 사상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문학적인 접근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학 중심 연구서 사상까지 넓혀야"

이에 따라 '만해' 연구자들은 "만해 스님의 사상이 갖는 역사적 의의를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님의 불교관 자체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1910년 한국불교계의 유신론'을 발표한 김상현(동국대) 교수도 "현재 불교계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경전이나 고대사 연구로는 한계가 있으며 근·현대사를 통해 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며 "일제침탈, 3·1운동, 불교유신, 대처간 분쟁, 법란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른 한국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현대불교사의 중심에 서 있는 만해 스님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만해 스님의 주요 활동기인 1910~1930년대는 일제의 문화말살 정책과 서양문물의 무분별한 유입에 따른 불교의 쇠퇴기였다. 만해 스님은 이 같은 침체의 원인을 '하늘이니 운명이니 하는 말로 설명하는데 반대하고, 불교의 부흥을 위해선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시대에 맞지 않는 구습들을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삼 교수는 "불교 유신의 책임을 스스로 떠맡고 나섰던 만해 스님은 동시대 불교계의 피상적인 개혁이나 개량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다"며 "'유신은 파괴로부터' 혹은 '파괴는 유신의 어머니'라는 그의 강렬한 주장 뒤에는 근대 불교계에 대한 반성과 모순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만해 스님에 대한 불교적 연구가 더욱 깊이 있게 진행될 때, "썩은 종기를 도려내고 상처를 치료할 때 새 살이 돋아날 수 있다"는 스님의 시대 정신이 올바로 전달되고, 오늘날 불교중흥의 방향 설정에 적잖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수안 모크

태국 붓다다사 스님 추모사이트

태국의 사회개혁운동을 이끈 붓다다사(1926~1993) 스님을 추모하고 사상을 조명한 사이트가 '수안 모크'(Suan Mokkh · 자유의 뜰)이다. 붓다다사 스님은 불교를 태국의 현대적 상황에 알맞게 적용하는 데 선구자적 역할을 하며, 사회의 부도덕성과 이기주의에 대해 직설적인 비판을 제기했던 고승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스님의 강연, 저작, 기고문, 시, 비디오 등 30여 개의 자료들이 제공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스님의 사상이 담긴 '담마적 사회주의'(Dhammic Socialism)이다.

이 글에서 스님은 서구 정부나 사업가 및 선교사들에 의해 이식된 자본주의적 자유민주주의는 그 의미가 매우 애매모호하고 기만적이라고 생각했다. 자본국의 사회에서의 자유는 얼마든지 이기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스님은 그 예로 점증하고 있는 빈곤, 범죄, 군비증강, 환경파괴, 자살, 마약 남용 등 우리 시대의 심각한 사회문제들을 들었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는 이기적이고, 비윤리적이며, 폭력의 원인이고, 평화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스님은 '담마적 사회주의'를 주장한 것이다. 여기에서 사회주의란 공공이익이 우선되고 개인보다 사회가 더 근본적인 것이며, 전체로서의 사회에 대한 관심과 필요가 개인적인 것 보다 우선되는 관점을 뜻한다.

따라서 이 글을 읽는 불자네티즌들은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의 이념이 감각과 물질을 좇는 이기적 욕망의 자유와 동의어는 아닌지 진지하게 자문해 보는 계기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이 사이트에서는 '불교와 환경보호운동' '진실한 불자의 길' '달마의 서약' '소승불교와 대승불교' '숲 속의 맑은 영혼' '불교와 민주주의' 등 수편의 붓다다사 스님의 제자들의 글도 제공된다.

이 중에서 '진실한 불자의 길'은 태국의 유명한 수행승인 마하나야께 스님이 영국 사드하티사 국제불교센터와의 인터뷰를 게재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스님은 현대의 불자들이 실천해야 할 것으로 꼽은 20가지 실천 덕목은 지금까지도 유럽 불자들의 생활지침이 되고 있다고 한다.

실천 덕목에는 △가난할 때 자비를 베푸는 것 △높은 지위에 있을 때 수행하는 것 △경전을 읽을 것 △욕망과 욕정에 종속되지 말 것 △사물에 대한 분별심을 억제할 것 △물질적인 유혹을 견디어 낼 것 △폭넓게 공부하고 모든 사물을 철저히 분석할 것 등이 있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http://www.suanmokkh.org/





괴산 보안사 삼층석탑 보물 지정

문화재청은 1일 충북 괴산군 보안사 삼층석탑을 국가지정 문화재인 보물 제1299호로 지정했다. 이 석탑은 단층 기단 위에 3층 탑신부 및 노반으로 구성된 화강암 탑으로 2, 3층 탑신이 1층에 비해 눈에 띄게 작고, 탑신석과 옥개석이 각각 하나의 돌로 돼 있는 게 특징이다. 특히 고려시대 석탑으로는 드물게 감실이 1층 탑신에 조성돼 있는데 이런 예는 국보 제48호 월정사 팔각구층석탑과 보물 제327호 경북 의성 빙산사지 오층석탑 등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다.

권형진 기자(jinny@buddhapia.com)

동국대 불교관련 박사논문 11편 '통과'

석사논문 12편도

동국대대학원 2000학년도 불교 관련 박사·석사 학위논문은 총 23편(박사 11편, 석사 12편)으로, 박사 학위논문 중에서 유식과 수행을 조명한 논문이 많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박사 학위논문은 △무착의 유식학설 연구(수산스님) △성유식론에서의 식(識)과 경(境)의 관계연구(한자경) △상담에 대한 유식학적 접근(강종구) 등 유식 관련 논문과 △설일체유부와 유가행파의 수행론 비교연구(강명희) △유가유식의 수행체계 연구(안명희) △천태 점차지관의 수행체계 연구(최기표) 등 수행 관련 논문을 비롯해 △대승기신론의 연구 - 중생즉불관을 중심으로(현성스님) △고려불화의 화엄사상성 연구(김영재) △몽산덕이 선사상 연구(김형록) △불교가사의 유통 연구(김종진) △조선후기 불화의 지방유파 연구(장희정) △조선시대의 호불(護佛)론에 관한 연구(김기령) 등 총 11편이다.

젊은 학자들이 유식과 수행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불교는 '마음의 종교' '실천의 종교'라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불교 관련 석사 학위논문은 △중론의 견해에 대한 비판 연구(김경희) △삼국시대 마애불 연구-중국 산동 지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박웅준) △태고 보우 시(詩) 연구(최수연) △청주 용화사 석불상군의 연구 △통일신라 9세기 불의에 대한 연구 등 12편이다.

오종욱 기자

새 중앙박물관 홍보 홈페이지

국립중앙박물관건립추진기획단(단장 김준영)은 2003년 완공을 목표로 서울 용산가족공원 내에 신축중인 새 국립중앙박물관의 건립홍보 홈페이지(new-museum.go.kr)를 개설하고 8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홈페이지는 새 국립중앙박물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미리보는 새박물관'을 비롯해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함께 만드는 박물관', '박물관 이야기' 등 다양한 코너로 구며져 있다. 특히 '박물관 이야기'는 역사퍼즐게임, 백일장, 전통문화배우기 등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 이용자들의 흥미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3차원 가상 이미지를 통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건립현장과 홍보자료관을 관람할 수 있게 하였으며, 새 국립중앙박물관 건립과 관련된 각종 보고서와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학술단신

'한국밀교의 서구적 이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은 16일 오후 4시 동국관 L301호에서 '한국밀교의 서구적 이해'를 주제로 폴 반데 브룩크(켄트대학·벨기에) 교수의 강연회를 마련한다. 이번 강연회에서 브룩크 교수는 한국 밀교에 대한 서구 학자들의 이해를 밝히고, 한국과 서구간 밀교 관련 연구 성과에 대한 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02)2260-8507

고암미술硏 논문 공모

고암미술연구소(소장 장충식)는 고암 이응노의 작품 세계에 대한 연구 논문을 공모한다. 석사 과정 이상의 학력 소유자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이번 모집은 원고지 100매 내외 분량으로, 11월 15일 마감이다. 당선 논문 발표는 12월중이며, 대상 1편에는 300만원, 우수작 3편에는 각 100만원이 수여된다. (02)3217-5676

디지털 대장경 ARS후원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는 디지털 대장경 제작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ARS 후원 모금을 실시한다. 12월 6일 고려대장경 CD-ROM 완성을 앞두고 있는 연구소는 내년부터 정부예산이 중단될 예정으로 있어 불자들의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다. ARS 후원 모금 전화번호는 (02)700-0870이며, 한 통화 당 5천원씩 제작 기금으로 전달된다.

수행의 길잡이

「만불명호경」과 함께 하는 三千拜
3천 분의 부처님께 禮敬을 드리는 일입니다.



『만불명호경』과 함께 하는 삼천배는 바로 3천 분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일입니다.

『만불명호경』은 菩提流支 번역의 『佛說佛名經』을 비롯한 총 9冊 56卷의 佛說佛名經에서 부처님의 명호를 일일이 대조 정리하여 신행생활에 유용하도록 새롭게 엮은 佛典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무심으로 올리는 삼천배가 자신의 修行을 위한 것이라면, 부처님의 名號를 독송하며 올리는 삼천배는 願力成就의 원동력입니다.

❶만 분의 부처님 명호를 통해 수행과 원력의 성취를 체험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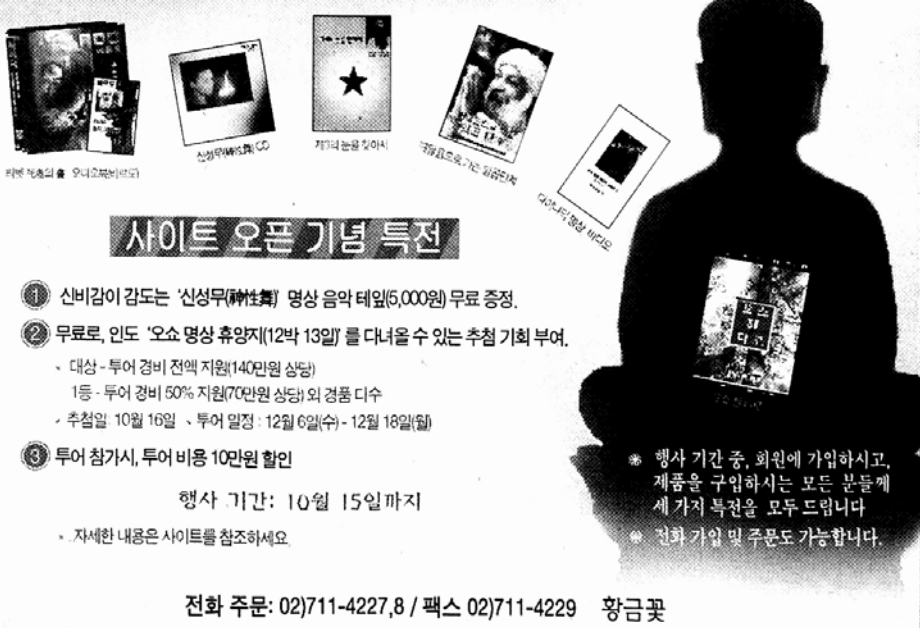
자녀분의 대입기도, 집안 가장의 사업발전 …… 그 소중한 원력들을 지닌 기도를 이제는 『만불명호경』과 함께 하십시오

편 집 : 도서출판 佛泉
감 수 : 월운 큰스님(동국역경원장)
역은이 : 초격 스님
보급처 : 광명선원
☎ 02) 584-1108
016-217-0143
가 격 : 35,000원

※ 보급처를 통한 전화나 우편주문만으로 판매됩니다

신인간이 드러나고 있다!!!

www.goldenflower.co.kr
신인간을 위한 멀티미디어 쇼핑몰



사이트 오픈 기념 특전

❶ 신비감이 감도는 '신성무(神性舞)' 명상 음악 테잎(5,000원) 무료 증정.
❷ 무료로, 인도 '오쇼 명상 휴양지(12박 13일)'를 다녀올 수 있는 추첨 기회 부여.
- 대상 - 투어 경비 전액 지원(140만원 상당)
1등 - 투어 경비 50% 지원(70만원 상당) 외 경품 다수
- 추첨일 10월 16일 、투어 일정 : 12월 6일(수) - 12월 18일(월)
❸ 투어 참가시, 투어 비용 10만원 할인

행사 기간: 10월 15일까지

-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 행사 기간 중, 회원에 가입하시고, 제품을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세 가지 특전을 모두 드립니다
※ 전화 가입 및 주문도 가능합니다.

전화 주문: 02)711-4227,8 / 팩스 02)711-4229 황금꽃

허물 참회…조상 천도하는 날

우란분절의 유래와 현대적 의미

불교에는 부처님이 이 땅에 나투신 의미를 되새기고 수행정진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는 고유의 명절이 있다. 가장 큰 명절인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8일)과 부처님이 출가한 것을 기념하는 출가절(음 2월8일),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날을 기념하는 성도절(음 12월8일),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열반절(음 2월15일)을 불교의 4대 명절이라 하는데, 여기에 스스로의 허물을 참회하고 돌아가신 부모의 넋을 기리며 천도하는 우란분절(음 7월 15일)을 더해 예로부터 불교의 5대 명절로 삼고 있다.

14일 우란분절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 천도재와 방생법회, 효도잔치 등 우란분절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행사들이 일제히 거행됐다. 이에 불교의 5대 명절가운데 하나인 우란분절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자는 의도로 우란분절의 의미와 유래에 대해 다시 살펴보는 장을 마련했다.

◇우란분절의 유래

우란분절의 유래는 〈우란분경〉에 잘 나타나 있다. 부처님 제자 가운데 한사람인 목건련이 6신통을 얻은 후 부모를 찾아보니 죽은 어머니가 아귀도에서 고통을 받고 있어, 부처님께 구제할 방법을 물었다. 부처님은 지금 살아 있는 부모나 7대의 죽은 부모를 위하여 7월 15일에 여러 가지 음식과 옷 등을 갖추어 시방의 대덕스님에게 공양하라 하였다. 목건련은 가르침대로 행하여 그 공덕으로 어머니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였다는 데서 우란분절은 유래한다. 우란분절에 담긴 의미는 비록 진리를 깨닫기 위해 부모와 인연을 끊고 출가한 승려이지만 부모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으며,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스로 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중스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은 승보에 대한 존경의 표시지만 이는 나아가 스스로 선을 행함으로써 그 업이 모든 중생에게 미친다는 의미도 된다. 이런 뜻에서 우란분절의 취지는 보다 널리 일반사회에 확산되어야 한다.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 우란분절

우란분절은 그 동안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어 왔다. 이날은 스님들이 하안거를 마치는 날이기도 한데, 이때에 스님들이 자신의 허물을 대중에게 고백하는 날이라 하여 백중(白衆)이라 불렀으며, 백종(白踵), 백종(百種), 중원(中元) 또는 망혼일(亡魂日)이라 부르기도 했다.

우란분절의 시기가 봄에 파종한 각종 과일과 곡식들을 거둬들이는 때이기도 해서 백가지 곡식의 씨앗을 갖추어놓았다는 의미로 백종(百種)이라 했다. 또 농민들이 7월에 이르러 세벌 김매기인 만두레를 끝낸 다음 힘든 농사를 마무리 짓고 발뒤꿈치를 깨끗이 씻는다 하여 백종(白踵)이라 불렀다. 중원(中元)은 도가적 표현으로 천상선관이 1년에 세 번(上·中·下元) 인간의 선악을 살피는 때를 삼원(三元)이라고 하였는데 정월 대보름과 7월 보름, 그리고 10월 보름이 삼원으로, 그 중앙의 7월 보름을 중원이라 하였다. 망혼일은 돌아가신 어버이에게 그해에 난 새로운 과실을 먼저 올리는 천신(薦新)을 한 데서 유래하는 이름이다.

목련존자 어머니 구제한 일서 비롯
소원 이루려면 공덕 베풀라는 교훈
경로잔치·방생·선열추모로 확대를

◇우란분절의 현대적 실천

고려가요 '동동'에도 7월 백중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신라와 고려시대의 백중에는 일반인들까지 참여하는 성대한 우란분절 행사가 벌어졌다 한다. 이 백중과 불교의 우란분절이 시기적으로 일치되어 서로 함께 어우러지면서 전통문화 속에서 우리의 중요한 민속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우란분절에는 다양한 민속이 전해져 오는데 이를 오늘날 새롭게 조명하면 대체로 조상을 기리는 효도의 날, 풍요로운 노동절, 방생과 공양의 날로 규정지을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불자들은 우란분절에 사찰에서 자신의 조상만을 위한 소극적이고 개별적인 천도재를 지내는 데 열중한다. 우란분절은 넓고 적극적인 천도법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몇몇 사찰에서 노인들을 위한 효도잔치 등 작은 노력들을 보이고 있지만 보다 더 확산되어야 한다. 넓은 의미의 조상인 우리의 선조와 애국선열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 또한 풍요로운 민속노동절로서의 전통을 이어 현대의 노동자들과 하나되어 불교적 기틀을 이루는 날이 되어야 하며, 적극적인 방생으로 환경보호에 앞장서서 공덕 쌓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탐진치 중생심 녹여 해탈의 삶을 삽시다"

불자들은 번뇌망상을 여의고 참마음을 드러내어, 육도윤회의 고해로부터 벗어나는 데 수행의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즉 모든 불교수행의 목적은 탐·진·치 삼독으로 물들어 있는 중생의 마음을 정화하여 본래의 마음,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지요. '참마음'이란 번뇌망상에 물들기 이전의 본래 마음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선(善)한 쪽 뿐만 아니라 악한 쪽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래 물(水)은 모든 생명을 살리고 성장시키는 성품을 지니고 있지만 더럽고 독한 물질에 오염되면 생명을 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본래 맑은 마음도 탐욕, 증오, 미혹 등 번뇌망상을 일으키는 마음들로 무명에 싸이게 되고, 그 망심(妄心)의 독으로 인해 고통의 늪에서 벗어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經)의 가르침은 언제나 참마음에 머물러 진리의 세계, 부처의 세계(解脫)에 들어가기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즈음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자신과 자신의 이익에만 매몰돼 주변과 자신의 삶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조차 갖지 못한 채 분주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이익이 침해당하거나 자신의 일에 장애가 생기게 되면 분노하고 증오심을 일으킵니다. 자기에 집착하고 끝없는 욕망에 이끌려 살다가 좌절되었을 때는 절망하고, 결국은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리고 망심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삶은 언젠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그 끝을 드러내게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 불자들은 진정한 삶의 성취가 무엇이고 진실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언제나 참마음에 머물러 생각하고 행동하는 수행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참마음을 드러내어 생활 속에서 활용하며 사는 수행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평화롭고 안정된 삶의 공덕을 지닌 마음, 참마음을 순수한 100%의 금이라고 하면 수행은 그 제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의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돌과 금 성분이 서로 섞여 있는 것을 빻아 돌을 걸러내어 금가루만 모으고, 또 금가루를 녹여서 여러 번의 제련과정을 거칩니다. 이는 우리도 쉼 없는 수행정진을 통해서 번뇌망상과 오랜 생을 거쳐 쌓아온 업장의 저 깊숙한 곳에서 빛나고 있는 참마음을 드러낼 수 있다는 뜻도 있습니다. 참선, 염불, 지계, 간경, 참회기도, 보살행 등 여러 가지 수행법으로 역대의 조사스님들과 수행자들이 닦아오고 실천해 온 모든 수행 행적들은 이와 같은 참마음, 즉 불성을 드러내어 부처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또 망상을 쉬면 번뇌망상의 고뇌가 사라진, 참마음이 드러나지만 그 참마음이 현실 속에서 실현되려면 실천수행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경에서도 "진여(眞如)의 성품을 보았다 할지라도 방편을 써서 갖가지로 갈고 닦지 않으면 끝내 맑아질 수 없다"고 하였듯이 모든 선행을 닦는 수행으로 참마음을 확고히 하여야만 자연스럽게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기도수행을 열심히 하면 망상과 어두운 마음들이 사라지고 평화롭고 밝은 마음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마음에서는 그릇된 생각과 행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마음 씀(用)이란 가족과 친지, 어려운 이웃들은 물론 모든 존재들과 열려 있는 마음, 자비와 사랑이 담긴 마음으로 함께 하는 보살행 그 자체입니다. 그 선한 의지를 삶 속에서 실현해야 비로소 좋은 사람으로서 진정한 가치를 지니게 되듯이, 진리의 구체적인 실현인 선행을 통해서 번뇌망상과 업장을 여의어야만 진실로 행복한 세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법회중계

금강정사 정기법회

〈2000년 8월 2일〉



지홍스님
〈광명 금강정사 주지〉

가족·친지·이웃위해
자비와 사랑 실천할때
행복한 진여세계 도달

버클리大 불교학 소그룹 활동 눈길

세계의 불교학 〈29〉 미 국 ④

인도불교 대가 자이니 교수가 지도
7~8년 3차 관문 거쳐야 학위 수여

미국에는 약 2000여 개의 4년제 대학이 있는데, 대부분 학부 교양 과정에 종교학 강좌를 개설하고 세계 종교를 다루며 불교를 가르치고 있다.

이 중에서 주요 불교학 교수들이 활동하고 있는 곳은, 버지니아 대학(홉킨스·그로너·저매노·세나비라트네 교수, 4명), 시카고 대학(레이놀드·그리피스·에버솔·콜린스 교수, 4명), 하버드 대학(니토미· 하다크레·핼리세이 교수, 3명), 콜롬비아 대학(서먼·캡스타인·아베 교수, 3명), 미시간 주립대학(고메즈·로페즈·폴크 교수, 3명), 프린스턴 대학(오베이시크레·스톤·타이저 교수, 3명), 버클리 대학(랭카스터·자이나 교수, 2명), 스탠포드 대학(화울·빌레휄트 교수, 2명), 위스콘신 대학(키요다·소프 교수, 2명), 하와이 대학(채플·칼루파하나 교수, 2명), 노스웨스턴 대학(본드·야마다 교수, 2명), 펜실바니아 주립대학(프리비쉬·하인 교수, 2명), UCLA(버스웰·보디훠드 교수, 2명) 예일대학(와인스타인 교수, 1명), 코넬 대학(매크래 교수, 1명), 일리노이 대학(그레고리 교수, 1명), 인디아나 대학(내티에 교수, 1명), 아리조나 대학(짐멜로 교수, 1명) 등이다.

여기에 인접 학문 분야에서 불교를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연구소 등을 포함시키면, 미국의 불교학 연구 기관의 수는 수백에 이를 것이다. 한 예로 불교학 연구소(정토진종 계·버클리), 나로파 연구소(티베트계·보울더), 법계불교대학·서래대학(대만계·탈마지) 등은 연구소이면서 불교학 교수를 확보하고 석사 학위과정을 설치한 곳이다. 또한 미국의 대학에는 특정 학과에 소속되지 않은 소규모 '연구 그룹'들이 있는데 이들 가운데도 불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연구그룹이란 특정 전문 분야를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집중 교육 과정'을 뜻하는데, 버클리 대학의 경우 40여 개의 그룹들이 운영되고 있다.

이 중에서 '버클리 불교학 그룹'은 1972년 박사 과정으로 처음 설치되었는데,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다. 자이니(남동아시아학과) 교수가 이끌고 있는 이 그룹에는 골드맨·반누든(남동아시아학과) 교수와 벨라(사회학과)·로쉬(심리학과)·순(철학과)·캐힐(예술사학과)·메이(전기공학) 교수 등이 활동하고 있다. 자이니 교수는 런던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인도 불교와 자이나교의 세계적인 대가로 범어와 빨리어에 능한 아비달마교학의 전문가이다.



◇미국 산디에고 인근 야산에서 대중법회를 봉행하는 미국인 불자들.

버클리 불교학 그룹은 언어학적 배경 및 관련 문화 연구를 강조하고 있어, 범어에 중점을 두는 연구생은 동아시아 언어(중국어, 한국어, 일본어)를 제2외국어로, 동아시아 언어에 중점을 두는 연구생은 범어를 제2외국어로 교차 선택하도록 한다.

이들 그룹의 교육 과정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우선 불교 관련 원전 해독을 위해 범어, 프라크리트, 빨리, 서장어, 한문 등을 익히고 또 현대 문헌과의 비교 연구를 위해 불어, 독어, 중국어, 일어 등도 공부하는 언어과정이 1차 관문이다. 다음으로 자격 시험과 불교 전반에 걸친 구술 시험을 거쳐 2차 관문을 통과하면 비로소 3차 관문인 학위 논문을 쓸 수 있다.

세 관문을 거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7~8년. 이는 미국 내에서의 다른 인문과학 분야 박사학위 취득 기간과 비슷하지만, 학자와 교수로서의 자질 함양에 강조점을 두어 논문 작성보다는, 그 전 단계인 준비 과정을 중시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버클리 불교학 그룹'에서 불교를 연구한 학자들은 대부분 교육과정을 마치기 전에 다른 대학의 교수로 임용되는 사례가 많다. 원전을 자유롭게 읽고, 관련 문헌을 충분히 탐독한 학자의 자질에서 심층적인 연구 성과와 훌륭한 선생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갓바위, 소원성취
원광 달마도
◐ 전화주시면 먼저 달마도를 부쳐드립니다.

경명주사 그린달마도 시험·합격·승진
부부화합, 결혼, 건강
사업성취·재수대통·수백차단
지장전 중창불사 기금조성 일원으로 달마도를 보급합니다. 선근인연공덕을 지어 성불하십시오.
지장선원 포교원 (053)982-4976
달마도 문의 011)813-3679
※ 일단 달마도를 받아보시고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반품하시고 마음에 드시면 입금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15-21-0517-898 이 민택

정성과 얼이 담긴
국내 최초특허청에 등록 (제0246178호)
승복·법복 판매안내
행복을 기원하는 저희 기원섬유에서는 "수례바퀴"라는 상표로 승복 및 법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특허청의 의장법에 의하여 의장등록된 제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고안한 제품이며 연꽃·옴·만자무늬를 원단에 직접제작해서 입체적으로 만든 자가드 원단이며 원가를 절감하여 기존제품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본 제품은 매우 활동적이며 개량 한복처럼 세련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불교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저희 수례바퀴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불교발전에 귀의할 것입니다.
▶ 다의장 등록증

특별보급가격
저고리 남:85,000 여:80,000
바 지
긴 쪼 끼 남:45,000 여:40,000
전국 대리점 모집
(가격품질 면에서 경쟁력 있음)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기원섬유
대구시 동구 신천 3동 74-1 (창신빌딩1층)
■상담전화 (053)764-4114
■휴 대 폰 (011)9850-4400
※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에 법적인 제재를 받음

빅-뉴스
피로? 나에게는 없다!
■ LIHIS 건강양말
· 건피부(특히 발이 갈라 지는 분)
· 피부노화 방지
· 숙취 해소
건강양말
특허출원번호 0043150
LIHIS
■ LIHIS 건강 숯 양말
· 당뇨에는 더 이상 당이 안 오름
· 원적외선 차단
건강숯양말
실용신안번호 0165970
LIHIS
상담문의
(주) 화동섬유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321-116
053)582-1245
전남북 특판점 062)956-7676~7
동대구 특판점 053)982-4976

"길"은 진문 수제화만을 고집합니다.
우리신을 찾는 사람들
길

새로운 개념의 신발
가벼우면서 편안한 합리적이고 창조적인 스타일
토속적인 전통디자인, 승복과 우리옷에 잘 어울립니다.
· 사이즈 225~275 (남여공용)
· 소재 합성피혁
· 색상 백색,회색,흑색
언제 신어도 좋다. 한국적인 이야기가 담긴 신발
30년 경력의 장인정신이 승화는 정교한 기술로 탄생된 길은 고급수제화의 신화를 만들어 갑니다.
"스님께 선물용·보시용으로 좋습니다."
전국불교서점, 불교용품점 승복사에서 판매중입니다.
문의전화
080-763-9999
053-564-9989
고급수제화 길

■제조원: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32-432 "길"
이화불교사 02)734-1383
우 미 사 051)634-6651
고려불교원 051)807-6842
삼영불교 053)425-4097
보문불교 042)253-6446
봉은승복 053)421-5451
웅해미술원 042)274-3727
경주불교서점 054)749-1580
여 래 원 054)436-0871
보문불교사 055)741-6709
금강불교사 055)337-5170
사 찰 정 보 053)982-4976

시방세계

반야불교사
불사의 모든일 정성껏 하겠습니다.
031)905-6368 / 011)9934-3512



◇한글 깨침의 전당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삼광사 부설 한글학교는 방학도 없다. 사진은 방학을 거부한 어르신들이 받아쓰기를 하는 모습.

여름도 잊은 삼광사 한글학교 어르신학생들

"한글 읽고 쓰니 너무 행복해요"



◇삼광사에서 편찬한 한글교과서.

"자, 받아쓰세요. 고~향. 진~달~래. 모르는 글자는 비워두세요."

누가 학생이고 선생님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교실에서 받아쓰기가 한창이다. 학생들은 50~80대까지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희끗희끗한 머리를 숙인 채 굵은 주름이 잡힌 손으로 한획 한획 힘겹게 긋는다. 한 할머니는 연필을 입에 물고 고민하다 슬그머니 옆자리를 엿본다. 하지만 옆자리의 할아버지는 글쓰기에 푹 빠져 할머니의 곁눈질에는 조금의 관심도 없다.

학생의 연령이나 교실의 풍경이 여느 학교와는 관이하게 다른 부산 삼광사 부설 삼광한글학교(교장 덕수 스님)의 보충수업 시간. 한여름의 폭염을 피해 모든 학교가 방학에 들어갔지만 삼광한글학교의 학생들은 지금 방학을 거부(?)하고 보충수업을 받고 있다. 학생들에게 방학은 최고의 즐거움인데 왜 이 학교의 학생들은 방학을 마다하는가?

"요즘 한글 배우는 것 이외에는 재미있는 것이 없어. 하루 하루가 아까운데 무슨 방학이야. 죽기 전에 한자라도 더 배워야지…." 은빛 머리카락을 멋스럽게 넘긴 풍채 좋은 신학명(71·3년) 학생이 그 답을 대신해 준다. 옆자리에서 글을 쓰고 있던 학생들도 "이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느냐"며 입을 모은다. 이날 수업은 2학년 보충수업. 하지만 학년 구별 없이 1학년과 3학년 학생들도 동참했다. 3년 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이후에도 7~8년을 계속 다니는 학생이 있을 정도로 삼광한글학교는 '한글 깨침'의 전당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이 학교의



사랑하는 아들 에게
엄마 한글 학교 다녀 글
배 워서 참 좋 단다
엄마는 학 사 네 를
너무 고 맙 게 생 각
한 단 다 너 엄 마 만 을
을 알고 있 겠 지
너 희 보 부 가
항 상 엄 마 늙 고 말
게 생각한 단 다
날 씨 가 참 무 덥 구 나
항 상 건 강 조 심
하 거 라
우 리 민 소 가 진 강 하
게 자 라 죠 서
고 맙 다
그 럼 이 만 줄 인 다
2000 엄 마 가
7월 19일

◇여름수련회에서 한 할머니가 가족들에게 쓴 편지.

한글 깨침은 단순히 문명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머무르지 않는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이 달라졌어요. 체한 것처럼 답답한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한글을 모를 때는 어디를 가서든 부끄러워 말도 못하고 속만 태웠지요. 그런데 글을 알게 되니 가계부도 적고, 며느리와 손자들에게 편지도 쓰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기 몰라서 못 온 사람이 불쌍할 정도예요. 우리 교장선생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말로는 다 못해요. 글도 가르쳐 주지, 기도도 할 수 있지, 좋은 친구들도 만나지. 이렇게 좋은 데가 어데 있겠소. 바로 극락이지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기억력이 저하되어 단순한 낱말도 배우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십상이다. 하지만 글쓰는 재미에 빠져 있는 이들 학생들에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수없이 반복되는 복습조차도 즐겁기 때문이다. 3년 전부터 전임 교사로 있는 손은주(27) 선생님은 이를 증명하듯 말한다. "입시생보다도 더 열심히들 하세요. 그 모습을 보며 눈물겨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울기도 했답니다."

삼광한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사연도 가지각색이다. 3시간씩 걸리는 경남 함안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3년을 다녔던 학생, 남편 한글 배우는 옆에서 묵묵히 관세음보살만을 쓰면서 3년을 함께 해 주던 아내, 이 가운데 암으로 투병중인 80대 후반의 할머니 이야기는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한글을 배우지 못한 것이 한이 된 그 할머니는 말기 암의 고통 속에서도 수업에 빠지지 않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죽는 날까지는 배우다 가겠다던 그 할머니는, 끝내 졸업을 하지 못했다.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보기 힘들어 나오지 말라며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부둥켜 울기도 했다. 아마도 지금쯤 그 할머니는 못 배운 한 다 풀고 왕생극락했을 것이다.

삼광사가 삼광한글학교 문을 연 것은 92년 4월 3일. 우리 글을 익히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문을 열었다. 입학 자격도 까다롭지 않다.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능하다. 첫해 1년 과정으로 290명의 학생이 참여했던 삼광한글학교는 이듬해 2년 과정으로, 94년에는 3년 과정으로 확대되었다. 학교를 시작한 삼광사에서도 놀랄 만큼 한글을 배우려는 사람들로 넘쳐났던 것이다. 9회 입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지금까지 매년 평균 250여명의 학생들이 입학해 만학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현재는 지혜, 보람, 자비, 으뜸, 정진 등 5개 반이 일주일에 3번, 하루 2시간씩 수업을 받고 있다. 수업은 4명의 정교사와 9명의 보조 교사로 이루어지며 학생들은 60~70대의 할머니가 가장 많다. 현재 최고령은 81세의 김인희 할머니.

매년 250여명 만학의 열정
자체 교재로 3년간 교육
불교설화·스님일대기 등 통해
한글도 깨우치고 불교도 공부

삼광한글학교는 불교계에서 보기 드문 교육시설이다. 특히 자체 교과서 편찬과 3년 간의 교육 과정은 정규교육과정 못지 않을 정도이다. 교재의 내용은 한글 배우기에 머물지 않고 불교소양 교육에도 한몫을 한다. 불교 설화, 한국 역사, 시, 시조, 스님 일대기 등의 내용을 한글을 깨치는 과정에 자연스레 실어보내기 때문이다.

삼광한글학교 학생들은 최근 실시한 여름 수련회에서 그 동안 배운 실력으로 가족들에게 편지를 띄웠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사랑하는 귀여운 손녀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등으로 시작되는 편지들은 하나같이 받침이 틀리고 삐뚤삐뚤했지만 삶에 대한 대긍정의 기쁨은 넘쳐 흘렀다.

버스 표지판이나 간판을 읽지 못해 길을 헤매도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던 설움, 관공서에 갈 때 일부러 봉대를 감고 가서 글을 대신 써달라고 부탁하던 일 등을 한 장의 편지에 실어 날려보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심봉사가 눈 떴을 때 이런 기분이었을 것이라며 서로를 위로한다.

천미희 기자(mhcheon@buddhapia.com)

"온몸의 피부가 다시 살아나는 기분입니다. 인생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인생이지만 끝까지 배우다 갈 겁니다."

조영래 보살은 한글학교에 다니기 전까지는 우울증이 심했다. 글을 모르고 산 몇십 년 동안, 내색도 못하고 주눅들며 살아온 세월이 우울증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우연히 등산을 다녀온 남편이 우리글을 배워보라며 삼광사 한글학교를 권했다.

"남편은 사범학교를 다녔으니 내가 못 배운 게 더욱 마음에 맺혀 병이 되었지요. 처음엔 부

2학년 조영래(61세) 보살



"못배운 한 풀었어요"

끄러워서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더 빨리 한글배움의 용기를 내지 못했던 것이 오히려 후회가 됩니다. 이런 배움의 장을 열어준 교장선생님께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 조영래 보살의 남편은 복습을 알뜰하게 챙겨주는 가정교사 역할을 하고 있다. 복습도 도와주고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늘 자식들을 위해 사오던 연필, 공책을 내 것으로 살 때 참 기분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학년을 올라갈수록 내용도 어렵고 숙제도 많아지지만 공부하는 재미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예요."

내가 배운 것, 또 달라진 내 삶을 다른 사람에게도 꼭 나누어 주고 싶다며,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한글학교에 오게 되길 바란다는 조영래 보살의 얘기 속에는, 불교의 미래를 걱정하는 잘난 논객의 그 어떤 정교한 논리보다도 더 설득력이 컸다.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SALE
좋은 잠자리가 젊음을 줍니다.
몸이 나이를 느끼십니까? 이제 돌침대를 쓰셔야 합니다.
침대가 과학이라면 돌침대는 자연입니다
자매품 BIO황토 요람침대

▶ 전자파 자체 제거기능(특허 제0157651호)설치
▶ 리빙스톤은 가격, 품질, A/S 에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 200만원으로 돌침대를 쓰시겠습니까?
스프링 매트리스 침대를 사겠습니까?
자매품 원석씨산 BIO돌침대

■ 봄(가을)에 불을 안 넣으면 방 바닥이 차고…
정말 돌침대가 필요할때!!
■ 돌매트에서 원적외선, 음이온이 쏟아져 배기는 느낌이 없고, 척추 교정 효과가 있습니다.

목단 902

101 심금보료
돌침대의 효능…
♦몸속 깊숙히 원적외선이 전달됩니다.
♦구석구석 피가 돌게 하고, 쌓여있는 노폐물을 ■ 줍니다.
♦초장파 의 물리치료 기능으로 몸속 깊숙이 뭉친곳을 풀어줍니다.
♦유해전자파, 정전기를 완전 제거하고, 수맥을 차단하였습니다.
♦평생 A/S로 안심하고 대를 물려 쓸 수 있습니다
♦한달 전기료는 12,000원 안팎(1일 10시간 사용 기준)으로 부담없습니다 (2인용)
침대의 名家 氣 세계인을 편안하게 건강하게 리빙스톤® (옥스톤)
Living Stone Bed
☎ 02)424-9427/2203-7821
가격이 싸다고, 광고가 요란하다고 현혹되지 마십시오 가열장치가 "열선장치"인지 "특수카본 필름장치"인지 초장파는 장치되어 있는지 …
돌판은 원석인지, 그리고 수입석은 아닌지 철분은 많지 않은지 … 입소문 제품이 제일 믿을수 있습니다.

다시 푸는 경서

달마 관심론(觀心論) ⑩

又長明燈者 正覺心也 覺知明了
우장명등자 정각심야 각지명료
喩之爲燈 是故一切求解脫者
유지위등 시고일체구해탈자
常以身爲燈臺 心爲燈炷 信爲燈炷
상이신위등대 심위등잔 신위등주
增諸戒行 以爲添油 智慧明達
증제계행 이위첨유 지혜명달
喩如燈光 常燃如是覺燈
유여등광 상연여시각등
炤破一切無明癡暗 能以此法
소파일체무명치암 능이차법
轉明開悟 卽是一燈 燃百千燈
전명개오 즉시일등 연백천등
以燈續明 終無盡故 故號長明
이등속명 종무진고 고호장명
過去有佛 名曰燃燈 義亦如是
과거유불 명왈연등 의역여시

또 장명등이란 바르게 깨친 마음을 뜻한다. 깨달은 지혜의 명료함을 등에 비유한 것이다. 그러므로 해탈을 구하는 사람은 몸으로 등대(燈臺)를 삼고, 마음으로 등잔을 삼고, 믿음으로 심지를 삼고, 계행을 기름으로 삼으면 지혜의 밝기가 마치 등불 같을 것이다. 항상 이러한 깨달음의 등으로 모든 무명과 어리석음을 비추어야 하며, 이러한 법으로 유위법(有爲法)에 집착하여 세간의 소유(蘇油)로 등을 켜서 빈 방을 비추는 것으로써 가르침 대로 한다고 하니, 어찌 잘못됨이 아니겠는가. 그 까닭이 무엇인가. 부처님의 미간(眉間)에 있는 백호광(白毫光)으로도 십만팔천의 세계를 비추고, 신광(身光)을 다 나타내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게 되는데, 어찌 이런 세속의 등을 빌려서 이익을 삼겠는가. 이런 이치를 깊이 살펴보면 응당 그렇지 않겠는가.

又六時行道者 所謂六根之中
우육시행도자 소위육근지중
於一切時 常行佛道 佛者覺也
어일체시 상행불도 불자각야
卽時修諸覺行 調伏六根 六情淸淨
즉시수제각행 조복육근 육정청정
長時不捨 名爲六時行道
장시불사 명위육시행도
塔者身心也 常令覺慧 巡遶身心
탑자신심야 상령각혜 순요신심
念念不停 名爲遶塔 過去諸聖
염념부정 명위요탑 과거제성
曾行此道 得涅槃樂 今時世人
회행차도 득열반락 금시세인
求解脫者 不會斯理 何名行道
구해탈자 불회사리 하명행도

근기 둔한 사람 밖으로 과보 구해
밤낮 분주하게 세간의 탑 돈다

밝은 깨달음을 열어나가야 한다. 즉 하나의 등불로 백천 개의 등불을 밝히고 이 등불의 밝음이 끝없이 이어지므로 장명등이라 한다. 과거세상에 연등불이 계셨다는 것도 역시 이러한 뜻이다.

竊見今時鈍根之輩 曾不內行
절견금시둔근지배 증불내행
唯執外求 遶世間塔 日夜走驟
유집외구 요세간탑 일야주취
徒自疲勞而眞性一無利益
도자피로이진성일무이익
迷愚之輩 甚誠可愍歎
미우지배 심성가민여

또 여섯 차례 행도(六時行道)한다는 것은 항상 육근(六根)의 활동이 불도를 행한다는 뜻이다. 부처란 깨침이다. 즉 시 모든 각행을 닦아 육근을 조복시키고 육정(六情)의 청정함을 오랜동안 버리지 않는 것, 이를 육시행도라 한다. 탑이란 몸과 마음을 상징한다. 밝은 지혜로 몸과 마음이 돌며 생각생각이 끊이지 않는 것을 탑돌이라 한다. 과거 성현들도 이 도를 행하여 열반락을 얻었는데 지금 해탈을 구하는 사람이 이런 이치를 모르니 어찌 행도한다 하겠는가. 근기가 둔한 사람을 보면 안으로 닦지 않고 밖으로 과보만 구하면서 밤낮 분주하게 세간의 탑을 돈다. 이는 피로하기만 하고 진성(眞性)에는 아무 이익이 없으니 어리석은 무리여 참으로 가엾다.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큰 스님과의 대화 여름특집 해외고승편 III

성운스님〈대만 불광산사 조실〉

"지금 노력정진 금생에 꼭 보살이 됩시다"



불교의 생활화란 말 그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생활과 불법이 여일한 신행을 말한다. 불교의 생활화를 실천하면서 부처님의 제자로서 여법하게 살아가는 생활이야말로 불자들의 이상이다. 대만의 불광산사에 주석하고 계시는 성운 스님에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불자의 도리에 대한 가르침을 듣는다. 스님의 저서인 〈선한 존재(Being Good-Buddhist Ethics for Everyday Life)〉와 법문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의 진리(One Truth For All)', '평등과 평화(Equality and Peace)', '불교에서 보는 원인과 조건(Buddhist Perspective on Cause and Condition)' 등에서 중요 부분을 뽑아 대담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이 세상을 흔히 고해(苦海)라고 합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고해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싸우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등 온갖 고(苦)의 원인을 서로서로 제공하며 아귀다툼하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잘못은 어디에 있는지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고통의 바다(苦海)'로 다가오는 원인에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잘못된 마음과 행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환경을 지키겠다는 의식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아무런 의식없이 자기 멋대로 살기에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산과 강 그리고 땅을 오염시킬 것입니다. 또 물욕과 허영에 젖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 또한 물욕과 허영을 좇아 이 세상을 사치와 폭력으로 물들이고 결국에는 우리를 다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범하는 데에는 입과 손 그리고 발과 같은 신체를 잘 다스리지 못해, 이것들이 병든 것에서 비롯됩니다. 즉 조화를 이루지 못해 몸에 병이 나게 된 셈입니다. 탐 · 진 · 치와 의심 그리고 삐뚤어진 생각 등과 같은 '잘못'이 한 순간 시작되면서, 입으로는 이간질 · 욕설 · 거짓말 등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입이 병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얼굴이 무표정하거나 적의나 살기를 띤 사람들을 가끔 보게 돼요. 그런 사람은 얼굴에 병이 있는 것이라고 봐도 됩니다. 손으로 살생 · 상해 · 도적질 · 사음 등을 저지르면 사회에서는 사회적 문제로 되고 이것이 고(苦)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예요.

신체의 병은 의사를 찾아 치료받으면 되지만, 마음의 병은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고 깨어나야만 고쳐집니다. 다시 말해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병의 원인을 찾고 치료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는 약처방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자비한 속마음, 진실한 본성, 복을 아끼는 생각, 감사하는 마음, 실질적인 말과 언행, 덕목을 간직하는 넉넉함, 부끄럼을 아는 것, 인연과 과보, 근검절약, 믿음과 행원, 방편 등의 '약'들이 필요합니다. 이 약들을 커다란 포용의 냄비에 볶다가 넉넉한 마음이란 화로에 고아야 하는데, 줄이거나 태우지 말아야 하고 화기를 다소 줄여 성질을 부리지 말고 부드럽게 요리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단체라는 절구에 한 마음으로 곱게 빻아야 합니다. 세번 생각해보는 것을 근본으로 하여 격려라는 알약으로 만들어서 매일 세번씩 계속해서 먹어야 하는데, 사랑으로 관심을 주는 물과 함께 복용해 나간다면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어요.

약을 복용하는 동안에는 쉽게 함부로 내뱉는 말과 그릇된 행동, 자기의 이익을 위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 안보이게 행하는 편법,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칼을 가는 것, 이간질,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행위 등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이죠. 또한 질투를 하지 말아야 하며 의심하지 말고 방종하지 않으면서 자아를 바로잡고 불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거울을 보면서 바르게 입도록 다듬는 것처럼, 마음의 병을 거울로 삼으면 바른 생각을 낼 수 있고, 우리의 불심을 예쁘게 단장할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석가족의 태자였던 시절에 세간의 질병과 괴로움을 보고 불쌍하고 가여운 마음을 일으키고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수행할 서원을 세워, 결국에는 불도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몸에 병이 생기지 않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부처님처럼 질병을 거울로 삼아서 나와 남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질병을 계기로 삼아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몸(身)으로, 입(口)으로, 뜻(意)으로 업을 짓게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몸과 말과 뜻을 잘 챙겨 나쁜 업을 짓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는 말 때문에 시끄러운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 많은 사회에서 말로 구업을 짓지 말아야 하겠는데 구업을 짓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들에게 말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은 나와 남이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막강한 수단이자, 우리의 업(業) 대부분을 만드는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단어를 선택해 어느 정도의 목소리로 하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폭언이나 나쁜 의도의 말은 종종 몰이해와 의심 그리고 분노를 낳습니다. 사람들이 이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은, 그들이 폭언이나 나쁜 의도의 말에 현혹된 까닭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항상 자비심 가득한 아름답고 진실한 말씀을 반복하셨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의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그 분은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할 것인지를 정확히 보여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말하는 방법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때마다 부처님께서 우리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실 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구업을 짓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른 사람과 한번도 싸운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때로 바보처럼 보여도 그러한 순수함이 거짓과 영악함으로 의미를 왜곡시켜 말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세간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칭찬과 상으로 자랍니다. 보살 단계에 머물러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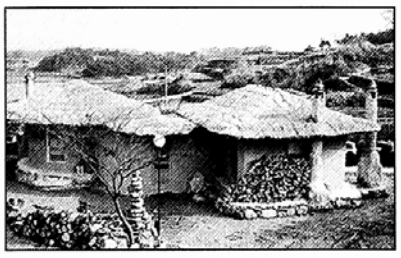
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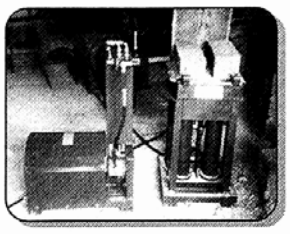
- 1922년 중국 강서성 生
- 1935년 중국 남경 서하산 대각사에서 출가
- 중국 서하율학원 · 초산불학원 수학
- 중국 남경 화장사 주지 역임
- 49년 대만으로 옴
- 76년 대만 불광산사 창건
- 서래사, 남천사, 남화사 등 북미 · 호주 · 아프리카 등에 1500여 개 사찰 건립
- 91년 국제불광회 조직, 총재로 선출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 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 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모델 A: ₩3,800,000
B: ₩4,300,000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황토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3)634-0223
팩스 : 063)34-1237

佛敎儀式(범음 · 범패) 학인모집

본대학 불교의식(범음 · 범패)교육원에서는 권위있는 연구, 교수진을 모시고 체계적인 교육으로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기본과정	도량석,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광세)다루는 법
중급과정	상주권공 대령관욕 권공, 영반 지장청 각 시식 다비식 화청등, 사물(천수북, 법성게북, 장엄염불 요잡 진언쇠줄)
연구반	신중작법 다게작법 도량게 천수바라, 나비춤, 사다라니바라, 오고양작법 등

◆원서접수 : 2000년 8월 10일 ~ 2000년 8월 23일 까지
◆개강일시 : 2000년 8월 24일 목요일 오후 3시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1통, 주민등록등본1통
※ 본대학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후 수료증 수여,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 승녀, 재가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 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성심껏 지도함.
※ 본교 휴학생은 이번학기에 수강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843번지
대한불교 원효종 총본산 금수사 대학사무국
☎ (051) 442-5952, 467-3316

海東元曉佛敎魚山儀式大學

전통있는 불교포교의 명문학당
부산불교교육대학
하반기 신입생 모집

교리반(주/야) · 수화반

1982년 설립된 본 대학은 교계의 대덕스님, 교수, 법사님을 모신 권위있는 교수진, 체계적이고 알기 쉬운 교육, 충만한 면학열로 금학년도 교리반, 수화반 후반기 신입생을 모집하오니 뜻있는 불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구 분	제16기 교리반 (주간 · 야간)	제7기 수화반
입학자격	불교를 체계적이고 올바르게 배우고 싶은분	수화를 바르게 알고 싶은 분
교육기간	6개월 (2000년 9월 ~ 2001년 2월)	6개월(2000년 9월 ~2001년 2월)
교육일시	주간: 매주 목, 금요일 오후 2시~4시 야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9시	매주 목,금요일 오후 7시~9시
원서접수	2000년 7월 21일 ~ 2000년 9월 5일	
구비서류	입학원서 1통(소정양식), 반 명함판 사진 2매	
전형방법	서 류 전 형	
입 학 식	주 간 : 2000년 9월7일(목)오후2시 야 간 : 2000년 9월5일(화)오후7시	2000년 9월 7일(목) 오후 7시
등 록 금	입학금 : 30,000원 (교재제공) 수업료 : (주)월30,000원/(야)월20,000원	입학금 : 20,000원 (교재제공) 수업료 : 월 10,000원
특 전	수료자는 포교사과정에 우선 입학할 수 있음	수화 통역사 자격시험에 추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 교무실 ☎ 051)867-9944,9946 으로 문의 바랍니다.

부산불교교육대학



◇대만 불광산사에서 1995년 개최된 '국제선불교학술회의'를 마치고 세계 각국의 이름난 불교지도자·학자들과 자리를 함께한 성운스님(맨 앞줄 정중앙).

던 석가모니가 진정한 부처님으로 거듭 날 수 있었던 것도 좋은 언어 습관에서 비롯됐어요. 따라서 우리는 좋은 말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간에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불법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널리 알려질 수 있습니다. 말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절에 다니고 염주를 걸고 법명을 받았다고 해서 '불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진실한 불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꼭 실천으로 옮겨야 할 도리는 무엇인지요?

▲대부분의 불교학자들은 불교를 연구하고 이론화시키는 데 열중하고 있을 뿐 실제적인 수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교학자가 아니더라도, 불자라는 사람들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다며, 채식을 하고 소원을 비는 것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자신의 인격과 도덕을 높이는 데는 소홀히 하고 우리의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불교와 직접적인 인연을 맺고 수행하는 수행자들도 자신의 수행에만 급급한 나머지, 산 속에 살거나 혹은 개인의 수행처에 머물면서 세상의 일은 '나 몰라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같은 모습은, 요즘 유행하는 '나만 좋다면 못할 게 뭐 있냐' 하는 말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사회 혼란은 바로 이 짧은 한 마디에서 시작되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러나 2500여 년 전에 우주의 상호의존의 연기법을 찾으신 부처님께서는 "자기의 편안함만을 추구하지 말고 중생의 아픔을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기만을 원할 뿐이지 자기의 안락을 추구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를 따르기는 하지만, 만약 불타는 집과도 같은 고해의 바다 속에 우리 자신이 빠져 헤매고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어찌 안일함에만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좋아한다 해서 꼭 좋은 것이 아니며, 싫다 해서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실생활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이란 복잡하고 현란한 교리보다는 현재의 생활을 중시하고, 자신의 이익보다는 남을 배려하고 남의 아픔에 관심을 갖고 자리이타(自利利他)하는 생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다 보면 우리의 몸도 마음도 청정하게 정화되어 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평소 생활하는데 있어 '가치'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열반의 세계에 이르는 실천 수행

"여러사람의 이익 먼저 생각"

"너도나도 불국토 자원봉사자"

법인 육바라밀 중 으뜸이 '보시'입니다. 스님께서는 불자들에게 자원봉사를 많이 하라고 늘 말씀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자원봉사는 우리 현대인들이 공덕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보시행이 되겠지요.

▲자원봉사의 즐거움은 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고 또 공덕을 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크게 깨달은 대덕들은 한결같이 "불가의 기둥이 되려면 먼저 중생의 소와 말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간의 삶에서 유용한 지식과 총명함보다 자비심을 강조하셨습니다. 수많은 경전을 읽어보더라도, 선대의 스님들은 모두 이 같은 가르침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설봉 선사는 동산 스님 아래서 공양주를 지냈고, 경제 스님은 위산 스님 아래서 쌀을 관리하는 소임을 맡았습니다. 임제 스님은 소나무를 키웠고, 양산 스님은 소를 길렀습니다. 동산 스님은 차를 심었고, 운문 스님은 쌀을 이고 날랐습니다.

비단 이 뿐만이 아닙니다. 관세음보살은 '관세음보살'이라는 염불소리를 좇아가 고난으로부터 중생을 구해 주시는 자원봉사자이시며, 지옥을 찾는 중생이 없을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고 말한 지장보살은 지옥에서의 자원봉사자입니다. 또 아미타부처님은 극락정토에 온갖 칠보의 나무를 키우는 자원봉사자라 할 수 있어요.

이런 불보살들의 가피를 받고 있는 우리들이 어찌 힘든 것을 마다하고 편안함만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삼보에 봉사하는 것 외에도 불보살들의 지칠 줄 모르는 중생제도의 정신을 본받아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는 자원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는 자비심과 이기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깨달음은 궁극적으로 자비심을 갖춘 사람의 것"이라는 말로써, 그들이 남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유한하다는 걸 알면서도 무한정으로 살 줄 알고 욕심을 부리며 많은 물질을 자기 곁에 쌓아두려고 합니다. 설사 불자들이라도 마음공부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일', 또 '나중에'하고 미뤄 버립니다.

금생에는 어렵다고 지레 포기하고 "내생에나 열심히 닦아 성불하겠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진정 중요하고 당장 해야할 일이 마음닦는 수행정진 아닐까요.

▲인생이란 우주 속에 이어지는 생명을 창조해 나아가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이지, 좀더 오래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 이슬은 쉽게 자취를 감추지만 대지를 윤택하게 하고, 겨울 햇살은 짧지만 얼음과 서리를 녹여 내리게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아직 살아 있는 때를 활용해서 노력하고 생명의 불꽃을 태워서 찬란한 빛으로 후세 사람들을 밝혀주어야 합니다.

옛 선사들은 입멸하는 순간까지 커다란 원력으로 정진하였으며, 최후의 한 순간까지도 헛되이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안 스님은 염불소리 속에서 극락왕생하셨고, 현장 스님은 붓을 들고 경전을 번역하시다가 입적하셨습니다.

죽음으로 목숨을 다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인생의 마지막 같지만 실은 모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삶을 마감할 때, 우리들의 의식과 몸은 비록 썩어서 흐트러지지만 심식(心識)은 업력을 따라서 돌고 돕니다. 우리들 범부들은 시작을 알 수 없는 겁(劫)을 거쳐서 수없이 죽고 태어나면서 혹은 말이나 소로 혹은 아귀를 거치면서 잠시라도 쉬어 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지함으로 인해 죽이고 훔치고, 사음과 거짓 등 온갖 죄업을 저지르니 현재의 생(生)에서 불안한 마음을 가눌 길 없고 다음 생에서도 물론 괴로운 업보를 받아야 합니다.

불성은 사람마다 본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밖에서 구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생의 안락과 복덕을 멀리서 구할 필요도 없고, 불보살님이 나타나서 구해주기를 바랄 것도 없습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자신이 본래 갖추고 있는 불성을 계발하는 노력을 해야 하며, 삼세(三世) 부처님의 화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달리는 마라톤 주자의 정신을 배워서 금생(今生, 지금의 삶)이라는 끊임없는 길을 달리며 나와 남을 제도할 수 있는 보살이 되어야 합니다. 언젠가 영원히 쉬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어째서 지금 정진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까?

정리=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허주스님의 스님이야기

■법현 스님

요즘같이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시대에 살면 절집도 시류와 무관할 수는 없는 법이지만 그래도 마지막 보루가 있다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수행자의 모습 아닐까.

중생은 욕망으로 살고 보살은 원력으로 사는 것이라는데 오욕락(五欲樂)을 추구하며 사는 우리네 인생은 변화무쌍할 수밖에 없다. 하늘 한 번 제대로 쳐다 볼 여유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은 늘 피곤하고 고단하다. 그 피곤하고 고단한 삶이 추구하는 것이 돈 쓰고 돈 버는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니 말이다. 그것이 세상사 이치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도시에 사는 나 자신도 바쁘게 사는 것 같은데 저녁이면 왠지 허탈한 감정을 떨쳐낼 수가 없다. 그래도 산에 있을 때는 하루 세끼 밥만 축내는 밥벌레 같은 생각이 들어도 하루하루가 넉넉한 느낌이었는데….

수행자의 삶은 원력의 삶이다. 원력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거창한 구호도 아니요, 이타적인 표어도 아니다. 그저 묵묵히 깊은 강줄기와 같이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흐름을 유지하는 것. 그 어떤 상황

초발심 그대로의 모습

아픈 무릎 좋아졌는지

에서도 변하지 않고 도도한 흐름을 깨지 않는 그것이 원력이 아닐까.

수행이란 글자 그대로 행실을 바로 닦는 것인데, 외침과 구호는 많은데 보여지는 행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법현스님에게선 구도자의 날카로운 예지는 보이지 않으나 마음이 푹 쉬어서 산골 중 냄새가 폭폭 난다. 그저 결제가 되면 안거에 들어가 정진하고 해제가 되면 제방 기도처를 찾는다. 추운 겨울이건 요즘 같은 찜통 더위건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와 정진을 쉬지 않는다. 그렇다고 어디 주지 소임을 살았다던가 암자 원주자리 한 번 살아본 적이 없다. 꼭 이타적인 회향만이 가치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 무엇인가. 묵묵히 자기 수행에 열심인 사람을 소승이라, 이기적이라 매도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지난해 늦게 발심을 해서 하안거에 들어갔었다. 뒷날 가까운 사형에게 들으니 법현스님이 나를 많이 찾았다고 한다. 집 나간 탕아가 돌아왔다고 생각해서일까, 아니면 사판(事判)으로 끝날 것 같던 놈이 그래도 여근(餘根)이 있어서 선방 문고리라도 잡은 것이 안심이 되어서 그런지 25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찾은 적이 없었는데 몇 번이나 통화를 시도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많이도 부끄러웠다. 그의 얼굴을 보면 바위라도 깨고 그 속에 숨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다.

누군가 말했다. 중은 좌복 위에 앉을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사판은 중으로서 가장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그저 먹물 옷의 무게를 견뎌내며 오매불망 참구(參究)에만 힘쓸 때 그게 출가인의 참모습이라고. 그 참모습이 독각(獨覺)이라 매도되더라도 좌복 위에서 일생을 회향할 수 있다면 중노릇 잘하고 간 거라고….

또 누군가 말했다. 곧게 뻗은 나무는 쓸 만한 목재로 잘려나가고 산을 지키는 것은 온통 잡목뿐이듯이, 중노릇 좀 할 만하다 생각되는 이들은 죄다 기어나간다고. 비약된 표현인지는 몰라도 얼굴 반반하고 영리하게 생긴 외모로는 한 생각 접고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리라.

헌데 법현스님은 초발심 그대로의 모습이다. 적어도 먼발치서 바라보는 나에게는 그렇다. '벼룩 세 말은 몰고 갈 수 있어도 혈연 끊고 입산한 중 하나는 못 몰고 간다'는 어느 노스님의 말씀처럼 법현스님은 그야말로 중고집으로 늘 자기검열에 시달리면서 행각(行脚)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런데 법현스님이 작년 산행을 하다 무릎 연골을 다쳐 심한 고생을 하였는데



그림·문병성

그나마 정진하던 선원에서 퇴방 조치를 당했다. 그는 돈이 없다. 어디 소임 한 번 살아본 적이 없기에 소액의 돈도 없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불편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모양이다. 반평생 넘게 면벽으로 일관했던 그이가 돈의 기능을 인정한 것이다. 급한 치료 때문이었겠지만 세속의 인간관계에서만 돈이 위력적인 게 아니라 절집도 예외가 아닌 상황을 그가 늦게서야 깨닫기 시작했다. 스님에게서 생전 들어보지 못했던, 작은 토굴이라도 있었으면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 아팠다.

손바닥에 쥔 모래알 같이 그의 가슴속에서 무엇이 빠져나갔는지는 몰라도 그 꽃꽃한 허리며 나이에 걸맞지 않은 해맑은 얼굴이 오래 기억됐으면 좋겠다.

엊그제 전화가 왔다.

"한 철만 살고 말 거야? 기왕에 발을 디뎠으면 계속해서 몇 철은 더 견뎌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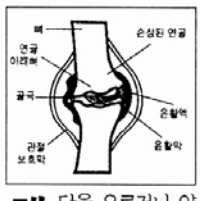
나에 대한 실망을 이렇게 표현한 전화 음성에 봄 햇살 같은 따스함이 전해진다.

법납 30년 세속 나이 50이 되어서 평생 면벽만 했던 과보로 건강이 안좋은 모양이다. 치아도 많이 상했다고 한다.

암자 살림하는 사제 스님에게 상한 이빨을 보여주며 어렵게 치료비를 부탁하는 그의 모습을 떠올리니 작금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 〈끝〉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현대불교신문사 지사 · 지국 안내
부산지사 051) 634-5114
광주지사 062) 375-9986
대구지사 053) 983-9222
충청지사 042) 527-0559
울산지사 051) 752-0851
강릉지사 033) 643-5599
제주지사 016) 695-6885
진주지사 016) 585-2120
안산지국 031) 494-8859
영주지국 054) 674-1199
목포지국 061) 279-3788
밀양지국 055) 353-1196
고성지국 055) 672-0078
일본지사 031) 713-5111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골다공증 관절염 류마티스
'물렀거라, 상어연골정제로 완전해방'
퇴행성 류마티스성 통풍성 관절염 자연추출미생물 이온화 '코랄샤크골드' 복용 1개월만에 획연한 화제만발



계단을 오르거나 약간의 활동만으로도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관절염) 관절이 뻣뻣해지면서 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퇴행성 관절염), 여기저기 곳곳이 붓고 아프고 힘들며 몸이 고이는 경우(류마티스성 관절염), 엄지발가락이나 팔꿈치가 붓고 움직이기 힘든 경우(통풍성 관절염), 이 모든 증상으로부터 완전해방될 수 있는 건강식품이 수입돼 화제다.

최근 뉴질랜드에서 수십년간에 걸친 연구결과 끝에 개발된 '상어연골정제' 상어에서 추출된 특수갈습과 마그네슘, 세레늄 등 기타 자연에서 추출된 미생물을 복합이온화하여 인체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원리로 이루어진 '상어연골정'은 닮아 없어지는 물렁뼈가 생성되고 골이 빈 곳에 인이 채워져 골다공증을 잡아주며 몸에 나쁜 물이나 균을 잡아 정상인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탁월허 세계적으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코랄샤크골드는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던 관절염, 류마티스, 통풍, 퇴행성 환자들에게 희소식으로 여겨지는 '상어연골정'은 국내 삼일양행(02-790-8200)에서 독점 시판하고 있으며 부작용 없이 1개월 복용부터 확실한 효과가 검증되고 있어 연일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코랄샤크골드)

한달분 22만원,
두달분 40만원

IMF다이어트 인기급등

만인들의 희소식. 최근 삼일양행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가격을 공장도 가격으로 인하하였고 또한 효과를 최대한 증대시킨 것이 바로 IMF 다이어트이다.

이 다이어트의 특징은 한방에서 추출된 특수성분이 함유되어 부작용없이 자연스럽게 몸에 흡수된다는 것. 현대인들의 운동부족과 영양섭취로 인하여 누적되는 지방분과 기존의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식전복용이 더욱 효과적이며 단기간 감소요법 보다는 꾸준히 몸에 무리가 가지않는 효과를 가지며 3-4개월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남성과 여성, 출가를 원하는 여성 출산후 오는 비만 등 많은 분들로부터 희망을 주는 다이어트로 거듭태어났다고 한다. 비만인들의 희소식은 틀림없으며 한방성분의 10여가지 조화가 균형을 잡는 비법이라고 한다. 삼일양행측은 IMF 졸업할 때까지 현재가격을 고수하겠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IMF다이어트
1개월분 88,000원
■문의 : 삼일양행
서울(02)790-8200

신선함을 사릅들
연화거지천 (連花巨知布)

우리곁에 다녀간 부처님 성철대선사께서 일생동안 입고 계셨던 누더기 두루마기를 응용하여 거지천으로 짰습니다.
거지천이란? 콜거(巨), 알지(知), 베천(布)으로 크게 아신분이 즐겨 입었던 베옷이란 뜻입니다. 그 천 중간중간에 연꽃무늬(히란야: 맑은 기가 나오는 문양: 이재석님 특허품)을 넣어 우리도 누더기 옷을 입고 열심히 수행하여 연꽃을 크게 피우자는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거지천은 지리산 청학동 주변 대나무로 숲을 만들어 염색을 하였습니다.

대나무숯 염색천이란?

❶환원 보조작용 : 식품이나 인체세포의 산화와 노화를 방지하고 재활성화 한다.
❷정화·여과작용 : 물과 흙, 생활 환경을 깨끗하게 한다.
❸에너지 상승 정상화 작용 : 자장이나 전위, 기, 에너지를 높이고 비정상 상태를 고친다.
❹해독 탈취작용 : 인체에 해로운 독이나 냄새를 제거해 준다.
❺흡습, 흡착, 방중작용 : 바퀴벌레, 흰개미 등 벌레가 없어진다.
❻가상 에너지를 확실하게 개선하는 작용
❼원적외선 방사율 90%, 항균성 89.9%

◈ 이 숯을 원단에 직접 입혀서 만든 염색천이므로 항상 몸에 착용할 수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다.

※ 법복 1벌 : 200,000원, 조끼 : 60,000원
원단 1EA (4.8inch×3.5YD) : 70,000원 단체주문 할인

◆취급점 및 취급인 모집◆

자연염색연구원
경남 하동군 청암면 중이리 1308-2(구 십곡분교)
전화 : 055)884-5840, 5944 휴대폰 : 011)569-5844



바로보인 환단고기 1
대원 문재현 역저

시공이 나뉘기 이전인 태초의 모습과
우주 탄생의 비밀을 최초로 밝히다!

『환단고기』는 세계를 다스린 웅장한 고대사의 주인이었던 우리의 고대 역사가 담겨있는 역사책이다 또한 역사책이라고는 하나 태초로부터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세계에서도 유일무이한 책이다

이를 통하여 잃어버린 우리의 광활한 민족사를 찾고 황폐해진 인류정신을 다시 꽃피우고자 하는 것이 『환단고기』를 오늘에 맞게끔 되살려 『바로보인 환단고기』로 펴내는 뜻이다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 4권 중 1권은 민족정신의 정수이자 우주의 영원한 역사인 『환단고기』의 삼신일체사상을 총정리하여 출간하였다 이어서 2 3권에 환국에서 단군조선에 이르는 고대 역사와 북부여 고구려 발해 고려의 역사를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시대순으로 정리하여 출간할 예정이며 4권에서는 왜곡된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글을 실어 출간할 예정이다

특히 2 3권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여러 역사 문헌을 근거하여 『환단고기』의 기록을 부인할 수 없게끔 최선을 다하였다

『환단고기』가 전하는 선조의 지혜에 가만히 귀기울여 보라
정신과 물질이 나뉘기 전 우주의 모습과 인류 정신의 시조였던 조상의 진면목에서 태초로부터 고대가 오늘에 살아 숨쉬는 당신의 실존을 확인할 것이다

☞ 바로보인의 책들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바로보인 금강경
바로보인 우운관 바로보인 신심명
바로보인 벽암록 영원한 현실
바로보인 천부경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

바로보인
○ http://www.zenparadise.com ☎ 597-2460

禪의 향기 그윽한 백두대간의 '사리'

장성봉→희양산→이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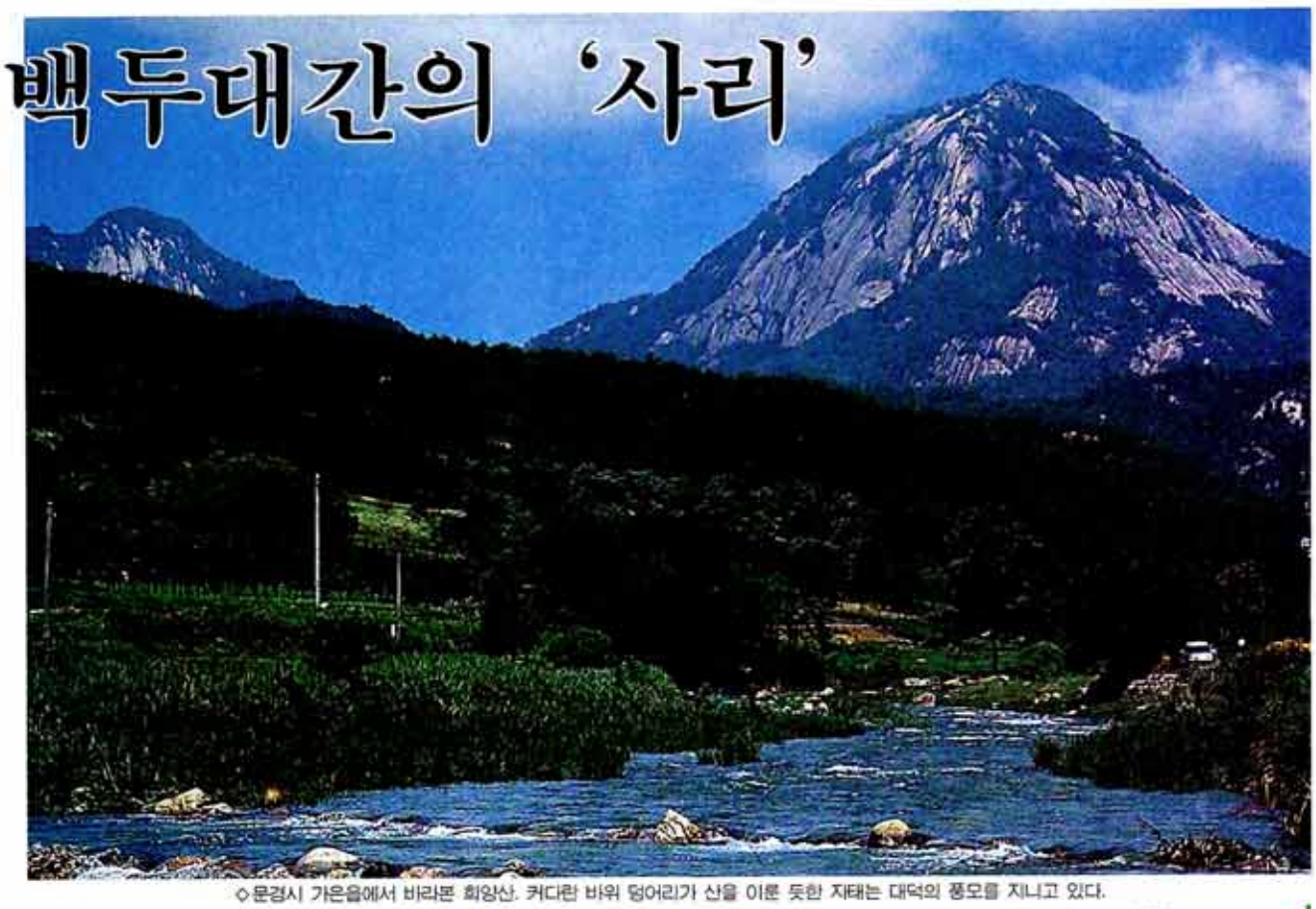
백두대간 속으로 〈19〉

뜻밖의 즐거움에 여행의 묘미가 있듯, 예측불허의 불순한 날씨는 여름 산행의 매력이기도 하다.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짙은 안개가 만들어내는 적요 속에 스미듯 다가오는 산과의 일체감. 속수무책으로 내리꽂히는 소나기에 흠뻑 젖고서야 맛보는 역설적 안도감. 땀구멍마저 말려버릴 것처럼 작렬하는 태양 아래서, 체념에 제압당한 인내를 보고서야 느끼는 자유. 이렇듯, 감성의 굳은살 한 켜만 벗겨내도 자연과의 교감은 부챗살을 편다.

나보다 먼저 비에 젖는 '서 있는 키 큰 형제들'(인디언들은 나무를 이렇게 부른다)을 스쳐지나는 여름 산길은, 한지로 걸러진 간접 조명같은 은밀함으로 조금씩 조금씩 열어가야 한다. 그렇게 열리는 길은, 순간 순간이 최초의 길이고 걸음 걸음이 생애 최초의 내딛음이다.




◇희양산의 남쪽 기슭에 자리잡은 봉암사.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禪 도량이다.


◇문경시 가은읍에서 바라본 희양산.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산을 이룬 듯한 자태는 대덕의 풍모를 지니고 있다.

봉암사 절 아니면 도적 소굴 될 명당
승풍 쇄신 싹 틔운 한국 선불교 요람

장성봉, 백두대간이라는 지리 인식의 개념틀이 없었더라면 계속 숨어 지냈을 산인데, 때마침 피어난 산나리의 진홍빛 고운 자태가 그 순수함을 대변하는 듯하다. 드문드문 소나무 아래 진달래 철쭉 무성한 초입과 달리 정상 가까이는 안정된 참나무 숲으로 천이가 이루어져 있다. 맑은 날이면 과노라미로 결쳐지는 악희봉에서부터 희양산, 대화산의 자태가 한눈에 들어온다.

장성봉을 지나면서 경북 문경시와 충북 괴산군의 경계를 이루는 백두대간은 북쪽으로 곧장 내달리다 악희봉에서는 동남쪽으로 심하게 구부러지며 은치(540m)에서 잠시 허리를 낮추고 숨을 고른다. 특히 이 구간의 동남쪽 기슭에서 시작하여 봉암사에 이르는 20Km 남짓한 계곡이 바로 그 유명한 '봉암용곡'이다.

은치에서 시작되는 구왕봉(898m) 오름길은 제법 가파르다. 구왕봉은 달리 구룡봉으로도 불렸는데, 봉암사 터를 잡기 위해 그 자리에 있던 연못을 메울 때 용이 살고 있어서 지증대사가 신통력으로 쫓았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봉암사에서는 이 봉우리를 날개봉이라고도 부른다. 지도를 놓고 그 형세를 살피면, 희양산을 몸통으로 상아 봉암사로 날아드는 한 마리 새의 오른쪽 날개와 흡사하다.

구왕봉에서 바라보는 희양산(999.1m)의 자태는 어설픈 형용을 허락하지 않을 것 같은 위엄을 지니고 있다. 거침없이 흘러내리는 기슭 남쪽 끝에 아스라이 자리잡은 봉암사는 심산(深山)이라는 말에 깊이를 더해주고 있고, 군더더기 없이 둥싯 솟은 바위봉우리는 산의 물리적 높이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듯한 모습으로 '그냥' 거기에 '있을' 뿐이다. 그러나, 언어로 존재의 집을 지어보겠다는 허튼 수작을 일로 삼은 이상, 한마디 일러보겠다는 욕심마저 접을 수는 없겠다.

감히 말한다. 희양산은 백두대간의 '사리'다.

신라 헌강왕 5년(879) 지증 도현(智證道憲, 824~882) 국사가 창건한 봉암사. 오늘날 희양산문으로 불리는, 9산 선문 중 하나인 이 절을 기억함에 있어서 지증 국사와 아울러 성철 스님과의 인연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 두 스님과 봉암사의 인연사가 한국불교사에 드리운 자취가 너무도 크기 때문이다.

먼저 신라의 대문장가 최치원이 지은 〈지증대사비문〉이 전하는 창건의 내력을 살펴본다.

심충(沈忠)이라는 사람이 지증 국사를 찾아가 '봉암용곡'을 희사하며 절 짓기를 간청했다. 이에 지증 국사는 나무꾼이 다니는 길을 따라 가면서 산세를 두루 살폈다. 이를 최치원은 이렇게 그리고 있다.

"산이 사방에 병풍처럼 둘러 있으니 마치 봉황이 날개로 구름을 헤치며 오르는 듯하고, 백겁 띠처럼 흐르는 계곡물은 붉 없는 용의 허리가 뚫을 덮은 것과 같다. 이에 (지증 국사가) 감탄조로 탄식하며 말하기를 '어찌 하늘이 내린 땅이라 하지 않겠는가. 스님들의 거처가 되지 않으면 도적의 소굴이 될 것이다." (옮긴 우리말은 지관 스님의 역주를 바탕으로 하였음)

희양산문은 이렇게 열렸다. 그러나 후삼국의 격변기에 폐허가 되었고 935년에 정진 긍양(靜眞兢讓, 878~956)에 의해 중창되었으나, 성리학이 지배 이데오로기로 부상한 조선에 이르러서는 부침을 거듭하며 겨우 명맥만을 유지하게 된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 선불교를 대표하는 사찰로, 1982년 이후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했음에도 오히려 한국불교의 자랑으로 받들어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는 성철 스님을 떠올려야 한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만신창이가 된 한국불교는 1947년 겨울, 이른바 '봉암사 결사'로 불리는 일대 사건을 통해 혁신의 싹을 움틔운다. 성철 스님의 주도로 청담, 자운, 월산, 혜암, 법전 등의 스님들이 "부처님 법답게 살자"는 극히 간명한 결사의 정신으로 승풍의 쇄신을 시작한 것이다. 이로써 천년 저편의 개산 정신이 오늘로 이어지니, 비로소 1600년 한국 불교의 역사는 장강을 이루게 된 것이다.

오늘날 삼보에 대한 예로 정착된 '삼배'나, 스님들의 복식 특히 붉은 가사가 괴색으로 바뀐 것도 이 때의 일이니, 오늘의 한국 불교에 끼친 〈봉암사 결사〉의 영향력은 무겁고도 크다고 하겠다.

실로 희양산은 '백두대간의 사리'라는 표현에 걸맞는 산이다. 또한 희양산은 봉암사가 거기에 있음으로써 우리 모두의 정신적 여백이 된다.(매년 '부처님 오신 날'에는 누구에게나 발길을 허용한다.)

희양산을 벗어난 백두대간은 백화산에 이르기까지는 휘어돌고 오르내리기를 거듭하지만, 백화산에서부터 이화령까지는 경원 같은 분위기에서 산길 걷기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마음껏 허파에 건 먼지나 털어낼 일이다.

글=윤제학 기자
사진=손재식(사진작가)

두통, 신경통, 관절염, 위장병, 고혈압, 수족냉증, 사십견…

기적처럼 낫는다!

'자기의 병 자기가 고치는' 기적의 대체의학

심천 사혈요법


심천 박남희 선생
15년 전 임신수양하면서 인체에 대한 탐구 끝에 심천사혈요법을 창안했으며, 10여년 긴의 임상경험을 통해 그 놀라운 치료 효과를 인정받고 있다

죽은 피(어혈)만 빼주면 모든 병이 물러간다!

인체의 각 장기와 세포들에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병원균이 들어오면 싸워 물리치는 '피'가 건강하기만 하면 우리 몸은 늙을 이유도, 아플 이유도 없다. 그러나 신장이나 간기능이 떨어지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중금속이 누적되면 생기는 어혈(죽은 피) 때문에 사람은 병들게 되는 것이다.

'심천 사혈요법'은 바로 이 어혈을 직접적으로 빼내어 병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안전하고도 가장 확실한 자연요법이다.

각종 만성병, 난치병까지도 낫게 하는 '심천 사혈요법'의 그 놀라운 효과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탈모 변비 근육통 무좀 감기 요실금 생리통 간질 안과 질환
피부과 질환 협심증 당뇨병 우울증 간염 지방간 통풍 지혈압

심천 박남희 지음 | 값 8,000원 | ※지금 시청에 있습니다

정신세계사 733-3135 www.mindvision.org

天物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率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중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秘也(연년 불로 선경악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용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5300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 FAX: (031)470-3116

칠석, 칠성불 원하며 마음 밝히는 날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의미

문 칠석이라고 하면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일년에 한 번 만나는 날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싶고, 절에서는 왜 칠석을 큰 행사로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답 견우와 직녀가 일년에 한 번씩 만나지 못해서 애를 쓴다고, 일년에 한 번씩 만난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을 일년에 한 번이라 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는 일년이지만 그 별성에서 생각할 때는 일초, 하루를 뜻합니다. 여기에서 그 수명이 일년이면 거기에서는, 즉 말하자면 하루라고 볼 수 있겠죠. 비유를 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년, 하루를 비유해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하루 24시간 동안에 한 번 만나는 것도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해야만이 만나는 것이 됩니다. 하루의 만남이 말입니다. 그러면 일체 사생 모두가, 천차만별로 되어 있는 만물만생이 모두 다, 견우 직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즉 하늘과 땅이 있으면 인간이 있듯이 모두가 이렇게 결부되고 인연이 돼야 생산이 된다는 뜻입니다. 칠석(七夕)이다 하는 것은 사대(四大)로 된 몸 자체와 과거심, 미래심, 현재심의 마음 자체를 '칠(七)'이라고 말하고, '석(夕)'은 그 마음이 깊은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밝힌다' 그러면 예를 들어

마음과 마음 인연돼
만물 생산되는 도리
견우와 직녀에 비유

서, 내가 형성된 날이나 죽는 날을 그렇게 쳐도 되고, 아침 저녁이라고 쳐도 됩니다. 아침이나 저녁이나, 불을 켤 때나 끌 때나, 이런 것이 바로 과거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듯이, 아침에 불 켜는 그 마음이나 저녁에 불을 끄는 마음이나 동결해서 같이 마음을 밝히려는 뜻입니다.

이것은 깨달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아침이다 한다면 아침도 현재 내 마음 속에, 저녁도 내 마음 속에…, 내가 항상 이런 말을 하죠. 전자와 전자가 한데 합쳐져야 불이 들어온다구요. 그러니 아침이나 저녁이나 없는 마음을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발견해서 밝히는 것이, 그래서 칠석이 칠성이 된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이 그 도리를 모르면 칠석이고, 그 도리를 알면 칠성입니다. 그래서 칠석날은 내 마음을 모아서, 즉 과거, 미래를 한데 합쳐서, 깨달음을 밝게 가져오는, 즉 광력을 자재로이 쓸 수 있는 그런 중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으로 견우니 직녀니 한 것은 모두가 인연이 없으면 생산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발전도 되어질 수가 없구요. 창조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깨달으면 칠성이 된다, 칠성 부처님이 된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칠성 부처님이 명을 관장하고 또는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 소임을 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깨달은 사람이라야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칠석날은 칠성이 되기를 원하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밝힌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림 · 최주현

주인공이 정말로 있는 이유

문 저는 선원에 나가지는 않지만 무슨 일이든지 주인공에 관을 하라고 어머니를 통해서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인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인공이 정말로 있다면 그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답 그러면 먼저 그 대답을 주인공과 중생으로서의 나에 맞추어 봅시다. 먼저 뿌리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주인공은 우리의 근거가 됩니다. 주인공이 없이는 우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치 땅 속에 묻힌 뿌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주인공은 우리의 지각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서 있는 것을 보고서 우리는 그 나무에 뿌리가 있다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내가 있다는 이것이 바로 주인공이 있다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으니까 그냥 있다 싶겠지만 우리는 인연없이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그 점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 즉 마음 자체는 내놓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빛깔도 없습니다. 허공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겁니다. 지금 학생이 질문하는 것도 주인공이 없으면 말을 못해요. 그것으로 입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다스리려 이끌고 다니는 참자기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성입니다. 자성불이 공해서 돌아가니 주인공이에요. 고정됨이 하나도 없이 돌아가니까요. 그렇게 붙잡을 것이 없으면서 여전히 말을 하게 하고 이 생각저 생각 나게 하고, 이것 저것 보게 하고, 이것 저것 듣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입증이 안됩니까?

우리에게 근본자리가 없으면은 생각을 낼 수가 없고, 생각을 낼 수가 없으면 목석이고, 몸을 움죽거릴 수가 없으면은 무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인공이란 바로 각자 여러분의 뿌리이며 말 그대로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인공이 없다면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해야 할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살아 있는

나를 다스리며 이끄는 참자기가 자성
인생은 참사람 되기위해 거치는 공장

것이라면 본래 주인공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자체가 주인공인 것입니다.

방생하는게 올바른 일인지요

문 삼보에 귀의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실천하고 싶은 불자입니다. 동네에 가까운 포교원에 다니다가 불교의 기초교리를 배우면서 우연히 현대불교신문을 알게되었고 인터넷을 통해서 스님도 뵙고 법문도 들을 수 있게 되어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포교원에 다니면서 한 달에 한번씩 물고기 방생을 하고 있는데 방생을 하게되면 물을 오염시키고 자연 생태계를 파괴시킨다는 뉴스를 자꾸 듣게 되면서 과연 방생을 하는 것이 올바른지 의문이 생겨 질문을 드립니다.

답 물에서 사는 생물들도 각층의 차원과 모습을 가지고 살아나갑니다.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모두가 주고 받으면서 서로 공식하고 공생하면서 공용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 동시에 자기가 돌고 있는 테두리를 정확하게 찾고 또 질서정연하게 살고 있습니다. 미꾸라지는 미꾸라지 노는 데에서 놀고, 게는 게 노는 데에서 놀고, 제각기 모두 자기 노는 데에서 논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방생을 한다고 하지만, 잡아다가 다시 놓아준 고기들이 제 집 찾아가느라고 허덕이다가 죽는 걸 보면 난 가끔 그 생각이 나요. 6·25 때 차에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죽고 다리가 부러져서 걷질 못하고 쓰러지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 기억이 떠오르면, 고기를 방생한다고 풀어 놓았을 때 제 집 찾아가느라고 애를 쓰는 것이 그와 같겠구나 하는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게? 사람들은 무심코 잡아다가 갖다 넣고 또 잡아다가 풀어 놓고 이러는데, 그건 그림자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생이란 물 속에 넣어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을 잃고 바깥에 내몰린 생명을 물에 넣어 주는 것도 방생이요, 든이 없어서 방을 얻지 못하고 거리로 나앉는 사람을 돕는 것도 방생이요, 먹지 못하고 굶는 사람에게 먹여 주는 것도 방생이요, 자신의 내면을 밀고 관(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웃에게 마음의 도리를 알려주는 것도 방생입니다. 어느 것 하나 방생 아닌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방생을 특별한 날로 정해 놓고 할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모든 인연 속에서 순간순간 돌 아니게 보고 툴 아니게 행을 하신다면 참다운 방생이 될 겁니다.

공부재료 많아 정신 못 차려요

문 공부재료가 너무 없는 것도 문제겠지만 한꺼번에 쏟아지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넋놓고 있을 수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군요. 스님 말씀을 들을 때면 어렵지 않게 거뜬히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은데 막상 현실에서 내 앞에 문제가 닥치면 정말 어렵습니다. 놓는다는 게 잘 되지가 않아요. 사실 놓는 게 무엇인지 아직 감이 잡히지도 않구요. 나름대로 놓는다고 열심히 놓고 있는데도 진전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거리가 많아서 생각만으로도 벌써부터 지칩니다. 그저 '고달프다'는 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마음공부를 해나가야 할 지 모르겠어요.

답 우리가 주인공이라 할 때 '주인이다' 하는 것은 에너지요, '공이다' 하는 것은 지금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화해서 돌아가는 여러분의 생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자체가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자기가 벌려 놓고, 자기가 행하고, 자기가 말썽 떨고, 자기가 울고 불고, 자기가 구덩이에 들어가 놓고 구덩이에서 나오려고 애를 쓰고 울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야할 길이란 그렇게 어렵거나, 크거나, 높은 것만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아주 단순하고, 쉽고, 빠른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잘 놓지 못한다고 생각이 난다 하더라도 '주인공, 당신만이 당신을 진실하게 믿게 할 수 있어. 오직 당신이 모든 것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할 수 있어.' 하고 무조건 놓을 수 있어야 해요. 놓으면 자유요 붙들면 고통인 것이니 그렇게 진실하게 믿고 항상 자신의 근본을 잊지 말고 생활하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든 주인공이 했다고 믿는다면 수행이고 공부지만, 어떤 일이든 내가 했다고 믿는다면 수행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경계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 일체를 그 자리에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당부합니다.

왜 살아야 합니까

문 지금 회사에서는 에너지절약이라는 미명 아래 30도가 넘어야 겨우 에어콘을 가동합니다. 피부로 느끼는 온도는 35도가 넘습니다. 그래도 땀흘리면서 묵묵히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왜 사는가 하는 질문을 어느 스님에게 여쭈었더니 스님 하시는 말씀이 "당신 때문에 산다" 하시길래 그 말을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갈월사 영탑(靈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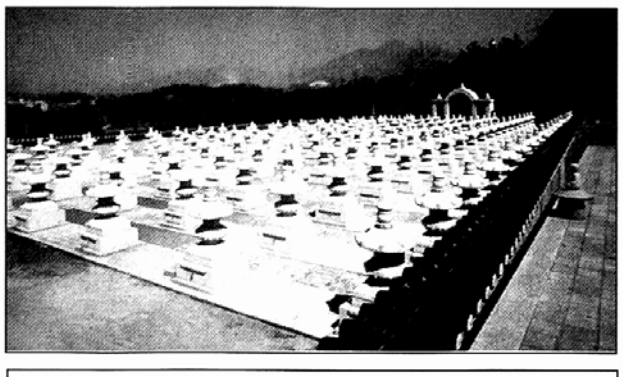
영탑허가번호
양평군 제2000-3호

후손들을 편하게 하고 근본 이체에 순응하며
자신의 육신에 대한 애착을 놓아 버리기 위해 생전에 자신의 영탑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자신과 후손들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입니다.

탑공원 설립의 의의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혼백을 자손과 모두 한마음안에 평안히 영생케하고자 하는 원리를 담고 갈월사영탑은 1999년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월사 경내에 주지 홍인스님께서 조성하신 가족영탑 입니다.
묘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 매장제도를 개선할수 있는 최상의 모델로 향후 우리나라 장례문화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조성된 영탑▶



갈월사 영탑 조성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직접땅에서 출토된 미륵부처님의 도량에 사방이 우거진 웅장한 숲속에 평화롭게 안치될 영탑은
영탑1기에 16구의 영가를 안치해 5대까지 지속적으로 반복 사용할 수 있으며
영탑을 이용 하시는 모든 회원과 불자님에게는 영가를 모셔오는 **시다림의 초제부터 7.7제와 49제까지의 모든 제례행사**를
무료로 주관해드리는 특전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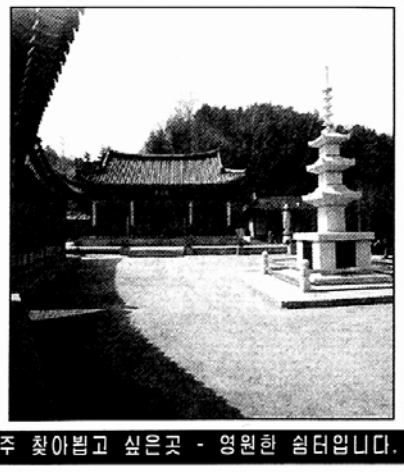
영탑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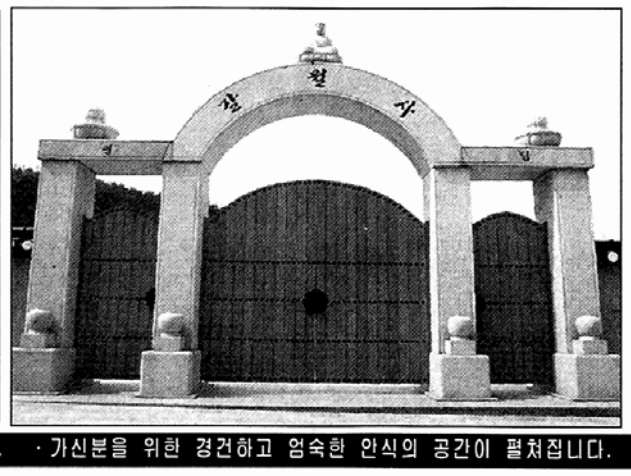
▶ 탑 하나만 세우면 **가족 대대로 영구적**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기존 묘지는 조상에 소홀하고 제사 지내기에 불편하나 탑안에 조상을 모두 모시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이 정성껏 모실 수 있습니다.
▶ 갈월사에서 **직접1년에 4회 합동천도제**를 올립니다.
▶ **내 조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관리합니다.
▶ **사통팔단한 교통망과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오실수 있습니다.

참다운 효도

물질이 원소로 구성된 이 몸은 본래 영원한 참 생명이 잠시 입고 벗어 버리는 옷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이 다하면 썩어 들어가 결국 지수화풍사대로 화하여 소멸하고 마는 이 육신을 모시는 것은 참으로 허망하며 한낱 애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상의 참 생명을 인도하고 모시는 것이 참다운 효도이며 공덕임을 알아야 합니다.

갈월사 경내▶





◀정문

탑은 영구히 사용합니다

영탑에는 조상분들을 화장하여 위패를 모시게 됩니다.
탑에는 3대까지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4대를 모실때는 1대를 꺼내어 소(燒 - 절에서 처리)하고 2대부터 4대를 모십니다.
다음은 2대를 소하고 3대로부터 5대를 모시게 됩니다. 3대가 지나면 조상들은 이미 몸을 받기때문에 안모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문 의: 031)774-7374, 771-9577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 월 사**
▶홈페이지: http://galwolsa.bz.co.kr

· 모시고 싶은곳, 자주자주 찾아뵙고 싶은곳 - 영원한 쉼터입니다. · 가신분을 위한 경건하고 엄숙한 안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 모시는 분을위한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 FAX: (031)470-3116

매사 놓고 돌아가야 여여히 할 수 있어

☞ 15면에서 계속

듣고 다음날부터 저는 '그래, 나는 우리 가족 때문에 산다고 하자.' 하고 마음먹고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 어디 그런가요.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끊임없이 이런 의문들이 밀려옵니다. 스님! 왜 삽니까? 무엇 때문에 삽니까? 죽으려고 삽니까? 죽지 못해서 삽니까? 남을 위해서 삽니까?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 삽니까? "참나"를 위해서 입니까?

답 누구나 아는 것처럼 인생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 우리는 고통을 느끼지 않을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은 짧은 순간일 뿐이고 기쁘고 좋다고 하는 그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동전의 뒷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유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듯이 산다는 것은 부자유하고 그나마도 결국은 죽음이라는, 아무도 원치 않는 무(無)로 돌아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고통이 집착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아시고 그 집착을 멸하여 도에 이르게 하시는 사성제를 설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사시면서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면서 나쁜 일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아이구, 왜 이런가 괴롭다, 나만 이런가.' 하시며 한탄과 낙담에 빠지기도 하시죠? 물론 세상에는 하나도 가질 것이 없지만, 자세히 알고 보면 하나도 버릴 것 또한 없습니다. 모두가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나를 진화시키기 위해서 내 근본에서 가지고 온 공부 재료죠. 심지어는 망상조차도, 망상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참 지혜를 알 수 있을 겁니까? 고통을 몰랐다면 어떻게 참 기쁨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것도 그냥 우리를 제대로 된 사람을 만들기 위한 재료일 뿐이지요. 이 중(中) 세계는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참사람을 만드는 공장 말입니다.

우선 당장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지혜롭게 생각이 안 나고 그러니까 다 고통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고통을 느끼게 하는 근본 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간다는 것을 그냥 믿으시고, 그 젖줄을 믿고 그것만 쥐고 '너만이 먹여 살릴 수가 있고 너만이 해결할 수가 있고 너만이 닥친 이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지혜가 나오게 할 수도 있다' 하면서 모든 걸 거기다, 일거수 일투족을 거기다 다 놓을 때 비로소 고통도 고통이 아니며 기쁨도 기쁨이 아니라 그냥 이대로가 진리의 한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그 본의도 모든 것을 근본을 의지해서 믿고 실천해 나가는 그 속에서 체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문 저는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주위에서 너는 커서 훌륭한 사람이 꼭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답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과거를 보러가는 길에 주막에 들렀는데 어느 스님이 백지를 보고 있더래요. 그런데 과거보러 가는 사람이 옆에서 그걸 보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냥 백지만 보고 앉았으니까요. 그래서 "아니, 노스님은 어째서 백지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도 볼 게 없는 백지를 왜 보십니까?" 하니까, 그 노스님이 하시는 소리가 "자네도 백지를 볼 줄 알아야 과거를 볼 수 있네."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뿐만 아닐세. 백성을 제도하는 데도 역시 백지를 볼 줄 알아야 제도를 할 수 있네."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물은 사람은 그 말씀의 뜻을 깊이 생각하여 그 도리를 터득하고 후에 과거를 봐서 어사 박문수가 되었더랍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아무리 책을 보고 남의 말을 듣고 지식적으로 머리에 채워 넣고 그거를 때에 따라서는 자신의 것인 양 얘기를 하고 써도 그거는 진정한 내 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본다 하더라도 백지를 볼 줄 알아야 만법의 근원이 지혜롭게 한 글자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말이죠. 그 백지라는 거는 정신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보이는 몸뚱이와 지식을 채워놓은 생각으로서의 나가 아니라 생각하기 이전의 나에 의지하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결정해서 지워준 훌륭한 사람이나 잘산다는 것은 사실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거든요.

일거수 일투족 근본이 하는걸 놓치지 않고 지켜 보는게 참선

그러니 오직 보이지 않는 나의 근본에서만이 나를 훌륭하게 이끌어 갈 수 있고, 지혜롭게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고 드는 모든 생각이나 걱정을 나의 근본에 모두 일임해서 살아가다가 어떠한 결정의 순간이 올 때 나의 근본에 답을 구해서 진실하게 활용해 나간다면 훌륭하지 말라고 해도 자신의 마음이 떳떳해지고 매사에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항상 나의 근본, 주인공에게 맡기고 주인공만이 나를 참답게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기 바래요.

그런데 진드기처럼 이름을 가지고 늘어 붙어서 아들 노릇 할 때에 내가 아들이다 하고 고정시켜 놓으면 남편 노릇도 못하고 아버지 노릇도 못합니다 하나를 가지고 그걸로 고정을 시켜놓으면, 그래서 모든 것을 할 때에 전부 놓고 돌아가면 아주 다양하게, 그냥 자동적으로 이것 저것을 다 여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생활 참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다시 잠자리에 들고 잠을 자는 24시간동안 어떤 것을 하든지 그냥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자식이 불렀을 때 아버지 노릇을 하고 부인이 불렀을 때 남편 노릇을 하듯이 용도대로 닥치는 대로 머무름이 없이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이끌고 가는 그 근본에서 그렇게 찰나찰나 돌아가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는 것이 그대로 참선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루종일 돌아다니다가 하루에 30분이라도 앉아서 마음을 다스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하고 반문하기 이전에 '당신이 이렇게 오늘 하루도 이끌어 줘서 감사하구나. 당신이 분명히 이끌고 간다는 것은 알겠는데 당신을 만나지 못해서 당신을 정말로 알 수가 없으니 당신이 있다는 것을 당신이 증명해.' 하고 직코스로 들어가란 말입니다. 그래야 이 가슴이 허전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행하는 모든 것을 근본에서 들이고 낸다는 것을 아시고 '오직 근본에서만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다' 고 지극하게



그림 · 최주현

주인공이 하면 '수행' 내가하면 공부 못돼

무상함을 깨닫고 싶습니다

문 일상생활 속에서 선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는 사람들끼리 모임이 있으면 같이 술을 마신다든가 밤새 고스톱을 한다든가, 먹고 사는 것을 위해 일을 하는 이런 일상의 일들을 그대로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참선을 계속해나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요? 선은 발붙이고 있는 현실세계를 중요시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런 일상에서 어떻게 무상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먼저 허깨비 같은 삶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절실한 것이 없어서 그런지 그만그만한 일들로 그냥 살아나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답 우리가 사는 걸 가만히 보세요. 집에서 자식이 '아버지' 그러면 그 때는 아버지 노릇을 하죠? 부인이 '여보' 하면 남편 노릇을 하죠? 그러다가 부모님이 '애비야' 하면 자식 노릇을 하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걸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으로서의 나가 나입니까? 아버지로서의 나가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듯이 어느 걸 나라고 못박을 수 없는 그 나는 그렇게 자동적으로 찰나찰나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믿고 뛰어 넘을 수 있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몸도 마음도 내것 아니라는데

문 부처님 말씀과 불교의 진리대로라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마음도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나라는 놈, 진정한 나는 무엇인가요? 진정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요? 그리고 어떠한 나가 육도윤회를 하는가요? 몸도 나가 아니고, 마음도 나가 아니라면 영혼은 어떠한 존재인가요? 몸도, 마음도, 나가 아니라면 천도재와 제사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요?

답 부처님께서 제행(諸行)이 무상(無常)하다고 가르치신 것은 모든 것이 덧없다거나 비관적이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처님께서는 태어나면 죽게 마련이고, 생기면 없어지게 마련인 이 세간법을 넘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결코 늘지도 줄지도 않는 부처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를 중생들에게 전하고자 해서 그와 같이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 아(我)가 없다고 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생으로서의 나는 분명 없는 것입니다. 중생이 그렇게 아끼고 소중이 여기던 그 나라는 몸뚱이는 의식과 관습과 생각이 뭉쳐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몸은 진정한 실체가 아닌 뜬구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다 근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 근본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즉 생각을 하는 것은 영혼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배출해 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근본 본체라는 말이지요. 그걸 말하자면 불성이라고도 하고 참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기에 불기둥이라 말합니다. 생사윤회 모든 일체가 돌아가는 것이 그 기둥을 끼고 돌아가는데, 그 기둥은 움쭉거리질 않습니다. 움쭉거리질 않으면서 능력을 배출해주는 거죠. 하다못해 자동차가 가도 바퀴를 굴리려면 그 심봉이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래야 바퀴가 구르듯이, 심 바퀴를 꿴 그 심봉은 움쭉거리질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성(佛性)은 움쭉거리질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둘레에 돌아가는 바퀴는 우리들이 지금 마음이 이랬다저랬다 하며 돌아가고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잘못 쓰면은 바퀴에 나쁜 것도 감기고, 또 좋게 마음을 써서 악이 거기에 붙어있지 않는다면 선으로써 입력이 되는 거죠. 그 입력이 된 그것을 바로 영(靈)이라고 그럽니다. 영! 그리고 혼백(魂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근본 불성하고는 아주 다른 거죠. 우리가 마음을 내되 선하게 써라 이러는데, 부처님의 마음공부에는 악한 것도 선한 것도 다 놔라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악하게 쓰다 보면 선하게 쓸 수도 있고 선하게 쓰다 보면 악하게 쓸 수도 있으니까 그 양면을 다 놔라 이겁니다. 그 양면을 놓는 법이, 선은 감사하게 놓고, 악은 악이 나오는 것도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니깐 악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도 그 자리다 하는 것을 모두 거기다가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도재를 지내는 것도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모습만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면서 지은 대로 콩 나고 팥 나듯이, 그렇게 모습을 쓰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간지옥이란 것은 땅 속에서 바깥에 나오지도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지옥고에서 벗어나려면 단 하나의 마음, 즉 영령을 건져서 내 마음과 둘이 아니게 해놓는다면 금새 제도가 되겠죠.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천도재를 지내고 또 지내고, 어머니, 아버지, 형제의 무명을 벗기기 위해서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건너가지 못하는 것을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지내고, 한 발자국도 떼어놓지 못하고 업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지내기도 하는 것이죠.

법공양 페이지

불법은 결코 환상이 아닙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가장 진실한 진리입니다. 그러니 천차만별로 자기 몸뚱이 속에 깃들어서 멋대로 나오는 그 의식이 자기인 줄로 알고 살지 마시고, 모든 생각 생각들을 다 들 아니게 굴려놓아 과거에 산 대로 입력되어 있는 나의 삶과 운명을 바꾸어서 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니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아독존과 유일신의 차이

문 부처님의 탄생게송인 천상천하 유아독존과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또 아상과는 틀린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요. 〈숫타니파타〉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중에서 지혜를 얻은 이는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구절이 있는데 자신이 득도하여 지혜가 생겼다 생각하는 것도 아상이 아닐런지요. 이 구절이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혜가 열렸다 하더라도 흐르는 물과 같이 끊임없이 정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매한 중생이 현답을 기다립니다.

답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어떤 분들은 자기가 제일이라 하는 말로 알아듣더란 말입니다. 문자만 달달 외워서 그냥 안하무인격으로 아는 거지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물론 부처님 당신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은 더욱 더 아닙니다. 불교라는 이 자체가, 우리 자체가 그냥 여여하기 때문에 얕은 것도 높고 높은 것도 높으니 어느 것 하나 높지 않은 게 없느니라 해서 천상천하에 유아독존이라고 하신 거죠. 어느 가정이든지 남편이 높지 않은 가정 없고 자식이 높지 않은 가정 없듯이, 또는 바다에서 보면 뱃사공이 높고, 농사짓는 데 가면 농사짓는 사람이 높고, 정치하는 데 가면 정치인이 높고 모두가 하나도 높지 않은 게 없죠? 산도 높은 게 있으니까 얕은 게 있지, 얕은 게 있으니깐 높다고 하지 얕은 게 없는데 어떻게 높다고 하겠습니까? 이 모두가 평등한 진리며 모두가 둘이 아닌 도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외국에 나가봐도 그렇고 타의에 의해서 꼭 상대를 놓고 믿어요. 상대를 놓고 찾아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사대성인들, 역대의 조사들이 말씀하시기를 "너부터 믿고 너부터 알아야 이 세상 돌아가는 법계를 알고 우주의 섭리를 아느니라. 네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면 상대가 어디 있고 종교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 너부터 알아야 한다."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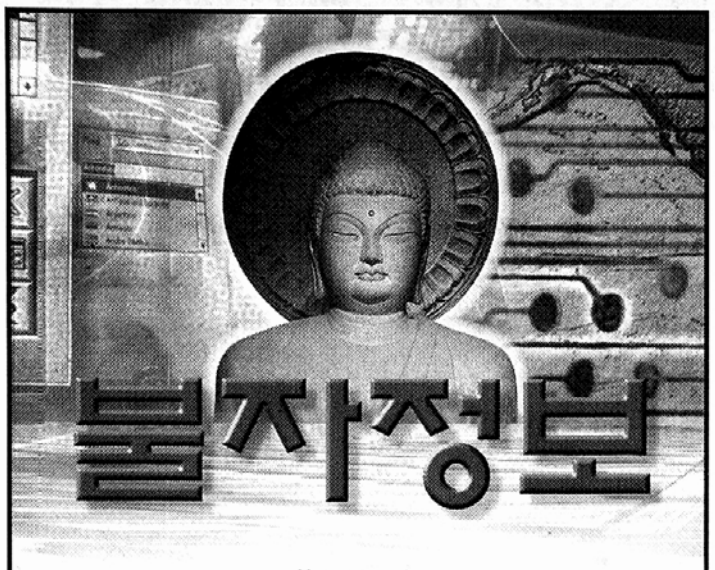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그 너는 껍데기인 나로서가 아니라 참나, 그러니까 나라고 세울 게 없으면서 일체만물과 공생 · 공식 · 공용 · 공심 · 공체하는 나인 것이지요. 나는 그걸 주인공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를 포함해서 전체와 가설이 되어 있는 한마음의 주인공이지요. 그래서 이 몸뚱이 움직이는 거, 한생각 들고 나는 거, 생명의 에너지를 다 뭉뚱그려 주인공이라고 한 겁니다. 너 자신을 알라 하는 것은 바로 주인공을 아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모든 것을 한다고 믿어 주인공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밝혀야 하는 진리의 길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한번 가만히 지켜보세요. 혼자 왔다가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인생의 도리 아닙니까? 그러니 하늘을 받치고 땅을 디디듯이 자신의 근본을 의지처로 삼고 하늘을 받치고 일체를 건질 수 있는 그런 수행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자를 아무리 좌로 꿰고 우로 꿴들 자신의 마음을 알지못한다면 그것은 허탕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나게 하는 자신의 근본에 모든 것을 일임해 놓고 진실하게 생활해 나가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가려른 언덕을 넘어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4cm (1회 4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5)834-1115~6
016)849-3858
012)1166-3858

견강과 수행의 길잡이
禪 기 공 (禪 武 道)
지도자 과정으로서 2년 수학후 총장 수료증과 협회의 자격증이 수여됩니다
▶ 등록기간 : 2000년 8월 31일까지
▶ 대 상 : 남녀 연령 학력 제한없음
▶ 접 수 처 : 교학부 ☎02)2260-3727
▶ 지도교수 : 설적운 스님(골굴사 주지)
※ 사찰에서 선무도 수행하며 사무원으로 일할 여성불자를 구합니다. ☎ 011)763-1690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선 무 도 협 회 大 金 剛 門

강좌

견성체험지도 책 · 테프 판매!!
■내용 ; 마음을 보아(견성) 질병/죽음/윤회/잡념/번뇌/습관/비만/금연/금주/잡재의식과 현재의식의 갈등/외로움, 불안, 우울, 시기, 질투등의 감정/학습력/운명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 공부
■위치 ; 신정네거리
박민수 참선 교육원 02)2016-2356
http://min soo zen.pe.kr 017)609-9068

수인작법 사주팔자
▶ 옛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 내려온 비술
▶ 손하나만으로도 몇년전, 몇월, 몇일의 운세 점검 몇년후, 몇십년후 몇월, 몇일 몇시의 일도 예측할 수 있는 작법
▶ 명리를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 내림굿을 받았어도 점괘가 시원치 않는 분
인연있는 분에게 전수합니다
02)918-5554 / 017)317-1597

새천년 새인연 팔공산 약사정사
(천도도량)신비한 맥반석약수
뇌졸증, 중풍초기, 당뇨병
유방암, 위장병, 피부병, 계골몰이졸졸
불사평생 함께하실
(60~75세 노보살님, 노처사님 구함)
기도하며 살아갈 방있음
(사법고시 성취자 환영)
053)958-6630
011)9554-6900

구인구직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정릉)
02)917-3363

절터 · 암자 급구
경기, 충청 강원지역
※ 공양주 보살님도 구합니다
02)577-8855/573-3222
011)317-2356/347-2356

한라산 존자암 행자 모집
입산 · 수행할 행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라산 영실 **존자암**
011)696-8500 주지실
064)749-1414 종무소

기도하며 공양주 하실 보살님을 구합니다
조용한 산속 암자입니다
011)696-8500

공양주 보살 모 집
경남 합천군 대병면 장단리 청강사
055)932-5706
011)558-5706

기도하시면서 한식구처럼 함께 살아갈 부전스님을 모십니다
051)263-9623
011)577-7600

인연되는 절을 찾습니다
(비구스님)
부전스님을 구하시는 절이나 스님이 필요하신 절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011)9545-1903

스님 또는 행자님
절에서 함께 사실 스님과 행자님을 모십니다
054)541-8420
자광사

불교용품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 화엄경 (80권) -1,400,000원
● 법화경 (7권) - 170,000원
● 사 교 (7권) - 220,000원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055)932-7252 김 창 본
011)545-7252 처 사

기타

수양 휴양
▶ 산림욕, 약수, 참선, 기도 최적
▶ 경관이 수려한 현대식 목조주택
▶ 오랜 지병 즉각 효험
▶ 인생상담
강원도 홍천 건강샘터
033)435-6166
석 련 암

목재 건축물 보수
사찰 한옥, 통나무, 목조, 보수공사전문
1. 방염성, 방부제
2. 흰개미 해충 박멸제 · 곰팡이 제거제
3. 목조, 석재 세척제
4. 강력 접착제
02)3474-6232
(주) 동화특수 산업

특허
명당(음·양) 氣 탐지기
※ 전국의 명당 기 측정기
강화도 마니산 → 65회전
해인사 독성각 → 46회전
팔공산 갓바위 → 16회전
P대통령 생가 → 50회전
K대통령 생가 → 50회전
세계 최초로 공개
특별 보급가 35만원
보급가 60만원
※ 추석때 집터, 묘터 한번만 사용하셔도 본전을 뽑을 수 있다
TEL:053)982-4976/011)813-3679

수양원

◆청학사 수양원◆
■수양 · 기도 · 공부 · 참선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月 숙식비 : 30만원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5)883-2935
055)883-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 불교악세사리 광 약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0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악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심한 피로 · 정력강화
◆간기능 획기적 개선
◆혈압, 혈당치 낮추고 장 · 변비개선
◆손발냉증 · 피부 고와져
◆감기에 강한 체질로
▶가격: 분말(230g) : ₩39,000
환 (250g) : ₩45,000
동양물산(주) 02)2236-0748

뉴질랜드 유학
▶ 초 · 중 · 고등학교 유학및 랭귀지 스쿨, 단기 어학연수
▶ 대학입학목표
(AUT,UNITEC--대학부설 어학원 추천)
▶ 홈스테이및 가디언쉽제공
(불자가정 및 현지인)
▶ 골프유학 및 연수
우 등 불 유 학 원 Email:rafaga@world-net.co.nz
HP:64-9-021-2132666/FAX: 64-9-416-4252(뉴질랜드연락처)
PH:64-9-416-4252~3

사찰 · 한옥 석공사
사찰 · 한옥 · 석불 · 석탑 · 석축 조경
단청, 다집, 불단, 요사채
설계 시공 (전문업체)
전국 출장 양택 음택 현지답사
상담하여 드립니다
042)242-9990~3/011)209-3688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36-3번지
연화종합토건 (주)

21세기 포교문화 지식정보화시대 시급한
인터넷 포교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
웹호스팅 각종 프로그램개발
[CGI, PHP, ASP, JAVA]특별씨비스 상담전화
02)2242-0331/485-3998
http : //www.cmhouse.net
E-mail cm@cmhouse.net
한국불교예술문화원 후원
※인터넷사용인구가 2000만을 육박하고 있읍니다 현재 이교들이 불교단체 사찰 포교원등 고유 명칭을 도메인주소로 불법등록을 하고있는 사례가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읍니다 도메인주소는 상표등록과도 같습니다

역학 수강생 모집
▶과목: 사주, 육효, 신수, 작명, 관상
▶과정: 정규반, 연구반, 자격증반, 창업반
▶시간: 오전10시~12시, 오후 3시~5시
(월~금, 주5일)
※ 매주 토요일 관상학 특강: 오후 6시
▶강사: 엄윤문 원장(명학비해 外 20여권 저술)
김회선 선생, 관상학의 달인 신기원 선생
▶기타: 사주감정 의뢰하실 분(3만원 입금후 전화요)
제일은행(105-20-163426) 엄윤문
▶문의: 02)752-9013
청운역리학원

사찰안내

포교원 안내
◆위치 : 대구광역시내
◆평수 : 2층 48평, 법당30평, 스님방1, 신도방1, 샤워장, 조리장, 옥상사용가능,시설완벽
◆가액 : 보증금 시설비포함 2900만원, 월35만원
011)790-7162

사 찰 (급) 안 내
◆위치 : 경남 마산시 회원구 회성동 저마산 IC 건너편
◆대지 : 435평(종교대지60필)
◆건물 : 법당31평, 목조(삼포,오포,금단청필) 요사80평, 방10칸, 주방2칸, 거실, 명부전9평 단청필, 주지실 · 사무실12평, 창고 약4평 주차장100평 이상 차량 무제한 주차 가능
◆가액 : 8억 건물완공4년, 총공사비 12억, 대지 평당 90만원 이상감.
◆특징 : 마산시내에서 개인사찰로 가장 큰 도량으로 창건주 신병으로 저렴한 가액에 양도합니다.
055)294-4889 / 02)351-4447

사 찰 안 내
◆위치 : 경기도 가평군소재 (서울에서 1시간소요)
◆부지 : 500평
◆법당겸 요사 : 30평(현대식)
뒤는 산세좋으며, 주변 경관 뛰어난 참선 및 정진도량임
◆가액 : 2억
◆위치 : 서울 강북 소재
◆법당 : 30평 (현대식)
◆요사 : 40평 (현대식)
◆가격 : 3억 5천(대출가능)
전동기와 및 단청완료했으며 도심 포교사찰로 적격이며, 지하철에서 200m 거리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561-7791 018)273-9390
※전국소재 사찰,암자 양도,양수하실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 안내
◇위치 : 의정부
◇법당 : 30평
◇ 요사 : 75평
◇부지 : 97평
◇가액 : 4억 5천
※ 전국 사찰 다량 보유
양도 · 양수 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해드립니다.
(서울)0502) 999-1133
청송기획 011)713-5634

사찰 안내
◆위치 : 정릉3동
◆건물 : 임법당 40평
◆대지 : 370평(공유부지, 절터55평)
◆ 특징 : 주차공간 10 ~ 15 주차가능
◆가액 : 평당 400만원 총 2억2천
02)919-0058
017)267-0045

토굴터 및 별장 안내
◆위치 : 충남 홍성읍
◆대지 : 800평, 건축면적 45평
◆특징 : 백월산 산세수려, 정원완비, 집앞까지 도로포장완비
◆가격 : 3억 5천 (답사후 절충가능)
041)633-3878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강원 경계지역 서울에서 1시간 40분 거리
◆ 부지 : 2만 7천평
◆ 건물 : 대웅전, 무량수전 지장전, 산신각, 용왕각, 선방 요사3동(전체 단청완료)
◆ 산세가 수려하며 맑은 계곡물이 흐름
◆ 가격 : 답사후 절충
(중간소개배제/직접당사자임)
017)373-5998

사찰 안내
◆ 위치 : 청주시 근교
◆ 연역 : 60년 전통 불교 사찰
◆ 법당20평, 요사채40평, 기타건물3동, 대지 6700평 부지 임야2필지 납골당 건립가능
◆ 가격 : 5억
043)260-6766

사찰(급) 안내
◆ 위치 : 충남 서천군 마산면 210번지 영주암
서천에서 차로 5분거리
◆ 대지 : 100평
◆ 건물 : 5평짜리 방2개, 목욕실 주방, 태양열, 법당, 산신각4평, 요사채10평, 홍탱화
◆ 가격 : 4천 5백만원
041)953-3478/951-3308
011)453-4618

포교원(급) 안 내
◆위치 : 서울 강동구 길동 3층건물에 3층(옥상사용가)
◆구조 : 법당1(에어콘有) 방2(스님방 에어콘有), 조리장1, 화장실 및 샤유장1(총50평)
◆가격 : 보증금1천만원(월55만원) 집기물 무상
02)482-4550/041)753-2636

토굴 안내
◆ 위치 : 울산시 삼동면 보삼마을
◆ 대지 : 145평
◆ 시골집 2채 산 6백고지 전기차 들어감
051)508-6779

포교원 안내
◆위치 : 마포구 망원동(11월 6호선 개통 망원역 마포구청역 인접)
◆평수 : 2층 법당, 방, 주방 약 20평
◆가격 : 보증금 5백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절충(분납도 가)
02)323-4480

포교당 안내
◆ 평수 : 43평 (청동 3존불 조성)
◆ 가 액 : 전세 500만원 월 25만원, 권리금 1800만원
◆ 성실하고 진실한 스님께 (양도하길 원함)
051)337-0648
016)554-2308

토굴(터)및 서당 예절학교 안내
◆위치 : 경남 하동군 지리산 청학동 지대
◆평수 : 1500평
◆특징 : 잡종지 350평, 건물50평, 건축물 신축가능 부지 200평.
◆가액 : 현지 답사후 절충
055)884-1379
011)883-9144
017)547-1379

사찰 안내
◆위치 : 경북
◆부지 : 5800평중 대지600평 전 5,200평(준농림)
◆법당22평, 산신각4평, 요사채30평 (2동), 공양실 12평
◆특징 : 주변산세, 경관 뛰어나며 기도도량임. 납골당 최적지
◆가격 : 답사후 가격 결정
054)954-0391/011)501-2219

사찰 · 요양원 · 수양원 · 콘도 · 별장
◆ 소공원 하실 분, 국립공원 입구
◆ 남 덕유산 맑은 물 계곡이 휘감아 흐르는 연화봉으로
◆ 둘러싼 가운데 3,000여평의 땅이 있읍니다.
◆ 진입로 포장 · 계곡 교량공사 중이니 귀하가 하신다면 5억원이 소요되는 공사비를 절감하는 이익을 보시게 됩니다.
◆ 가격 : 답사후 절충 ①2,590㎡, ②1,625㎡, ③5,024㎡ 필지별 분할 매입 가능
055)944-7049/016)750-7049

포교원(급) 안 내
◆위치 : 서울 강동구 길동 (현능사)
◆조건 : 3층 건물에 3층(총50평)
법당1(에어콘有), 스님방1 (에어콘有), 신도방1, 조리장1, 화장실 및 샤워장1, 골방1
◆가액 : 보증금1천만원
10년전 시행(월60만원)
시설권리금 1천 8백만원 (집기물 무료)
02)482-4550/041)753-2636

사찰(급) 안내
◆위치 : 충남 청양
◆부지 : 300평, 법당2층 30평, 요사채 80평
◆특징 : 포교당 적합, 읍내소재지 터미널에서 5분정도
◆가격 : 3억 5천만원
041)943-8454

포교당 안내
◆ 위치 : 광명시 새마을시장 3층
◆ 평수 : 35평, 10년되었음
◆ 가격 : 5천만원
02)2618-0767
02)687-5544
02)683-8444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 소재
◆ 부지 : 약15,000평, 법당30평 요사채 약60평(방15개)
◆ 가액 : 4억
◆ 특징 : 기도 정진할 도량으로 아주 좋으며 석관수가 유명하여 대구 인근에는 널리 알려진 고찰임
※ 전국의 사찰, 절터, 포교당 양도 양수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좋은인연됩시다
동진불사 02)326-1060 053)964-2060 018-334-9021

사찰(급) 안내
◆위치 :서울시 은평구
◆대지 : 60평
◆건물 : 법당10평, 요사채10평, 방2개
◆특징 : 울창한 수목과 편리한 교통을 갖춘 위치며, 굴속에 미륵부처가 자연으로 있어 기도생활에 큰 도움이 됨. 무속인 양도 가능
◆가액 : 1억 1천만원
02)354-3844

포교당 안내
◆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중동역 (동신 APT 옆)
◆ 건 물 : 3층 24평 법당1, 방1, 상담실, 삼존불, 탱화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800만원
032)654-5859

사찰 안내
◆위치 : 서대문구 북가좌동 145-101호
◆평수 : 법당20평 방3칸 부엌
◆특징 : 시유지, 복지사업할 여건이 되어 있음
◆가액 : 보증금 4천만원 월20만원
031)868-0516
02)303-9788
016)335-8257

아내가 남편을, 딸이 엄마를 고발하는 사회

가정윤리 붕괴 '끝이 없다'

남편의 부도덕 행위를 사회에 고발한 아내와 엄마의 불륜을 인터넷에 공개해 결국 구속된 얘기가 세간에 회자되고 있다.

현직 법관이 단란주점에서 여종업원들의 나체 쇼를 구경하며 새벽까지 술접대를 받은 사실을 알아챈 아내는 법관들이 정의 속에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사실을 언론에 알렸고 판사인 남편도 잘못된 행위를 반성한다며 사직서를 냈다. 일부에서는 양심적인 행동이라며 부인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이번 사건이 사법부 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는 의견까지 내놓고 있다.

여대생인 딸에 의해 고발된 현직 여성 파출소장은 간통혐의로 최근 전격 구속됐다. 가정을 팽개친 엄마에 대해 도덕적·윤리적 책임을 사회로부터 물은 여대생의 고민이 얼마나 컸을까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한편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내가 남편을, 자식이 부모를 고발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정상적이지 않다. 물론 잘못된 행위에 대한 처벌은 사회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우선돼야 할 것은 가족구성원 스스로가 문제를 가정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다.

가정윤리 파괴는 곧 우리 사회의 도덕적 타락을 의미한다. 날이 갈수록 번지고 있는 원조교제만 해도 그렇다. 가정을 지켜야 할 가장들이 원조교제에 나서고 부부가 제각기 불륜관계를 유지한다면 그런 가정과 사회가 제대로 ㄱ능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미성년자인 친딸을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게 하면서 윤락행위를 시킨 부모, 누이동생을 윤락가에 넘겨 용돈을 조달한 오빠, 술에 취한 아버지에게 손찌검을 당했다고 이를 고발한 뜯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고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요즘의 우리 사회를 보고 있노라면 섬뜩하기 그지없다.

불교에서는 남편은 아내에 대해 때에 맞춰 의식과 장신구를 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인사하고 밤늦게 자며 봉사를 잊어서는 안되며, 자식은 부모보다 일찍 일어나 때에 맞추어 밥을 지어 공양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다소 시대에 뒤떨어진 듯한 가르침이지만 이 가르침들의 근본에는 바로 진정한 가정의 의미가 깃들어 있다. 가족간의 사랑이나 정보다는 '구성원의 관계'로 유지되는 우리 사회의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간의 이해와 배려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일깨워 준다.

〈제공재환경〉에 나오는 한 가족의 이야기는 갈수록 메말라가는 오늘의 우리 가정에 귀감이 된다.

밥을 빌기 위해 찾아온 스님에게 가장은 아내에게 자신의 밥을 스님에게 드리라고 말했다. 그러자 아내는 "남편은 추위와 더위도 무릅쓰고 일하니 밥을 드시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다"며 자신의 밥을 드리자고 했다.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 어머니는 늙으셨으니 밥을 잡수셔야 한다"고 했고, 그 며느리는 "저야말로 나이 어리고 기운이 많으니 제 밥을 드리지요"라고 했다. 마침내 가장은 "우리 식구 모두가 선심(善心)을 내어 보시하려 하니, 각자의 몫을 다 같이 조금씩 덜면 손님을 대접하기에 족할 것"이라며 스님을 대접했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시론

과민성 불감증



원용진

〈동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은 그것의 유통 방식에서 비롯된다. 텔레비전의 스위치에 손이 닿거나 리모컨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유통의 준비는 끝난다. 영화를 보기 위해 공을 들여야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극장을 찾아야 하고, 표를 사야하고, 시간을 기다리는 등의 수고가 있어야 편안한 좌석에 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영화는 텔레비전에 비하면 정성이 요청되는 매체임에 틀림없다. 만화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이 성인용 만화를 보기 위해서는 상당한 꼼수를 부려야 한다. 친구의 대학생 형에게 부탁하거나 음성적 거래를 통해서 구입해야 하는 등 다리 품을 어느 정도 팔아야 한다. 그러나 텔레비전은 그렇지 않다. 텔레비전 수상기에 붙은 스위치를 켜는 일, 리모컨을 누르는 일을 두고 고생을 했다거나 다리 품을 팔았다고 말하진 않는다. 손이 닿은 순간 유통이 이루어질 정도로 완벽한 유통 방식을 가진 텔레비전은 그래서 늘 걱정 거리로 인식된다. 특히 아이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에게는 금지의 표식을 붙여야 하는 매체로 인식된다.

선정적 방송 만드는 까닭

특유의 유통방식 탓에 텔레비전에 대한 요청은 참으로 엄격하다. 안방의 화목, 건전한 청소년 문화의 조성, 계층간 조화 등에 대한 엄청난 요구가 텔레비전에 전해진다. 윤리교사에게나 어울릴 법한 요청들인 셈이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들은 이 같은 요청이 버겁다고 토로한다. 우선 재미가 있어야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보아줄 터 인데, 너무 재미있어도 탈이라고 하니 기준을 잡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는 볼멘 소리를 한다. 그리고 재미있다고 깔깔 거렸으면서도 돌아서선 욕을 하는 통에 종잡을 수 없다며 시청자들에게 눈을 흘리기도 한다. 제작자 자신들의 윤리 의식을 운위하면서 비윤리적인 사람으로 몰아 붙일 때는 당장이라도 방송을 그만 두고 싶을 정도라며 인간적 고뇌를 비치기도 한다.

완벽한 유통망으로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기에 견제해야 한다는 시청자들의 입장과 너무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지 말았으면 하는 제작자들간의 입장은 서로 맞닿을 수 없을 만큼 평행선을 그리는 처럼 보인다. 하지만 조금만 꼼꼼히 들여다 보면 두 입장은 반목하지 않고 힘을 합쳐 하나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제작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프로그램에서 퍼뜨린 말 한마디가 전국을 강타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건 뜬다"라고 감을 잡는데는 익숙하다. 하지만 그것이 갖는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선 깊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는 인색한 것 같다. 나는 제작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일종의 과민성 불감증이라고 칭하고 싶다. 사회적 인기에는 민감하지만 영향력에는 둔감하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단어로 그 증세를 칭해 본 것이다. 방송 제작자들의 과민성 불감증은 일종의 병이다. 제작자도, 시청자도 과민성 불감증을 두고 야유를 보낼 일이 아니라 그 병의 근원을 찾는데 노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바로 그 지점이 서로 힘을 합칠 수 있는 부분이다.

단호하게 말하자면 제작자들의 작업 환경이 과민성 불감증을 초래했다. 제작일선에 내몰려져 날마다 경쟁해야하고, 그 경쟁 결과표를 매일 확인해야 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성취를 평가받는 제작 환경이 그 병을 불러 일으킨 것이다. 지속적으로 조금씩 몸을 엄습해온 경쟁 중심의 옥죄임의 결과로 과민성 불감증이 깊어졌고 치유가 어려울 정도로까지 이어졌다. 최근 들어 방송의

시청률에 울고 웃는 사람

선정성을 두고 제작자들을 겨냥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잦아지고 있다. 제작자들이 몸담고 있는 방송사의 잘못된 평가 방식, '경쟁 방식 등의 제작환경을 고려치 않은 그 같은 지적은 명백한 오조준이다. 시청자와 제작자를 이간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제작자들의 과민성 불감증을 초래한 근원으로 돌아가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중병의 근원을 제거해 내는 일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 언제라도 틀어볼 만한 방송이 되기 위해 온 사회가 그 일에 매달려야 한다. 제작자들에게만 메스를 대고 방송을 수술했다고 말하는 일은 우울증 환자의 겨드랑이를 간지럽힌 다음 치료가 끝났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한국인 2명중 1명 이동전화 가입 '세계 6위'

통계로 본 세계 속 한국

총에너지 소비량 10위

지난 99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이동전화 보급률, 에너지 소비량, 교통사고 사망률, 평균 근로시간은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 의료 종사자 수, PC 보급률은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 8일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 통계지표를 비교·분석한 '통계로 본 세계속의 한국'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이 이동전화에 가입, 핀란드 노르웨이 홍콩 등에 이어 세계 6위를 차지했으며,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총에너지의 2.1%를 점유해 세계 10위로 기록됐다.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18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인구 100만명당 193명으로 세계 평균 111명보다 월등히 많았다. 말레이시아가 268명, 그리스 210명, 포르투갈 193명으로 우리나라보다 많거나 같으며, 미국 151명, 독일 95명, 일본 86명 등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제조업 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50시간으로 일본 42.7시간, 미국 41.7시간 캐나다 38.7시간 등 선진국보다 훨씬 많았다.

9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만명당 12명으로, 이탈리아 58명, 독일 34명, 프랑스 30명, 미국 27명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절반 수준에 불과했으며, 간호사 수도 인구 1만명당 29명으로 독일(95명) 미국(83명) 일본(74명)보다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약사 수는 인구 1만명당 10명으로 일본 9명, 프랑스 10명과 비슷하며 각 6명인 캐나다, 독일보다는 오히려 많았다.

우리나라 인구 100명당 개인 컴퓨터 보유대수는 18.2대로 인구5.5명당 1대꼴인 세계 27위. 그러나 세계 1위인 싱가포르(100명당 52.7대) 미국(51.1대) 호주(47.1대)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

98년 기준으로 인구 100명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23대, 승용차 보유대수는 인구 100명당 16대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인구는 99말 기준으로 4685만 8000명이며, 세계 25위다.



日 여고생의 눈물 "정신대 할머니 불쌍"

지난 9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정기 수요집회'에 참석한 한 일본 여고생이 '정신대 할머니가 불쌍하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독서 안하면 치매확률 3배

책읽기 등으로 뇌를 끊임없이 쓰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의대 연구팀은 5백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청년기에 정신적·육체적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사람들은 노년기에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가능성이 3배나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의 아미르 소아스 박사는 "취미활동 등 뇌가 생각하도록 자극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뇌를 노화로부터 보호할 수 있으며, 그중 가장 좋은 것은 책읽기"라고 말했다.

국민 94% "집단행동 심각"

국정홍보처 성인 1천명 여론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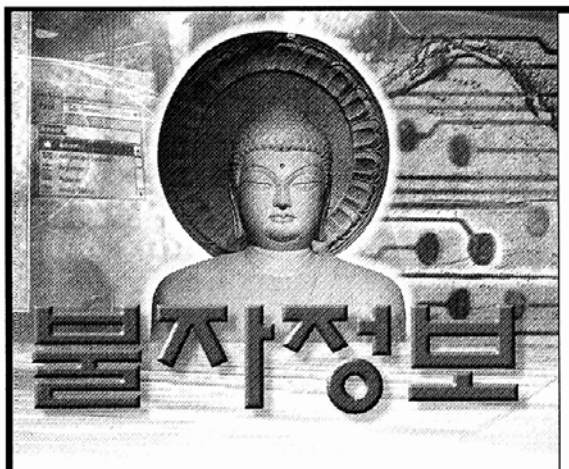
국정홍보처가 최근 성인남녀 1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94%가 집단이기주의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의아스러운 것은 응답자 중 43.8%가 자신이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남의 이기주의는 안되고 내 이기주의는 된다'는 이중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는 반증이다.

집단행동은 일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단체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때로는 부실한 정책과 편견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집단행동은 특정한 이익만을 좇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처님 재세시에도 이런 경우는 많았다. 그런 대중들에게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다.

"어찌하여 어리석은 마음으로 탐욕을 일으키고 성내고 다투어 서로 미워하고 혼란에 빠지느냐. 그것은 마치 어둠에서 나왔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감이고, 악을 버렸다가 다시 악에 빠지는 것과 같느니라. 어찌 그 많은 생각 가운데 탐욕하는 생각, 미워하는 생각, 해치려는 생각에 매달리느냐. 이 세상에 집착하는 것치고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잡아함경〉

응답자들의 30.5%가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국민의 자발적 인식제고'를 꼽았다. 국민들 스스로가 집단이기주의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아는 바를 실천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궁극적으로는 실천에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불자 여러분이 필요만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4cm (1회 4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토굴 안내
◆위치 : 경북 청도 강남
◆건물 : 15평
심야보일러 지하수 시설 최고급
◆가액 : 2800만원
054)372-5040
011)9589-4183

사찰터 안내
◆위치 : 충북 단양 영춘면 소재
◆대지 : 90평
◆가격 : 500만원
055)884-3290

포교당 안내
◆위치 :신대방3거리 전철역 (7호선)옆
◆구조 : 법당 30평, 요사채, 방 3개, 부엌, 화장실
◆가액 : 보증금 5천만원 (월60만원), 시설비 1천만원 또는 보증금 3천만원 (월8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1)741-2087

포교당 안내
◆위치 : 부산시 북구 만덕3동
◆구조 : 3층건물(옥상사용가),38평 (법당,대방, 중방,조리장, 화장실)
◆시설:청동석가모니불,청동 관세음보살, 후불탱화, 신중탱화, 영가단, 앰프시설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2500만원)
051)333-0172

공양주 보살님 수행하실 분 기도하실분 구합니다
(경남 해인사 쪽)
053) 427- 8481
011) 9594-4700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 평수 : 25평 3층건물에 3층
◆ 가액 : 전세 2500만원 (월세가능)
016)799-2022

사찰 안내
◆위치 : 노원구 상계동
◆대지:38평, 실사용평수 45평
◆특징:임법당, 주변녹지, 경관좋음 재개발 예상지
※ 교통 : 전철역에서 10분 버스종점에서 5분거리
◆ 가액 : 1억 8천 5백만원
02) 937- 6909

사찰 안내
◆위치: 지리산 청학동입구
◆건물:임법당1동, 요사채1동(방4개)
◆특징:주방, 욕실, 화장실 별도, 현대식 시설, 통나무집, 방2칸 주변경관이 좋고 주차장있음.
※하동화개 지리산 햇차 판매
011)842-4549

최신시설도심포교당 안내
◆위치 : 지하철 잠실역, 강변역에서 20분거리
◆구리시장 한복판 현대 일급자재 인테리어,완벽한 포교당, 불교학교 시민선방
◆ 4층 다목적 교육공간50평, 5층, 법당등 50평,옥상 휴게공간, 각층 냉난방 남녀 편의 공간완비, 후원시설 일급 공양주 생활 도구 등 충족
◆ 가액 : 1억
TEL 031) 557-2266~2267
FAX 031) 557-2268 (금당스님)

별장지 전원주택지 암자터 안내
happy 700 평창을 아십니까? 인간의 생체에너지 활성에 가장좋은 700고지에 위치한 평창 강원도 특유의 베어난 산새와 맑은 계곡 물이 휘감아 흐르는 곳에 부지조성이 끝난 별장지를 분양합니다.
※ 가족묘지 (명당자리)도 분양 합니다
◆위치 : 둔내 스키장 뒷편
◆층평수 : 10,000평
◆평당가 : 5~8만원
◆분양평수 : 300평이상
◆거리 : 서울에서 1시간 50분
018)230-8048
018)462-0709

귄 민속 불교 백화점 // 전통 민속 국악사
◆본점 1층(50)평 금불상, 금탱화, 승복, 서적, 유가일절
◆2층(50)평 불상, 탱화, 전시장
◆3층(50)평 북, 장구, 농악복, 국악기, 일절
지점 1층(25)평 옥불상, 목불상, 특수탱화, 수입불상 일절 불교, 무속, 민속일절
지점 3층 2001년 국내 최대 메머드 마트형 시설과 도매상권을 갖추어 OPEN
민속불교백화점은 국내초대매장으로 신상품과 가격을 최저가격으로 판매합니다.
본점:0345)495-4848, 4845, 4846 FAX491-8548
지점:0345)417-4848, 480-4848, 406-4310, 4311
불교/무속/민속용품, 전국도매
불교용품/불교사/만물사 개업/창업 사업을 원하시는 분 상세히 알선하여 드립니다.

불자들을 위한 생활한복 염가판매
각종 중국차와 다구도 있습니다
茶 侶
서울 구반포 한신종합상가 1층 나열 15-2호
02) 3477-5336



◇ '우리는 선우' 캠프에서 참가자들은 앞 사람의 어깨를 잡고 리듬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도심서 수화공연

선우 청소년캠프 열려

'우리는 선우'는 7월 28일~31일까지 김제 금산사 앞 모악산 유스호스텔에서 중고생 150여명이 참가한 '제12회 선우 청소년 캠프'를 열였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참가자들이 조를 나눠 전주시내를 돌며 시민들에게 즉석 수화공연과 봉사활동 등을 펼치는 '도시탐험, 오리엔티어링' 시간이 마련돼 이를 지켜본 전주 시민들로부터 열띤 호응을 받았다.

또 금산사 문화답사 시간에는 사찰의 구조, 불상, 불교예절, 목조 건축학, 문화재 배우기 등 다섯 코스로 나눠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돌며 내실있게 사찰 문화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답사 후에는 토론과 활발한 상호 의사소통 방법을 통해 리더쉽을 배우는 'inter-N'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새싹불자 선생님 양성 길 트였다

조계종 10월 '불교어린이교사대학' 개설

전문가 초빙 법회의식등 실무위주 교육

교계 교사 1천명 통합관리 "인력난 해소"

종교를 가진 청소년 중 83.7%가 초등학교 때 종교를 선택했다는 7월 27일 포교원 조사발표로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종단이 어린이 포교 지원에 팔을 걷어 붙혔다. 조계종 포교원은 10월 어린이 포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어린이 법회 지도교사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불교 어린이교사 대학'(가칭)을 개설한다.

포교원 산하 교육기관으로 발족되는 '불교 어린이…'은 어린이 포교의 각 분야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법회의식, 레크리에이션, 유아교육법 등 어린이 포교 실무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실습 훈련을 체계적으로 교육한다는 전략을 짜놓고 있다. 이는 지난해 7월 포교원이 어린이 포교 종책 수립을 위한 '어린이 지도교사 육성과 지원책'에 관한 실태 조사에서 전문 교사 양성에 대한 교계의 지원이 전혀 없어 포교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이에 대한 강구책으로 마련한 것이다.

실제로 전국 각 사찰 어린이 법회 지도교사 4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해 조사에서 교사들은 사찰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양질의 교사 양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당시 조사에 따르면 3년 이하의 경력 지도교사 71.5%중 74.1%가 무급자이며, 유급자의 경우에도 10만원 내외의 교통비 수준 정도만 지급되는 등 이들에 대한 대우와 지원이 열악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3년이 지나면 생계 유지를 위해 어린이 포교 현장을 떠나는 교사들이 많아 교사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 어린이 법회를 지도하는 스님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포교원은 이번에 세워지는 '불교 어린이교사 대학'에서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와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가 연수회를 통해 매년 배출하는 1천여명의 어린이 지도교사들을 통합 관리 운영해 불안정한 교사 수급을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찬불가 보급단체인 '좋은 벗 풍경소리'와 한국불교교육원 등에 의뢰해 다양한 어린이 포교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포교원은 '불교 어린이…' 개설을 위해 어린이 포교에 오랜 경험이 있는 스님과 재가자들로 이달말 운영위원회를 구성,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10월부터 6개월동안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어린이 교사대학 설립에 대해 교계의 일각에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철저한 준비없이 의욕만 앞선다면 단순히 구태 의연한 강의식 이론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해 양질의 교사를 양성한다는 근본 취지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어린이교사대학 설립의 실무를 맡고 있는 포교원 양진수 주임은 "어린이 지도교사 들을 위한 상설 전문 교육기관이 만들어지면 수료 후 교사들도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어린이 포교에 힘쓸 것"이라며 "최근 심각해진 어린이 법회 교사들의 인력 수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원도 18일 부산 내원정사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운영사찰 주지 연수회를 열고 전문 인력 양성책과 효율적인 어린이 포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사찰 편액을 찾아서

⑯ 석재의 통도사 · 선석사 편액



◇통도사 극락암 편액



◇선석사 사문 편액

석재 서병오(石齋 徐丙五 · 1862~1935)는 대구에서 만석꾼 서상민(徐相敏)의 아들로 태어나 신령 군수를 지낸 한말의 서화가이다. 1897년 그는 중국으로 건너가 갑신정변으로 망명해 있던 민영익의 집에 머물며, 푸화(蒲華), 우창스(吳昌碩) 등의 중국 서화가들과 교류하며 이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3년 뒤 귀국한 그는 대구에 머물며 활동했는데, 1920년에는 교남서화연구회(嶠南書畵硏究會)를 발족시켜 후진을 양성하기도 했다. 또 1922년 조선미술전람회에서는 글씨와 사군자 부문의 심사위원을 지냈다.

석재는 처음 안진경체를 체본(體本)으로 삼아 글씨를 썼으나 나중에는 구양순, 왕희지, 동기창 등과 추사체까지 각 체를 두루 섭렵했는데, 그 가운데 특히 행서를 잘 썼고 그림은 사군자에 능했다. 젊은 시절 가문의 원찰이던 대구 동화사에 한동안 머물며 학문에 전념한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듯이 그는 평생 불교를 가까이 했으며, 이러한 인연으로 양산 통도사 극락암 〈삼소굴〉 〈원광재〉, 밀양 표충사 〈세계일화〉, 성주 선석사 〈선석사〉 편액 등 영남 일대의 사찰에 많은 글씨를 남겼다.

양산 통도사 산내 암자인 극락암 승방에 걸린 〈원광재〉 편액에는 '석재(石齋)'라는 관지와 '서병오인(徐丙五印)', '석재(石齋)'라는 음 · 양각의 도서 2과가 있다. 번죽 없는 평판으로 이루어진 이 편액은 석재가 교남서화연구회를 이끌던 1920년 무렵에 쓴 것으로 추측된다. 편액의 글씨는 그가 즐겨 쓰던 추사 풍의 밀양 표충사 〈세계일화〉, 성주 선석사 〈선석사〉 편액 등 영남 일대의 사찰에 많은 글씨를 남겼다.

양산 통도사 산내 암자인 극락암 승방에 걸린 〈원광재〉 편액에는 '석재(石齋)'라는 관지와 '서병오인(徐丙五印)', '석재(石齋)'라는 음 · 양각의 도서 2과가 있다. 번죽 없는 평판으로 이루어진 이 편액은 석재가 교남서화연구회를 이끌던 1920년 무렵에 쓴 것으로 추측된다. 편액의 글씨는 그가 즐겨 쓰던 추사 풍의

원광재 호방함 보이는 추사풍 작품

선석사 곧고 힘있게 쓴 1920년대작

건강백과

수험생 건강관리

요즈음은 가만히 있어도 온몸에 땀이 흐르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다. 이런 찜통 더위에는 책상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고역이다. 하지만 학력고사를 1백일 앞둔 수험생들은 한가하게 더위 타령이나 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공부를 계속하지만 능률이 안오를 때에는 생활습관부터 고쳐보자.

▲수면은 충분히 한다=수면시간이 5시간 이하로 떨어지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저하된다. 가능하면 8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는 것이 좋다. 덥다고 낮에 자고 밤에 공부하면 시험 직전 수면 조절이 어려우므로 오전 6시반~7시에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좋다.

▲아침을 먹는다=쌀밥이나 콘프레이크, 우유 등에 들어 있는 풍부한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뇌 신경세포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기분을 좋게 한다. 그러므로 공복에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반공기 정도의 밥과 우유 한컵이라도 꼭 먹는 것이 뇌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아침 먹어야 뇌 활성화 도움

명상 긴장 풀고 집중력 키워

▲음식은 골로루 먹는다=한국인의 지방 섭취는 전체 섭취 칼로리의 17%, 서양인은 40% 이상이다. 지방은 모든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고 신경 세포막의 정상 기능을 유지시키는 필수 성분이어서 육류, 달걀, 생선 등을 적당히 먹는 것이 좋다. 특히 양파는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수험생들에게 권할 만하다.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기상 직전이나 직후 편안히 앉아서 10분 정도 눈을 감고 코로 깊이 숨을 내쉬면서 마음을 비우는 '명상'은 긴장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 또 틈날 때마다 팔을 머리 위로 쭉 뻗어 올리거나 목을 좌우로 가볍게 흔드는 간단한 스트레칭도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가 있다.

▲눈을 지압하면 정신이 맑아진다 =눈 주위 혈인 '태양'(눈썹의 바깥쪽으로 3㎝ 떨어진 지점), '찬죽'(눈썹 안쪽 끝)과 '사죽공'(눈썹 -바깥 끝), '청명'(눈동자 안쪽 끝), '동자료'(눈동자 바깥 끝) 등을 매일 2~3회 지압한 뒤 안구 전체를 손바닥으로 다시 2~3회 누른다.



◇대불련이 3일부터 6일까지 개최한 '제19차 한국불교 1600년대회'에서 평화통일을 서원하는 문화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통일발원 108배 정진

대불련 경주수련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는 3일부터 3박 4일간 동국대 경주 캠퍼스와 불국사에서 '제19차 한국불교 1600년대회'를 열었다.

4백여명이 참가한 이번 수련회에서는 경주 남산 슬라이드 상영, 대불련 문화제, 불국사 석굴암 순례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21세기 평화통일과 불국토를 염원하는 오체투지 및 108배 정진 시간이 마련돼, 참가자들은 등뒤에 만(卍)자가 새겨진 셔츠를 입고 용맹정진에 임했다.

이외에도 불교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통일에 이바지한 화랑정신을 되새기자는 내용으로 펼쳐진 유지선 대불련 지도위원장의 '화랑강의'는 대학생들로부터 인상 깊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또 마지막날에는 '아이스크림 빨리먹기' '전체 줄다리기' '퀴즈 게임' 등의 레크리에이션이 열렸다.

이향노 대불련 회장은 "남북간의 활발한 왕래로 통일에 대한 열망이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며 "이번 수련회를 계기로 대불련도 통일사업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청소년 단신

디지털 상담실 하계수련

청주 디지털 열린 상담실은 17일부터 2박 3일간 충북 제천 덕주사로 '하계 수련회'를 떠난다. 청주 관음사 학생회와 혜능 학생회 등 1백여명이 참가할 이번 행사에서는 사찰의식 교육과 레크리에이션 등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돌아오는 길에는 문경 민속박물관과 드라마 〈태조 왕건〉 세트도 견학할 예정이다. 회비는 2만원.
(043)256-6254

청소년 생활 참선교실

부산불교교육원은 8월말까지 '청소년 참선교실'을 연다. 성재도원장의 지도로 매일 2시간씩 진행될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바르게 앉는 자세, 단전호흡법, 마음 다스리는 법, 생활 참선법 등이 강의가 진행된다. 초등학생은 오후 2시부터, 중 · 고등반은 오후 5시부터 실시한다. (051)466-4080

제1기 자연화랑학교 열어

'새벽을 여는 아름다운 청소년의 모임 화랑단'은 1일부터 15일까지 보현자연수련원에서 '제1기 여름 자연화랑학교'를 열었다. 전국에서 모인 중고생 50여명이 참가한 이번 수련회에서는 명상수련을 비롯해 탈춤과 민요, 택견, 촌극 등 전통문화를 배우는 시간이 마련됐다. (054)772-1950

여성의 실무능력 향상 방법 소개

여성개발위 리더십교육

불교여성개발원 준비위원회는 18일~9월 15일까지 조계사 불교대학 4층 소법당에서 '여성 리더십개발 교육'을 실시한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여성 종무원을 비롯 교계 여성 활동가 50여명이 참여할 이번 교육은 여성들의 기획능력 향상과 의식전환 등을 위해 마련됐다.

실습과 토론 강의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될 이번 교육은 △18일, 여성활동 진단-정양희(서울 여성 노조위원장) △24일, 9월1일 기획능력-선세갑(시민사회 네트 소장) △9월8일, 의사소통기법-김남선(참교육 상담소 소장) △9월15일 회의 진행기법-송혁관(휴먼네트 소장)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02)722-2102

김주일 기자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술신삭(2개월 50만원), 술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액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체신왕기환(3개월 50만원)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오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대구여래한방)

의료법인 효성 양방 · 한방병원

문의전화 : (053) 655-2227, (011) 808-8880
(이사장 비서실) ☎ (052) 254-2600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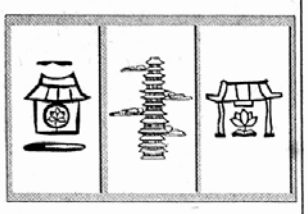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불치병(병명을 못찾는 분), 기관지 천식, 위장병, 정신 질환, 간질, 중출, 고혈압, 당뇨 치료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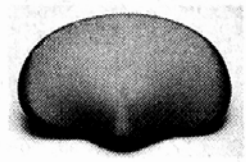
무료진맥 · 완치!!

기도포



기장 84cm×폭 39cm/ 재질- 면 가격:₩1,600

참선명상방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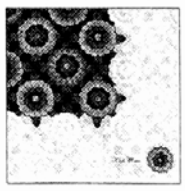


일 반 ₩30,000
숭기반 ₩35,000
황토반 ₩35,000

- 실용신안1999-025009
- 의장등록14387
- 인체공학적 설계로 척추보호

■규격: 39×43cm

불교전통창살문양손수건



- 재질 : 면/ 인쇄: 나염
- 문양: 용문사 대웅전 창살

가격:₩5,000

신세대 불자들의 신행수첩



- 지갑기능도 겸해 휴대가 간편
- 예불, 헌공, 법회, 의례, 찬불가까지
- 신행생활과 성지참배기를 요약기록
- 개인이 원하는 내용만 임의로 구성

가격
일반형(인조피혁)
₩25,000

산업자원부 추천 우수사이버몰

마 하 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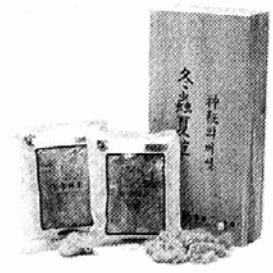
(http://www.mahamall.co.kr)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은 불교인의 정서에 맞는 불교 관련 제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쇼핑, 저렴한 가격, 마음껏 즐기는 불교문화 공간을 마하몰에서 만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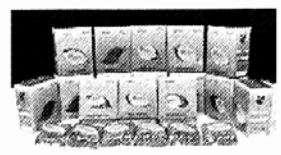
인터넷 마하몰에 오시면 더욱 많은 불교상품과 작품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 주문전화. 02-732-1522 (직통) 02-737-8881 (대표)



농장직판 – 신비의 버섯
동충하초
150g
1개월 복용분
가격 70,000원

감잎차



가격 ₩35,000원
(6g× 50개)

정사각틀 에밀레종



신비한 겉작품, 사이버 사운드, 완벽한 종소리의 재현!

규격: 20×31cm
재질 - 청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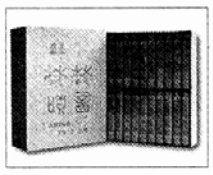
가격:₩210,000

수암 만다라 옥침



■가격 : 30,000원
■재질 : 천연옥, 무독성ABS수지, 황동, 24K순금도금테, 헤라이트 반영구자석 12007우스 X 4개

문구암스님 범음범패 테잎



■ 가격: 6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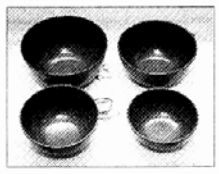
신상품 및 추천상품

발마사지 헬스기구



다양한 기능의 침단고급 재료로 제작
가격: ₩39,000

황토로 만든 수행자의 그릇 와 발 우



가격: 4합 ₩60,000 / 무게 : 2.7kg
2합 ₩30,000 / 무게 : 1kg

玉온열 건강벨트



원하는 온도조정(36.5℃에서 70℃까지) 가능
가격: ₩10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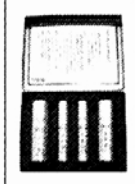
황토 냉온 찜질팩



용도
- 냉온 찜질용
- 노인성 통증완화에 찜질
- 야간 근무자나 추운곳에서 근무시 보온용
- 건강과 미용에 좋다

가격 : ₩28,000

석씨향방 오분향, 생기향세트



규격 4개 1세트

효능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효능이 있음

용도
- 불보살계 예불 기도 할 때
- 제사를 지낼 때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 하고 싶을때
- 공포를 느낄 때
- 조상의 영복을 빌때

가격 : ₩60,000

대나무 숯 염색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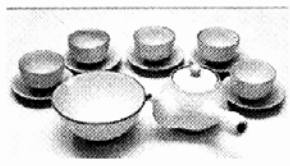
■크기 : 44인치 X 5.50야드 ■가격 : 60,000원
■색상 : 진회색/회색

눈안마기



눈의 피로 감소! 가격:₩49,000

고산다기



가격: ₩12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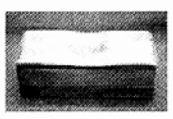
보원향 선물셋트

보원+단복침향+한방향+향꽃이



가격: ₩60,000

오동나무 목침



■크기
가로 30cm
폭 13.5cm
높이 9.5cm

■가격
개 폐 형 ₩20,000원
무개폐형 ₩15,000

불자반지



재질 : 금 · 큐빅(1.5돈)
※싸이즈는 호수에 따라 제작해 드립니다.
가격:18k₩130,000/ 14k ₩120,000

순금도금 은 한란양메달



▸ 용도및효능 남녀공용 브로치형 배당
▸ 재질 : 천연자수정大부착 은메달순금도금, 루비 석탑
▸ 효능 : 경화처용에너지가 발생, 가슴(차크라) 심장에 에너지를 공급

지름 : 4.5cm 가격 :₩4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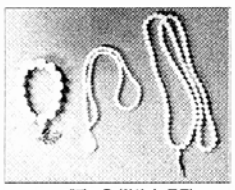
경 상



전통적 경상을 현실에 맞게 간편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 규격: 72×34×32cm · 재질: 느름원목
■가격:₩85,000

수암옥 염주세트



재질 : 옥 (원산지- 중국)
가격:₩98,000

마하몰 미니정보

마하몰에서는 불교상품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마하몰 미니 정보란」을 운영합니다..

다 구 (茶具)

다구라 함은 차를 맛있고 향기롭게 마시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필요한 그릇 및도구이다. 각자의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 **다관 (茶罐 :차주전자)**
물과 일차를 넣어 우려내는 도자기 주전자. 보통 주전자와 같이 손잡이가 위에 둥글게 붙은 것과 옆 따르는 주둥이의 반대편에 붙은 것이 있다. 주구의 안쪽은 거름망이 있어서 차의 찌꺼기가 주둥이를 타고 나오지 않게 한다. 주로 도자기로 만들어졌으며, 금,은으로 만든 것도 있다.

■ **다완 (茶碗 :찻잔)**
찻잔(다완)은 다관에서 우려난 차를 따라 마시는 작은 잔을 말하며, 시대와 모양에 따라 여러 이름이 전한다. 구는 원통형의 통잔, 완은 사발형의 가루차용, 종은 작은 반구형의 일차용을 이른 것 같다. 찻잔은 약간 두툼하여 쉬 뜨겁거나 쉬 식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일 찻물의 석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잔의 안쪽은 백색이 좋다. 일찻잔은 보통 5개(5인기)와 3개(3인기)로 손잡이가 없다.

■ **차시 (차숟가락)**
마른 차 일을 다관에 일정량 떠넣을 때 사용하는 숟가락. 주로 대나무나 먹감나무로 만들어 사용하며, 차측, 차살피라고도 한다.

■ **차탁 (차반, 잔 받침)**
찻잔의 물흐름을 받쳐주는 받침. 찻잔 받침은 원형, 타원형, 사각형, 배모양 등으로 주로 도자기나 나무재료이다.

■ **숙우 (熟盂 : 물식힘사발)**
다관에 물을 붓기 전에 끓인 물을 적당량 부어 알맞은 온도로 식히는 사발이다. 물을 붓기 좋도록 귀가 있어 귀사발또는 물식힘 사발이라고도 한다.

■ **다포 (茶佈 : 찻상포)**
찻상 바닥의 깔개 혹은 찻상 위에 덮는 것으로 삼베나 무명을 사용하여 물기가 흡수되어 정갈해 보인다.

■ **차통**
차통은 차의 변질을 막고 차를 보관하기 위한 것으로, 주석, 양철 등으로 만든 것에서부터 나무, 대나무로 만든 것도 있다. 모양은 통형, 기둥형, 단지형이 많다.

■ **다선 (차솔)**
대나무 껍질을 잘게 쪼게어 만든 것으로 찻사발에 가루차와 끓인 물을 붓고 휘저어서 융합 시키는 기구이다. 차선은 보통 80본,10본, 120본의 세 종류가 있으며 차의 양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보통 차선(80본)으로 100회 정도젓는다.

■ **찻상**
다구들을 올려서 행다를 하는 목재로 만든 상. 사각, 육각, 팔각, 원형,서랍형등이 있다.

■ **개인다기**
편리함을 위해 고안된 잔과 거름망, 잔 뚜껑으로 구성된 다기. 탕관 (湯罐 : 물 끓이는 솥) 물 끓이는 그릇으로, 신라 때에는 물 솥도 있었다. 지금은 의식 다례가 아니면 화로나 탕관은 사용하지 않고, 주로 주전자나 전기포트를 사용한다.
뫼수기 개수그릇이라고도 불리우며 처음에 다관과 잔을 데운 물을 버리거나 차를 우려낸 다음 숙우나 찻잔에 남은 찌꺼기를 버리는데 이용한다.

■ **여행기**
여행을 위해 부피를 줄인 작은 개인용, 다인용 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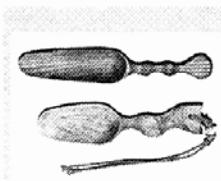
끝으로 다기를 선택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다기는 진열용이 아니다. 다른 도자기 제품처럼 예술성과 골동품적 가치만을 따질 수 없는 생활 자기임으로 유명도예가의 고가품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둘째, 실용적이어야 한다. 매일 사용하려면 편리한 기능과 도자기 제품으로 안정감이 있어야 한다.
셋째, 아름다워야 하고 쉬 실증을 느끼지 않을 만한 것이 좋다.



찻 상
재질 : 소나무 원목
가격 :₩54,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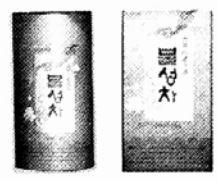


다 포
기장 50cm×폭 29cm/ 재질- 면
가격:₩800



차 시
제품에 따라 모양이 다름
가격 :₩15,000

불 성 차



가격 : 우전 ₩90,000 / 세작 ₩50,000
중작 ₩30,000 / 대작 ₩20,000

날개 CD



가격: ₩10,000

장군죽염분말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가 용이하도록 가루형태로 만든 제품

용량 : 200g
가격 :₩36,000

삼보죽염 낱개 1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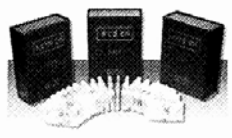


황토가마에서 아홉번 구워낸 삼보죽염 !!

전통죽염 제조장이시며, 인간문화재이신 효산스님께서 기술고문으로 제조합니다.

용량 : 200g 가격 :₩36,000

무비스님 특강테잎



금강경강의/ 지장경강의/ 진심직설강의
가격: 각 ₩45,000

영인스님 예불천수경 CD



가격:₩9,500

여름용 연꽃 순면티셔츠



▶ 자비소리



▶ 자비연꽃

자비 법음이 온누리에 울려퍼져
희망찬 미래를 염원합니다.

■재질 : 순면 100%(20수) ■색상 : 순백색
■칼라 : 9도칼라 나염인쇄 ■크기 : XXL, XL, L
■20장이상 구매시 10%로 할인
■100장이상 구매시 20%로 할인 단체명 인쇄
가격 : 6,000원

향적원… 고향의 맛을 선물로

본 제품은 순창군 복흥면(해발300M) 지역에서 직접 농사지은 우리 농산물로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무농약,무방무제,무조미료 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15도 이하에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판매가 (본 제품은 1kg 기준임)

· 고추장	12,000원
· 무우 장아찌	12,000원
· 된장	8,000원
· 마늘쫑 장아	12,000원
· 쌈장	8,000원
· 된장 콩잎	12,000원
· 더덕 장아찌	30,000원
· 된장 깻잎	12,000원
· 오이 장아찌	12,000원
· 산초 장아찌	30,000원
· 감 장아찌	12,000원
· 울외 장아찌	12,000원
· 나나스키	12,000원
· 간장(1.8L)	9,000원

백동훈 판각 작품

■ 규격 : 두께 - 3Cm, 가로- 45Cm, 세로-1m

■ 상품설명 판각이란 글씨나 그림 등을 나무에 새기는 작업이다. 평면에 표현된 묵필 또는 그림 등의 예술작품을 3차원의 공간으로 재해석하여 표현하는 예술세계를 말한다. 목판에 글,그림을 판각한 판각본은 원고 자체를 판목 위에 뒤집어 붙이고 한 자, 한 자 정성껏 새겨서 인출(印出)해 내는 것입니다. 판목(板木) 또한 매우 잘 다루어야 하며, 먼저 글자나 그림을 새기기에 적합한 나무를 배어 적당한 크기와 부피를 판목 시킨후, 짠물 또는 민물 웅덩이에 오래 담구어 결을 삭혔다가 밀폐된 곳에 넣고 쪄서 살충과 동시에 진을 빼냅니다. 그리고 충분히 건조시켜 뒤틀리거나 빠개지지 않게하여 판면을 곱게 대패질 한 후 간행할 내용을 종이에 써서 붙여 새기는 것입니다. 이렇듯 판각은 목재에서 서예, 그림 그리고 조각적인 부분까지 종합 문화 예술인 것입니다.



용수관음
나 왕 : ₩ 300,000
알마사카 : ₩ 330,000



쇄수관음
₩300,000
₩ 330,000



여람관음
₩300,000
₩330,000



양류관음
₩300,000
₩ 330,000



지장보살
₩300,000
₩ 330,000

약사여래
₩300,000
₩ 330,000

보비관음
₩250,000
₩ 280,000

불이관음
₩250,000
₩ 280,000

불자 넥타이

아미타 넥타이
각 ₩6,000
색상 : 검정, 자주, 회색, 파랑

단청[옴]넥타이
₩8,000
색상 : 단청

[옴] 넥타이
₩8,000
색상 : 회색

이렇게 들었다 — 정재 관리

조계사 신협의 과장과 조계종 총무원의 재무과장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고객 예치금을 불법 인출해 유용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사건은 불자들을 경악하게 만든다. 불교계의 공금횡령사건은 비리에 관련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재의 손실이요, 불교계 전체의 사회적 위상과도 관계되기 때문에 그 충격은 더 크다.

사찰이나 종단, 불교계 시설의 재정을 담당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은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인이고 대리인일 뿐이다. 그렇기에 정재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주의깊게 살펴야 되고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에 충실해야 한다.

이같은 불미스런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불교계 종사자 개개인이 초심으로 돌아가 정재를 지키고, 제도적으로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원적인 제동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부처님 말씀을 살펴본다.

주지 않는 건 일체 갖지말라

▨ 보살은 자기 재물에 만족할 줄 알기에 남을 사랑해서 침해함이 없다. 물건이 남의 것일 경우에는 남의 소유물이라는 생각을 일으켜 도둑질하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며, 심지어 그것이 풀잎일 때라도 주지 않으면 취하는 법이 없다. 하물며 다른 생활필수품이야 이를 것이 있겠는가? 〈화엄경〉

▨ 차라리 큰 불구덩이에 들어갈지언정 탐욕을 즐기지 말아야 한다. 〈대승계경〉

▨ 너희들 비구는 계(戒)에 머물 수 있게 되거든 마땅히 오근(五根)을 제어함으로써 방일(放逸)하여 오욕(五欲)에 빠져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니, 마치 소 치는 사람이 막대기를 쥐고 감시함으로써 소가 멋대로 날뛰어 남의 곡식을 못 먹게 하는 것과 같다. 만약 오근을 내버려둔다면, 비단 오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끝없이 번져 가서, 제어하려야 제어할 수 없게 될 것이니, 사나운 말을 고삐로 견제하지 않을 경우, 말 쪽에서 도리어 사람을 끌고 가 구멍에 빠뜨리는 것 같으니라." 〈유교경〉

▨ 항상 분소의(糞掃衣)를 걸치고 한 개뿐인 깨어진 발우를 지녀서, 나무 열매나 오이 뿌리를 씹으며 살아간다면, 그는 부처님네의 칭찬하는 바가 된다. 〈제법집요경〉

▨ 어리석은 사람은 범부가 되어 재물 모으기에 열중한다. 그리하여 때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 쌓아놓지만, 하루아침에 수명이 다하고 말 때, 재물은 그 몸을 따라 주지 않는다. 〈생경〉

▨ 분수를 넘는 탐욕보다 두려운 것 없고, 궁핍보다 더 큰 배고픔 없다. 가난을 탓하면서 베풀어 보시하지 않으면 가난의 두려움은 금생에나 내생에서 감당할 수 없으리라. 나의 가르침을 어리석은 사람들은 눈뜨지 못해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죽더라도 태어나는 곳은 서로 다르리라. 〈별역 잡아함경〉

▨ 안온함을 얻은 성인들은 소유를 버리고 떠난 것이다. 〈숫타니파타〉

▨ 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버리고 모든 속박으로부터 그대 자신을 해방시키라. 그리고 존재하라. 누구의 말을 빌 것도 없이, 인간의 목표는 풍부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풍성하게 존재하는 것이어야 한다. 더욱 적게 가질수록 더욱 사랑할 수 있다. 〈숫타니파타〉

▨ 시주한 물건이나 대중의 것, 나라의 것, 개인 소유물을 빼앗거나 훔치거나 속여 가지지 말라. 세금을 속이거나 배삯을 안 내는 것은 모두 훔치는 행위이다. 〈사미십계법〉

▨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말라. 주인이 있는 물건이든 도둑들이 훔친 것이든 바늘 한 개 풀 한 포기라도 자신이 훔치거나 남을 시켜 훔치거나 수단을 써서 훔쳐서는 안된다. 〈범망경〉

▨ 차라리 손을 끊을지언정 옳지 못한 물건은 가지지 말아야 한다. 〈사미십계법〉

▨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항상 깨끗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보시하기를 좋아하며, 무엇이든지 주면서도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불설재경〉

▨ 나는 왕자의 지위를 문름에 비치는 먼지처럼 보고, 금이나 옥 따위의 보배를 깨진 기왓장처럼 보며, 비단옷을 헌 누더기 같이 본다. 〈사십이장경〉

▨ 모든 부처님은 탐욕을 감옥, 그물, 독약, 그리고 예리한 칼날처럼 생각한다. 〈보살본연경〉

▨ 만일 법답지 않게 재물을 구하고 또 법답거나 법답지 않게 구하는 것은 모두 악이 된다. 〈중아함경〉

신행 캘린더

8월 16일 (수)

■ **중·고교 교사 위한 불교강좌**=새생각실천회는 18일까지 3일간 오전 9시30분~오후 12시30분 서울 혜화역(4호선) 부근 민들레영토에서 제2기 중·고교 선생님을 위한 불교 교양강좌를 개최한다. (02)313-7028

■ **독일 반텐 브로욱케 교수 초청 강연회**=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은 오후4시 동국관 L301호에서 '한국밀교의 서구적 이해'를 주제로 한 세계적인 석학 폴 반텐 브로욱케 교수(벨기움대·독일)의 초청강연회를 마련한다. (02)2260-8507

■ **구로승무사무소불자회 10주년법회**=철도청 구로승무사무소법우회는 오전10시 구로역 부근 관음포교원에서 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02)851-9050 박창식

■ **수요기도정진법회**=한국불교연구원은 오전11시 경기도 광주군 유마정사에서 수요기도정진법회를 봉행한다. (031)761-6167

■ **직장직능 불교단체 회의**=조계종 포교원은 오후7시 회의실에서 직장직능 불교신행단체 2차 실무위원회 회의를 연다. (02)720-7060

■ **정부기관 불자회 합동법회**=농림부와 보건복지부, 법무부 불자회는 오후6시10분 농림부 대회의실 3동 421호에서 청월스님(송광사 율원) 초청법회를 봉행한다. (02)500-2654 송은정

8월 18일 (금)

■ **동화사 자원봉사단 창단식**=동화사는 오후2시 통일대불전에서 제9교구 본·말사에 소속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구 자원봉사단 창단식을 거행한다. 자원봉사단은 사찰 및 지역사회의 각종 행사시에 행사지원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담당한다. (053)985-4404

■ **천불동 수련회**=천리안불교동호회는 20일까지 2박3일간 남원 실상사에서 수련회를 갖는다. 이번 수련회는 '불교와 환경'을 주제로한 특강과 도법스님 법문, 지리산 일대 불적지 답사, 영화관람, 수계법회 등으로 진행된다. 016-834-0405

■ **경남교사수련회**=조계종 포교원은 20일까지 고성 옥천사에서 전국교사불자연합회 경남 수련회를 개최한다. (02)720-7060

8월 19일 (토)

■ **선정회 철야정진법회**=선학원 선정회는 중앙선원 시민선방에서 8월 철야정진 참선법회를 봉행한다. (02)732-3327

■ **부산불교지도자 수련회**=부산불교신도회는 양일간(19~20일) 구례 화엄사에서 제15회 부산불교지도자 하계수련회를 개최한다. (051)464-2020

■ **조계종 신도회 임원교육**=조계종 포교원은 20일까지 월정사에서 강원지역 신도회 및 신도단체 임원교육을 실시한다. (02)720-7060

■ **전국 포교사 연수**=조계종 포교사단은 20일까지 부산 함지골 수련원에서 전국 포교사 팀장 지도자연수를 개최한다. (02)737-7588

8월 20일 (일)

■ **영산법화사 봉찬회법회**=영산법화사는 오전11시 장흥원당에서 세계평화 기원 불사리탑 건립을 위한 봉찬회법회를 봉행한다. (02)762-4922

■ **심우회 을지부대 신병교육대 대중공양**=심우회는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한 을지부대 신병교육대를 방문해 불자 장병들에게 합장주와 빵, 떡, 음료수 등을 나눠주고,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02)575-2525

■ **금강메아리 간월암 순례**=서울불교산악회 금강메아리는 충남 서산의 팔봉산을 등반하고 안면도 휴양림을 거쳐 간월암을 둘러보는 성지순례를 떠난다. 출발은 오전7시 동대문 이스턴관광호텔 앞. (02)772-9517

8월 22일 (화)

■ **비전향장기수 송환 축하 음악회**=불교장기수후원회와 수원포교당은 오후 5시 수원포교당에서 '그리운 산하, 아 통일이여'를 주제로 비전향장기수 송환 축하 통일음악회를 개최한다. (02)725-4277

■ **공무원불자 합동 성지순례**=조계종 포교원은 오후7시 회의실에서 공무원불자 합동 성지순례법회를 위한 1차 준비 회의를 연다. (02)720-7060

수화·구화로 장애인에 무료 운전교육

청각장애인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운전교육을 무료로 실시하는 불교단체가 있어 눈길을 끈다.

연화복지원은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송파구 탄천장애인 운전연습장에서 매주 월~토요일 오전10시~오후5시 무료 운전교육을 실시한다. 건청인 강사가 수화와 구화로 운전을 교육해 언어소통의 장애없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게 특징이다. 또한 매주 1회 이론교육을 병행하는 연화복지원은 교육생들이 합격할 때까지 무한 책임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에도 차량구입, 보험 가입, 도로주행 연수 문의시에는 수화통역을 해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02)2202-5831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법회안내

'관음신앙 이해' 설법



인환 동국대 명예교수 스님은 19일 오후3시30분 서울 구도법당에서 '관음신앙의 이해'를 주제로 설법한다. (02)3411-6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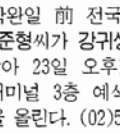
보현불교대 법문

의룡 직지사 승가대학장 스님은 16일 오후7시 대전 보현불교대학에서 법문한다. (042)624-6555

동화사 일요법회

혜곡 동화사 원주 스님은 13일 오전10시 통일대불전에서 열리는 '시민을 위한 동화사 일요법회'에서 '불교성전'을 교재로 법문한다. (053)426-9378

'불교의 본질' 특강



강건기 전북대 교수는 24일 오전10시 광주불교교육원에서 '불교의 본질과 신행'에 대해 특강한다. (062)228-9098

불교 구원관 강의



최봉수 동국대 교수는 22일 오전10시 정릉동 삼보정사에서 '불교의 구원관'에 대해 강의한다. (02)913-3746

게시판

알림

▲**연구논문 모집**=고암미술연구소는 고암 이응노의 작품 세계에 대한 연구 논문을 모집한다. 11월 15일 마감. (02)3217-5676

▲**사가 공모**=법장사는 31일까지 법화경을 중심으로 기도와 포교를 실천하고 성취해 나가는 법장사의 진취성을 표현하고, 보살행을 실천하는 불자상을 제시하는 밝고 희망적이면서 경쾌함을 반영한 사가(寺歌)를 공모한다. (02)971-0303

▲**무료진료**=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17일 오전10시~오후3시 지하강당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피부과 무료진료를 실시한다. (02)817-8054

▲**실크로드 탐방**=한국석불문화연구회는 9월29일~10월9일 서안, 천수, 난주(병령사 석굴), 과욕관, 안서(돈황석굴), 투루관(베제크석굴), 우루무치 등의 불교유적지와 관광지 그리고 현지인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실크로드 답사를 떠난다. 답사인원은 약 20명. (02)760-5171 유영열

▲**본동복지관 만화영화상영**=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양일간(17~18일) 지하강당에서 어린이를 위한 만화영화를 무료로 상영한다. (02)817-8054

모집

▲**후원품**=부처님마을 자광원은 여름 반바지(남자용)와 대형 디펜드(어른용 기저귀), 중고 TV, 선풍기, 치약, 칫솔, 빨래비누, 피죤, 멸치, 설탕 등 생활필수품 기증자를 기다린다. (031)759-5320

▲**불교기본교육 수강생**=조계사는 불교초심자 및 입문자를 대상으로 3개월 과정의 제29기 불교기본교육(주간반, 야간반, 토요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29일 개강. (02)720-1390

▲**여성봉사단 회원**=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녹색가게를 함께 운영하며 지역사회 환경운동에 이바지할 알뜰 여성봉사단 회원을 모집한다. (02)2282-1100

▲**간호 자원봉사자**=경희의료원은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자들에게 위안을 주고, 벗이 되어 줄 불자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958-8112 권혁운

▲**중고 피아노**=법장사는 법회에 사용할 중고 피아노를 기증해 줄 불자를 기다린다. (02)971-0303

▲**도서분류 봉사자**=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도서분류 전문봉사자를 모집한다. 봉사자는 1만여 권의 후원도서를 대출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돕는 업무를 맡게 된다. (02)385-1351

▲**식당 자원봉사자**=한솔종합사회복지관은 경로식당에서 식사준비를 도와 줄 자원봉사자와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요를 지도해 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31)716-4215

▲**금정불교대학 신입생**=범어사 금정불교대학은 교리반과 경전반 신입생을 모집한다. 교리반은 주·야간으로 나뉘며, 경전반은 〈금강경〉 〈육조단경〉 〈선가귀감〉 반으로 각각 세분된다. (051)866-7277

강좌

▲**발표력 향상 교실**=자양사회복지관은 초등학교 1~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4시 발표력 향상을 위한 강좌를 연다. (02)458-1664

▲**발맛사지교육**=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전문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해 31일부터 매주 목요일 14주간 발맛사지 교육을 실시한다. (02)734-0612

▲**과학·수학 특강**=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미취학아동과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2~24일 4일간 과학과 수학, 정보기술이 융합된 교육도구 레고닥타 과학교실을 연다. (02)577-5800

구인

▲**사무원**=광명선원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20대 여성불자를 대상으로 사무원을 구한다. (02)584-1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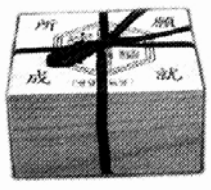
▲**간호사, 생활보조원, 취사부 직원**=인덕노인복지회관은 간호사(조무사 포함)와 생활보조원, 취사부 직원은 모집한다. (02)385-8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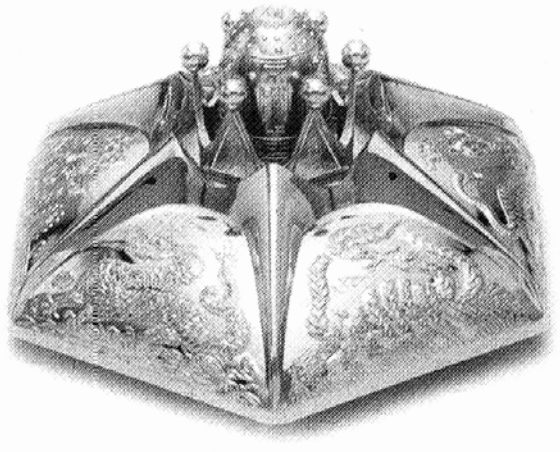
화촉

▲박완일 前 전국신도회장의 차남 **준형**씨가 **강귀생**양을 신부로 맞아 23일 오후1시 삼성동 공항터미널 3층 예식홀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02)551-0095

소원 성취 명당 육기(氣) 방

옛부터 금은 보화와 육신(神)을 가정에 두면 액운을 막아준다 하였고
(좌)청룡(靑龍) (우)백호(白虎) (남)주작(朱雀) (북)현무(玄武) 천하(天下)대장 지하(地下) 대장신(神)의 수호신인 육신이 항상 수호해 준다하여
소원성취 · 안전운행 · 사업흥왕 · 불화방지 · 가내화합 · 시험합격 · 악귀퇴치 · 극락왕생 · 선신수호 · 삼재예방 · 관재소멸 · 운수대통 하게하고
가정을 편안하게 해 주며 천(天) 지(地) 간의 좋은 기(氣)를 받아
나쁜 맥(脈)과 기(氣)를 막아 주고
좋은 혈장(穴場) 명당이 되어
자손대대로 무병장수하고 하는 일마다 잘되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명당 육기(氣) 방은 천지(天地)간에 좋은 기(氣)가 모여 혈장(穴場)이 되고 법종은 천지(天地)를 진동하게 울리며
모든 잡신과 잡귀를 내쫓고 범접을 못하게 하며
왕관은 관운과 재운과 명예를 얻고
큰 인물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며
범종과 왕관을 떠받이는 여섯개의 명산이 감싸고 있고
신의 수호신인 육신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항상 수호해 줌으로
언제 어디서나 어디로 가든 천지간의
좋은 혈장(穴場) 명당 자리라하여
신비의 황금 보물 명당
육기(氣)방이라 한다.

◆꿈의 계시◆

6년전 6월 비가 많이 내리던 어느날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얀 옷을 입고 키가 아주작은 할머니가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신의 수호신인 육신을 데리고 희미한 안개속에서 저를 부르며 빛이나는 황금 보물을 저에게 주시더니. 이 보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라. 좋은 명당 자리가 되고 기적의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시며 희미한 안개속으로 서서히 사라져 버렸다. 벌떡 일어나 보니 꿈이었다. 그렇게 많은 비가 내렸는데 비는 내리지 않고 하늘엔 구름 한점없이 수많은 별들이 빛을 내며 반짝 거리고 있었다.

◆육기(氣)방 사용 체험사례◆

· 집안에 우환이 잦았는데 우환이 없어지고 화목한 가정이 되었다.
· 말썽만 피우던 자녀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매우 착해졌다.
·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졌다한다.
· 자동차 사고로 차는 폐차 되었는데도 몸은 다친곳이 없었다.
· 사업고 잘되고 장사가 잘되었다.
· 안되던 배(선박) 사업도 사고없이 잘 되었다.
· 술먹고 도박하고 방탕생활 하던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오고 화목해졌다.
· 스님의 글을 넣어도 좋습니다.

◆사용처◆ ※모든 불자님께 꼭 권장하고 싶습니다.

가정집, 공장, 공부방, 새집터, 가게, 사업장, 자동차, 선박, 묘지, 장의사(관), 종합(재), 사십구제, 천도재 등 여러곳에 사용함.
실용신안 · 의장등록 · 상표등록 (특허출원)

◆구 입 처◆ 전국불교용품점, 사찰 · 암자, 철학관

(주)명당육기(氣)방: 051)865-9933
공 장: 051)864-7878
홈페이지 :www.6kibang.co.kr

◆ 생각치도 않은 좋은 신기(新奇)의 기적(奇蹟)들이 많이 일어 난다고 하여 신(神)이냐 기적(奇蹟)이냐 하는 소리가 많다.◆

교계 첫 호스피스 요양원 탄생

충북지장봉사회 '정토마을' 9월 개원
의사·간호사·의료시설 갖춰 임종 간호
양로원·불교 장례시설도 건립 추진

불교 호스피스전문 요양원이 처음으로 건립됐다. 충북불교자원봉사교육센터(소장 능행스님)는 최근 말기(임종) 환자들의 무료 요양원인 정토마을(원장 능행)을 건립, 불교 호스피스 활동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96년 설립되어 충북지역의 호스피스 및 자원봉사 활동을 이끌어 온 이 단체는 정토마을 설립을 계기로 호스피스 전문 교육장을 마련하게 돼 한 단계 높은 불교 호스피스 활동을 펼치게 됐다. 호스피스란 임종을 앞두고 있는 말기 환자의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평화로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무료 봉사활동을 말한다.


◇정토마을 원장 능행스님이 '아미타 호스피스의 집'을 가리키며 활동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단법인 불교자제공덕회(이사장 묘희스님) 산하 시설로 등록한 정토마을(일명 '아미타 호스피스의 집')은 현대의학으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들을 위한 전인치료센터. 충북 청원군 문의면 남계리 소재 4000여평의 부지에 1차로 300평의 호스피스 전문 요양원을 마련, 9월말 개원식과 함께 임종 6개월 이내의 호스피스 환자 10~15명(스님 우선)을 간호할 수 있게 됐다.

인근 종합병원과 노인병원의 자원봉사자 의사들과 3명의 간호사가 충분한 의료시설을 갖춘 현대의학으로 간호하면서 황토 찜질방, 황토물(맛사지) 월 풀, 아로마(향기) 치료요법 등 한방 및 대체요법을 곁들이며 법당에서 수행도 할 수 있도록 해 심·신 양면에 걸친 치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충북불교자원봉사교육센터는 오는 16일부터 내년 10월 11일까지 8주간 교육과정을 밟는 제11기 전문 호스피스 및 직업간병인 교육생 중 호스피스 교육생을 이곳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해 전문 호스피스 교육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충북불교자원봉사교육센터는 앞으로 3층, 600평 규모의 양로원을 건립하고 장기적으로 불교장례시설도 갖춰 종합 양로·의료 복지센터를 완공할 예정이다.

청주·청원지역에서 활동하는 충북지장봉사회(회장 능행스님)가 모체가 되어 설립된 충북불교자원봉사교육센터는 창립 5년만에 200여명의 봉사회원을 확보, 7개의 병원·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 호스피스계를 이끌 정도로 괄목할만한 업적을 쌓았다. 10기 호스피스 교육을 실시하는 동안 400명의 간병인(유료)과 50명의 호스피스(무료) 봉사자를 양성했다.

정토마을 원장 능행스님은 "타종교의 공격적인 병원 선교로 죽음 앞에서 흔들리는 "평생 불심"을 지켜주는 것이 간병·호스피스"라면서 "이제 시작 단계인 불교 호스피스에 불자들의 참여와 성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호스피스 활동이 활발한 지역별 봉사단체는 충북지장봉사회를 비롯 대전 아미타상조회, 경주병원불교회, 광주 자비신행회, 부산 바라밀간병회와 불교복지보건대학, 대구 불교사회복지회, 인천 피안사회복지회, 제주 화천사 호스피스봉사단 등. 이들 단체들은 온갖 어려움을 뚫고 타종교가 뿌리내린 간병·호스피스봉사 영역을 파고들어 불자 및 환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청원=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종단소식

조계종

쌍용양회 시험발파 촉구

총무원(원장 정대)과 월정사(주지 현해)는 4일 강원도지사 앞으로 삼화사 인근 석회석 광산의 시험발파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은 "7월 3일 삼화사와 쌍용양회(주), 조계종, 정부 당국의 합의에 따라 7월25일 시험발파 및 측정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쌍용양회측의 무리한 협의조건의 수정요구로 인해 시험이 무산됐다"면서 당국의 공정한 발파 시험을 촉구했다. 삼화사도 3일 강원도와 동해시에 '쌍용양회 석회석 채취허가 취소 요청서'를, 강원도경찰청장과 동해경찰서에 '화약류 사용허가 취소 요청서'를 각각 발송했다.

태고종

사정원 부원장 백우스님

7월 26일 선암사에서 열린 제78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이백우스님이 사정원 부원장으로 재선출됐다.

선암사 운영위 규정 제정

태고총림 선암사 운영위원회는 7월 27일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고 17조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규정을 제정 공포했다. 운영위는 선암사 주지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선암사 재적승 20명과 종단 중진 간부 및 각 시도 교구 종무원장 중 총무원장이 선임한 20명 등 총 41명으로 구성되며 △총림의 회주 및 조실 추대 △선암사 주지 선출 △총림 및 사찰의 재산관리·규약제정 및 개정·사업계획과 예결산·감사 등을 맡는다.

천태종

상월 대조사기 배구대회

제27회 상월원각 대조사기 전국 청년회 배구대회가 20일 오전 8시 영춘중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된다. 배구, 씨름, 팔씨름, 릴레이, 단축 마라톤, 줄다리기, 족구 등 7경기를 하루에 치르는 이번 배구대회는 9인조 극동식으로 진행되며 작년도 배구 우승팀인 울산 정광사 청년회를 비롯한 45개 팀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각종

장애인 보호시설 개원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은 3일 의정부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곰두리네 집' 개원불사를 봉행했다. '곰두리네 집'은 연면적 168평 규모의 지상 1층 건물로,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월~금요일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 30분, 토요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보호한다.

원융종

총무원 이전법회

총무원을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13-80 한빛빌딩 4층으로 확장이전하고 18일 오전 11시 이전법회를 갖는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 전국 주지총회를 개최, 종단 하반기 사업에 관해 논의한다. (02)853-0531

진언종

남북 8·15법회관련 성명


손금광 종리원장〈사진〉은 10일 광복 55주년 기념 남북 불교도의 8·15 동시법회에 즈음한 성명서를 내고 "민족의 자주와 단합, 조국통일 기원 8·15 동시법회를 개최함은 조국통일에 대한 민족적 염원은 물론 전 불교도의 비원을 모으는 중요한 결집"이라며 "이러한 법회가 일회적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통일을 주도하는 민간통일운동의 중심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성철스님 생가 복원

가사등 유품 전시…사찰도 들어서




◇성철스님과 지리산 산청에 자리잡은 스님 생가·사찰.

94년 입적한 성철 스님의 생가가 경남 산청군 단성면 묵곡리에 사찰과 함께 복원됐다.

성철스님의 제자들과 산청군이 복원해 기념관으로 꾸미고 있는 생가와 관련 건물은 이미 완공돼 일반에 공개됐으며, 주변경관을 단장하는 작업이 마무리되는 10월에 정식으로 문을 연다. 지리산 남강변 3천여평의 공간에 50억원을 들여 시작한 이 불사의 사업비 중 12억원은 정부예산(교부세) 이며, 나머지 38억원은 신도들이 모금했다.

생가는 모두 3채의 한옥으로 안채와 사랑채, 그리고 유품전시실로 사용된다. 안채는 성철 스님의 영정을 모시고 일반인들이 참배하는 공간이며, 사랑채는 외부인이 머물 수 있는 숙소로 사용된다.

유품전시실에는 성철 스님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해인사 백련암에 보관돼 있는 스님의 가사, 장삼, 지팡이, 육필원고 등 유품을 옮겨와 전시할 계획이다.

생가를 복원한 터에는 새로운 사찰이 함께 들어섰다. 대웅전과 참선을 할 수 있는 선방, 스님들이 머물 수 있는 요사채 등 건물은 이미 완공됐다. 사찰은 불필 스님이 이끌고 있는 문도회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해탈사 2000기 탑공원 조성

망자의 시신을 화장한 후 탑에 안치하는 불교식 장례법을 현대화한 탑공원이 경남 마산에도 등장했다.

최근 마산시 합포구 진전면 여양리 태고종 해탈사(주지 도정) 경내에 조성된 탑공원은 기존의 매장문화가 일부계층의 호화분묘, 국토의 묘지화 및 무연고 분묘의 증가 등 여러 사회문제를 일으키는데 비해 절 경내에 화장한 유골을 모시는 탑을 세워 당대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대대로 관리와 이용의 편의로 도모한 것이 특징. 3만여평의 공원부지에 2000여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주지 도정스님은 "좁은 국토에 매년 여의도 크기의 땅이 묘지로 변해 장례비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왜곡된 장례문화 개선에 탑공원이 일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055)221-8410 김재경 기자

댐건설로 보림사 성보 위기

최초 구산선문…안개에 문화재 부식 우려

보림사철조비로자나불좌상(국보 제117호) 등 국보 2점과 보조선사 창성탑(보물 제157호) 등 보물 8점을 보유한 구산선문 최초의 사찰 보림사(주지 현광)가 탐진다목적댐 건설로 문화재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현재 공정의 50%가 진행되고 있는 탐진댐이 완공될 경우 사찰인근 700m까지 물이 차올라 전남 장흥군 유치면 봉덕리에 소재한 보림사의 귀중한 성보가 안개일수 증가와 일조량 감소 등으로 부식·훼손될 위기에 처해있다.

건설부와 수자원공사가 모두 6천억원을 투입해 지난 97년말 착공한 탐진댐 공사는 공사용 배수로 공사가 이미 완공되었고 현재는 가물막이댐, 본댐 기초굴착 공사, 이설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02년 말 준공 예정인 이 댐은 전남 서남부 9개 시군의 생활공업용수 공급과 탐진강 중하류지역 홍수방지를 위한 것으로 유역 면적 193㎢에 총저수량 1억9천100만㎥의 중규모 다목적댐이다.

보림사 총무 성관스님은 "이미 댐 건설 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되어 뒤늦게 반대운동을 펼칠 수도 없게 되었다"면서 "사찰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더라도 당국이 문화재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법화종 도라전망대에 '평화의 종' 건립

광복 55주년을 맞아 세계 평화와 7천만 겨레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평화의 종'이 북녘땅이 바라다 보이는 도라전망대에 봉안된다.

대한불교 법화종(총무원장 법홍)은 22일 오후 1시 전진부대 도라 전망대에서 '평화의 종 불사 회향 대법회'를 봉행한다. '평화의 종'은 약 1천관으로 국보 29호 성덕대왕신종의 모양을 본떠 제작됐으며 이날 법화종 종정 금파스님 등 내외 귀빈들에 의해 33번 타종되어 통일염원을 담은 장중한 범음을 북녘 하늘로 띄워보내게 된다.

법화종은 평화의 종 봉안식에 앞서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1시간동안 호국영령 및 순국선열 유무주고혼 위령 천도대재도 봉행,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된 호국영령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한다. 이경숙 기자

中 티베트 종교탄압 강화
예불금지·종교상징물 철거

중국은 티베트인들의 집에 경찰을 보내 제단과 성상, 탱화 등 종교 상징물들을 수거하고 초등학생들이 사원에 가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등 종교적 억압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티베트 인권 및 민주화운동 센터'가 2일 밝혔다.

아봐타 코스는 자기 자신이 온전한 주인이 되어 뜻대로 사는 길입니다.

아봐타 코스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이 선택하기만 한다면 당신의 삶 전반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봐타 센터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 아봐타 코스는 7~9일이 걸리며 비용은 180만원입니다.
·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 bukba@kornet.net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 396-2736 H·P 016)228-2358
FAX 02) 396-27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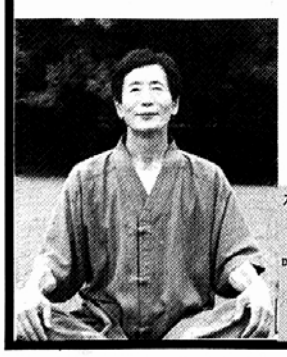
진아 꽃 피우는 방편의 꽃
우 담 바 라
(하나한)

안은 엷어지나 밖이 두터워지는 비움 넘고
걸려들지 않으나 함께 못하는 바라봄 넘고
틈새 하늘 뿐 구름 못여는 이뛰꼬 넘어

부분에서 전체 찾아 相 집착 벗고
자연과 하나되어 담뿍풍당 業習 벗고
자아 경계 자유로이 머묾없이 마음내는 길

《체험소감》

"엄마 자궁 몸나 아닌 내 자궁 얼나로 부활영생 참 경지" - 신부
"먹고 싸고 보고 듣고 일함 모두를 道로 노자 소원 성취" - 교수
"아름我품 나아짐- 나我짐 참나의 근원적 예방 치유 길" - 의사
"구름사이 하늘 아닌 구름여는 법 애고 가득 채워 해결" - 스님



특 징
※궁극 현실 조화 좋아 겨냥
※언어 마음이전 존재 발굴
※종교 안밖 모든 방편 용해
※심각 아닌 진진 놀이 진행
※추가 과정 없이 한판 전수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517-1
031)885-1011/016)206-1001
매월 셋째 월15:00~토 15:00(55만원)
농협 111-12-336006 윤 석태
(일주일 전 예약 요망 준비 필요)

불교단체
사무직원 급구

종무행정직 사무장 및
전산사무직, 편집기자
(고등학교졸업이상 남여40세 이하)
※ 경력자 우대

■ 인 원 : 0명
(서류접수 = 이력서, 사진첨부)
■ 근 무 지 : 서울지역
■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북대구 우체국 사서함 22호
붓다사랑
■ 연 락 처 : 053)954-4047
■ 접수마감 : 2000년 8월 25일
■ 당일 소인 유효

분양 합니다

여기
예쁘고 튼튼한
집을 지었습니다.
불자가 지었습니다.

32평형 40평형
주차장도
넓고 편리합니다.

보통 걸음으로
불광역 3호선이 7분
독바위역 6호선이 1분

최고의 품질
우아한 인테리어
그 집
아트 빌, Art Ville

불자님들께 분양합니다.

◆분양문의◆
02) 387-9060
017) 215-9060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의 기적 '용린佛字체'

"오복을 가져오는 새천년시대 용의 꿈을 꾸세요~."







꼭 소장하여 할 가장 고귀한 진품 명품
⊙ 신기·영기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그림, 龍자 그림(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龍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복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대한민국 미술작품 화랑방 (korea art gallery)
http://www.korea-art-gallery.org
http://www.cmhouse.net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부부갈등 등 담담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 생명의 전화 : (02)2242-0331, FAX (02)2242-0255
E-mail :unjang21@ kornet21. net

●주문 신청방법 서울은행 28707-0452510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만나야 할 사람들

8월 15일의 역사적인 만남은 모든 이산 가족들의 아픔을 달래고 일상을 함께 나누는 주위 인연들의 소중함을 새삼 일깨워주는 만남이다. 만나야 할 사람들, 가야 할 땅을 반세기 동안 가슴에 품고 그려오던 이들의 간절한 마음들이 여한 없이 풀릴 수 있길 발원해 본다. 말 그대로 빛의 날이 될 2000년의 광복절을 일주일 앞두고 망모의 슬픔을 안고 고향 땅 북녘으로 가게 될 장이윤 거사와 남녘으로 오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수도화 보살을 미리 만나 보았다.

'평양가는' 장이윤 거사

109세 어머니 사망 가까이 가서 애도



"관세음보살." 살아 계신 줄 알았던 109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실신해 쓰러졌던 장이윤(70)거사가 깨어나며 긴 한숨처럼 토해낸 첫마디다. 북의 어머니 구인현씨를 만날 설레임으로 20일간을 영겁처럼 여기며 보내던 장거사에게는 청천벽력이었다.

새벽마다 금수사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오직 어머니의 건강만을 기도하며 그동안 선물로 가져갈 목걸이, 팔찌, 반지를 포장하며 귀에 귀걸이 구멍 뚫린 흔적이 있으면 우리 오마니라며 귀불을 만져보고 품에 안겨 실컷 울겠다던 장이윤 거사는 본 기자와의 인터뷰도중 찾아온 적십자사 직원이 북에서 온 나쁜 소식이라는 말을 건네자 직감적으로 알아 차렸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나 혼자만의 비극이 아니고 민족의 비극이야." 장이윤거사는 병원응급실에 실려가 신경안정제를 투여 받았지만 쉽사리 안정을 찾지 못하고 간간이 잠에서 깨어나 이런 비극은 두번 다시 없어야 한다며 울음을 터뜨려 주위를 숙연하게 했다. 세월이 너무 흘렀다는 장거사의 절규는 고령 이산가족의 빠른 상봉을 촉구하는 듯했다.

어머니 품에 안기려던 막내아들의 꿈은 무상하게 사라졌지만 그러나 장이윤거사는 어머니의 땅 고향에서 또 한번 어머니와 관세음 보살을 눈물로 부르고 돌아올 것이다.

'아들이 서울로' 수도화 보살

50년 기도공덕 꿈같은 모자 상봉



내원정사에 살고 있는 수도화(88) 보살은 김일성 대학 교수인 아들 조주경(68)씨를 만나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어릴 때부터 착하기만 하던 주경이가 어디서 뭘 하나 했는데 부처님께서 돌봐주셔서 이렇게 만나니 감사합니다." 수도화 보살은 무슨 말이든 끝은 꼭 감사하다는 말로 맺는다.

"들리는 소문에 다들 선물을 준비한다는 거야. 50년 동안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에미 가슴이 덜컥 내려 앉았어. 그래서 없는 형편이지만 선물을 준비했지." 수도화 보살은 아들에게는 금목걸이, 며느리는 금팔찌를 준비했다.

김영오 서구청장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해 달라고 건넨 손목 시계와 내원정사 주지 정련 스님이 준비해 준 보살의 사진 액자 등도 가져간다.

"50년 만에 아들을 품에 안고 실컷 울고 나면 시원하겠어. 짧은 시간 함께 하고 돌려 보내야 하지만 그래도 법이 그런 걸 어쩌겠어. 이렇게 살아서 만나보는 것이 감사할 뿐이지."

짧은 만남이지만 50년 세월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몸으로는 함께 하지 못했지만 단 하루도 아들과 함께 하지 않은 날이 없었기에.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남과 북 마음 나누면 좋은 벗"

좋은벗들 '북한 이탈주민 사회적응 심신수련' 열어
문경 정토수련원서 5일간…민간단체 첫 위탁교육

지난 9~13일 문경 정토수련원(원장 묘당법사)에서는 특별한 수련회가 열렸다.

이른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심성수련'. 좋은벗들(이사장 법륜스님)이 북한 이탈 시점이 1년 미만인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간관계 수련 프로그램인 '나눔의 장'은 남북화해 분위기가 고조되고 남북교류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민간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된 위탁교육(행정자치부 민간단체 지원사업)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명칭과는 달리 첫날 일정에서는 이런 기대감이 산산이 부서졌다. 예상과는 달리 15명의 신청자중 7명(여성은 3명)만이 참가했으며, 참석자들도 쉽사리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 통일부 산하의 정착지원사무소인 '하나원'에서 나와 직장이나 대학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들이지만, 아직은 보호관찰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은 이들이 대부분이어서 경계심이 적지 않았다. 실질적인 이득이 없는 교육을 받기 위해 깊은 산골짜기에 온 것을 후회하는 이들도 있었고, 도대체 무슨 세뇌교육을 시키는지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는 이들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이들의 불안감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이내 풀렸다. 지도하는 난승 법사(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연구위원장)의 솔직하고 편안한 진행으로 이내 긴장을 풀고, 서서히 수련과정에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것이다.

닫힌 마음과 각종 스트레스로 야기된 불안 및 억압심리를 근원적으로 해소시켜 안심입명(安心立命)과 원만한 대인관계의 원리를 터득하게 한다는 '나눔의 장' 프로그램이 서서히 효과를 나타냈다.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과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한 느낌(무의식, 본래마음)의 교류를 통해 하나 되는 '좋은 벗'들이 되어 간 것이다.

난승 법사는 "나눔의 장을 통해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통합 과정에서 부딪치는 정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8~10월까지 4박5일 과정의 나눔의 과정을 매달 진행하면서 점차 이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보완해 수련인원도 늘릴 생각이라는 난승 법사는 수련결과를 분석, 〈통일마당-심리수련으로 극복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부적응 심리와 남북한의 화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휴전이후 2000년 2월 현재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총 1097명. 국내 거주자는 891명(사망 182명, 이민 34명)이다. 정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지원법 등에 의거해 사회적응교육시 초기 인성 심리상담, 정서순화를 위한 종교행사 실시 등을 권유하고 있지만 불교계의 관심은 이제 시작단계다. 북한이탈주민 200여명이 종교·사회단체와 결연중인 가운데, 개신교계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협조아래 80여명이 1가정 1교회 결연을 추진중인 것과 대비된다.

'통일이후의 북한 포교'란 화두를 던진 이번 수련회는 북한주민 포교가 공급자 위주의 주입식 포교가 되어서는 안되며, 정작 그들이 힘들 때 필요로 하는 정신적 양식이 되어야 함을 일깨웠다.

문경=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탑 관리인 원상회복" 문화부, 경북도에 공문

전북도와 진안군의 마이산탑 관리인 교체와 관련(본지 277호 23면 기사 참조), 문화관광부 박지원 장관은 3일 전북도지사 앞으로 공문을 내고 "마이산 탑사 탑 관리자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장관은 공문에서 "귀 도 관내인 진안군에 소재한 마이산 탑사 경내에 조성돼 있는 석탑군의 관리자를 전라북도가 탑사 주지에서 진안군수로 교체한 것과 관련, 종단협과 태고종 등에서 신앙의 대상인 탑의 관리자를 관람료 배분 문제 등을 이유로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교체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원상회복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면서 "귀 도가 불교계의 의견에 대해 십분 참작 귀 도와 태고종이 상호 협력하는 분위기에서 동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산청군 사찰 3곳 조직적 훼불

경찰, 용의자 석방 '빈축'

경남 산청군내 사찰 3곳에서 개신교인으로 추정되는 5명에 의해 조직적인 훼불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29일 산청군 시천면 지장암과 천문암에서 30대 중반의 짧은 옷 차림의 여자 5명이 불상과 탱화를 부수고 산신각을 훼손했으며, 이에 앞선 10일전에도 청천암에서 불상을 파괴해 인근 사찰에 비상이 걸렸다.

이와 관련 산청경찰서는 현장에 있었던 봉고차의 차적조회 끝에 지난 5일 용의자인 양모씨의 신병을 확보, 조사를 벌여 범행일체를 자백 받고 6일 일단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청경찰서 관계자는 "범인이 어린아이 2명을 혼자 키우고 있고, 공범들을 한꺼번에 체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석방했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나 죽으면 화장" 59%
보건사회硏 1천명 설문

화장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가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서울·경기·인천지역에 거주하는 만 30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씩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묘에 대한 수도권 주민의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59.1%가 자신이 사망했을때 화장을 하겠다고 응답했다.

화장 후 처리방법으로는 62.4%가 '산이나 강에 뿌리겠다'고 답했으며 '납골당에 안치하겠다'(27.6%) '납골묘에 안치하겠다'(5.8%)는 응답이 주류를 이뤘다.

한명우 기자

"美 한국전쟁때 사찰파괴 배상"

불교인권위 사례조사

"미국은 한국전쟁시 사찰 파괴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라."

불교인권위원회는 (가칭)'한국전쟁시 미군에 의한 한국사찰 파괴 배상 추진위(공동위원장 진관, 지원)'를 구성, 9일 종로구 안국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한 사찰의 피해사례와 미군의 명령문서 등을 조사해 제네바 전범재판소에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6·25전쟁 당시 미국은 불교를 말살하기 위해 강원도와 지리산 일대에 계획적으로 융단폭격을 감행해 많은 사찰과 불교유적들이 파괴됐다"며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는 한편 조선불교도연맹에게도 합동으로 배상청구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두식 기자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포교 소책자를 나눠주고 있는 능인선원의 포교본부 회원들. "거리포교가 기독교식이라는 거부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생각의 틀이 바뀌지 않는 한 불교의 입지는 더욱 좁혀질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능인선원 불자들 '거리포교'

"부처님 법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절에서도 길에 나와 '전도' 하나요."

4일 오후4시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10여 명의 능인선원(주지 지광) 신도들이 터미널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찾아서〉라고 적힌 소책자와 능인불교대학 홍보지를 나눠주자 관심을 보이며 건넨 말이다. 타 종교계에서 하나님을 믿으라며 따라 다니는 것은 봤어도 불교계에서 거리에 나와 포교를 하는 모습은 생소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능인선원의 활동은 요란하지도, 집요하지도, 강요함도 없다. 그저 여행객들이 흔히 사보는 신문같은 읽을거리이니 한번 보지않겠느냐는 가벼운 제안이 있을 뿐이다.

역·터미널·등산로서 포교책자 나눠주며 불교인연 맺어주기

능인선원의 이같은 활동은 '오는 사람 마다 않고, 가는 사람 안 막는다'는 불교계의 정서와 소극적인 포교관행에서 벗어나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포교방법이라는 데 관심을 끈다.

능인선원은 지난 1월부터 한달에 3~4회 동서울버스터미널,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서울역, 롯데월드 등산로 입구 등에서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다. 활동의 원칙은 단정한 용모와 정중한 태도로 종교단체의 거리활동에 식상해 있는 시민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는 것. 포교 못지않게 불교계의 이미지 관리에도 세심한 신경을 쓰고 있다. 거리포교는 인근 휴지통이나 화장실을 둘러보며 버리고 간 홍보물을 수합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불교책자가 바닥에 나뒹굴며 함부로 취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기이기도 하지만 그날의 활동을 점검하고, 반성하면서 좀더 발전적인 포교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다.

포교본부장 표금강궁 보살은 "사찰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소극적인 포교에서 탈피, 직접 거리로 나가 일반 시민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와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필선 기자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스님" 이젠 바꾸세요
"불자님" 절에 갈땐 "바랑"을 메세요

■ 특허청 : 상표등록증 등록제 0472513호


▲B-1001 ₩40.000


▲B-1002 ₩35.000


▲B-1008(中) ₩25.000


▲B-1003(大)₩35.000


▲B-1004(小)₩33.000

■ 벙 거 지


<팔각>
▲B-1005 ₩20.000


<타원형>
▲B-1006 ₩20.000


<조리개, 끈>
▲B-1007 ₩20.000

※ 본 바랑 및 벙거지는 小白山 金剛寺 노스님 선방 건립을 후원합니다.

금강사 ☎(054)636-6546/632-6546

입금계좌 외환은행 : 223-22-03071-5
농 협 : 061-17-001230
우 체 국 : 013805-01-001737

제조·판매원 **천화무역(주)** TEL. 02)449-8844,449-9100

■취급점 모집■
가까운 곳에서 구입하십시오

서 울	건지불교사	02)739-3032		성 불 사	02)735-3543	제일불교사	02)735-0918
	대 북 전	02)737-0969		이화불교사	02)720-1700	도선사매점	02)906-2279
	구 봉 사	02)575-7766					
부 산	보 다 가 아	051)866-4383		고려불교예술원	051)807-6842	산사의뜰(법어시)	051)508-6300
	사찰불교연합회	051)205-4535		한세물승복사	051)842-6020		
대 구	성명불교전시관	053)425-4097		동화불교사	053)255-0784	봉은승복사	053)424-5462
광 주	금 성 사	062)369-1937		태동불교백화점	062)224-6696		
대 전	보문불교서점	042)257-0161		동혜불교미술원	042)274-3727	대구승복사	042)254-8772
경 기	수원봉녕사	031)256-4127		수원포교원	031)253-1055	양점불교사	031)771-4747
	구리한울	031)563-7554		이천고려한울	031)633-6023	용인성원불교한울	031)336-0337
	의정부불교한울	031)842-8671					
경 북	포항안국불교전시관	054)241-2402		영양계은동천사	054)682-9848	안동보리수불교사	054)854-2114
	영주불교상회	054)632-2248		김천은혜사불교용품	054)433-4179	경주불교서점	054)749-1580
	구미불교사	054)453-3077		상주불교상회	054)535-2474		
경 남	진주관음불교사	055)743-4655		진주제일불교사	055)742-8174	마산불교종합전시관	055)255-6678
	김해일광불교사	055)325-0780		창원경남불교전시관	053)295-8911	화 동 철 보 청 사	055)883-7771
강 원	원주금강불교사	033)743-7442		강릉관음불교사	033)642-8880	홍천아하불교사	033)434-8446
	춘천동해불교사	033)256-9841		치악산구룡사팔각점	033)732-1216		
충 북	충주구천불교사	043)848-8411		제천불교사	043)645-7517	청주불교만물사	043)258-4725
충 남	천안불교백화점	041)551-4785		조치원동일불교사	041)865-4544	공주백제불교사	041)855-5621
전 북	이 리 유 기	063)855-3883		전주상춘각	063)274-6639	정읍거북불교사	063)532-2996
	남원불교사	063)625-0234					
전 남	목포정복원불교용품	061)243-2453					
인 천	인천제일불교전시관	032)505-3861					
울 산	대한불교전시관	052)260-6617					



◇무주산 남쪽 기슭 1㎞에 걸쳐 조성된 운강석굴 전경.



◇운강 20호 굴의 노천대불좌상(14m).



◇항산의 서쪽 취병봉 남쪽러지에 건립된 현공사.

운강석굴 5만불상 살아 움직이듯…

동국불교미술인회 중국 불적답사 동행기

동국불교미술인회(회장 이진형)는 3일부터 8일까지 중국 오대산 불적답사 및 한·중 불교미술문화교류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조각과 탱화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불교예술인들이 주축이 된 36명의 답사객들은, 중국 불교 4대 명산의 하나로 찬란한 중국불교문화가 살아 숨쉬는 오대산과 석굴 예술의 보고인 운강석굴 등을 꼼꼼히 둘러봤다. 특히 처음으로 개최된 불교미술문화교류 학술대회는 한·중 문화교류의 새로운 물꼬를 텄다는 평가다.

전날 비가 온 탓인지 북경의 밤은 예상과 달리 덥지 않았다. 하지만 웃옷을 벗어 던진 채 길거리로 뛰쳐나온 시민들의 모습에서 섭씨 40도를 넘나든다는 북경의 찜통 더위를 감지할 수는 있었다. 일행은 북경의 극심한 더위를 피해 야간 열차에 몸을 싣고 내몽골에 인접한 산서성 대동으로 향했다. 약 7시간 걸려 도착한 대동은 운강석굴을 비롯해 유서 깊은 고찰들이 있는 도시이다. 이어 버스로 갈아타고 겁은 탄전지대를 지나 운강석굴 앞에 섰다.

무주산 남쪽 기슭 약 1㎞에 걸쳐 남향으로 뚫린 운강석굴은 4세기 말 북위왕조(386~534)가 남겨놓은 불교예술의 꽃이자 북위미술의 보고이다. 동에서 서로 한 굴씩 단층으로 뚫려 있는 운강석굴은 장엄한 외형만으로도 탐방객들을 주눅들게 한다. 이어서 53개의 굴 속에 봉안된 17m에서부터 손바닥만한 크기의 불상 5만 1천여 구는 감탄사를 내뱉을 틈도 주지 않고 신비감에 빠져들게 한다. 이러한 신비감은 굴 속으로 들어가면서 극치를 이룬다. 본존불 사방에 새긴 여러 조각상과 비천, 그리고 꽃과 새로 장엄한 조각의 세계는 황홀하기 그지없다. 특히 이 조각상들의 의상이 적·녹·황색으로 채식되어 굴 속은 살아 움직이는 세계인 듯한 느낌을 자아낸다. 그런데 이 거대한 절벽이 단 몇 십 년 만에 조성됐다는 안내자의 설명에서 답사객들은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 가운데 20호 굴 노천대불은 우리 나라 역사 교과서에 소개될 만큼 유명한 불상이다. 노천에 자리한 이 좌불의 높이는 14m. 커다란 두 귀가 어깨 위에 닿을 정도로 장대한 모습이다. 5굴은 운강석굴 최대 높이인 17m의 좌상이 사방 벽에 조각된 크고 작은 불상에 둘러 싸여 있다. 그리고 7~19 석굴까지 불상이 조각되어 있는데 중국의 전통적 조소 기법에 인도, 아프카니스탄, 페르시아의 양식이 합쳐져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나양 용문석굴과 돈황 막고굴과 함께 중국 3대 석굴의 하나로 중국미술사에서 가장 예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운강석굴을 참배한 일행들은 아쉬움을 뒤로한 채 상·하 화엄사로 발길을 옮겼다. 상·하 화엄사는 운강석굴과 함께 2천4백여 년의 긴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대동의 대표적 불교성지이다. 하화엄사에 도착한 일행들은 박가교

14m 노천대불 장대함 눈길
오대산 10여개 사찰불화 살펴
남선사 소조불상 조각의 진수

장(薄伽敎藏)이란 현판 앞에서 걸음을 멈춘다. 불경을 보관하고 있는 전각이란 뜻이다. 이 전각에는 나무로 된 38칸의 경장고가 있고 그 안에는 1만 8천 여권이 경전이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법당에 봉안된 31개의 불상은 운강석굴과 함께 대동의 큰 자랑거리이다.

웅장한 중국불교미술에 대한 희열과 아쉬움을 채 삭이기도 전에 항산 현공사로 향했다. 항산의 서쪽 취병봉 남쪽러지에서 30여 미터 높이에 위치해 있는 현공사는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아슬아슬하지만 1천5백년 동안 자리를 틀고 있다. 멀리서도 깎아 지른 듯한 절벽에 제비집처럼 매달려 있는 현공사를 바라볼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장관이다. 이 절의 가장 큰 볼거리는 감실을 파고 조성한 마애불이다.

이어 끝없는 평야지대에 펼쳐지는 옥수수, 해바라기와 험준한 고원의 풍광을 감상하며 푼수신양의 중심지 오대산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일행들은 2일 동안 머물며 오대산 최대 사원인 보살정을 시작으로 오대산의 상징으로 일컬어지는 백탑(56m)이 봉안된 탑원사, 뒤엉킨 교룡과 짐승들, 새와 벌레, 인물과 꽃 등이 마치 살아 있는 듯 정교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석패방(石牌坊) 있는 용천사, 오대산의 우국사·극락사·선덕당 3사를 합한 남산사, 8만광방미터의 대웅전, 무량전, 문수전, 천불전 등전 등이 일직선상에 배치한 현통사 등 10여 사찰을 둘러봤다.

오대산 답사일정을 마친 일행들은 북경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대산 입구의 남선사와 불광사를 찾았다. 남선사에는 6동의 고건물이 남아 있는데, 대불전은 당 덕종 건중 3년(782)에 건축된 것으로 현존하는 중국 최고의 목조건축물이다.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건축된 대불전은 안동 봉정사 극락전을 연상케 할 정도로 단아하다. 특히 대불전 안에는 채색된 소조불상이 봉안돼 있는데, 석굴이 아닌 사원건축에 채색된 소조불상이 남아 있는 것으로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중앙본존과 좌우 각 8구씩 협시상이 다양한 크기로 배치되어 있다. 이 보살상들은 화려한 보관, 공만한 용모와 잘룩한 허리, 얇은 천의의 유려한 자태 등이 육감적으로 묘사되어 당대 조각의 진수를 보여준다.

3박 4일간 운강석굴과 오대산 불적답사를 마친 일행들은 북경에 도착, 북경대학교 세미나실에서 한·중 불교미술문화교류 학술대회를 가졌다. 학술대회에서 장충식 교수(동국대 박물관장)는 '중국 오대산 신앙의 한국 유입문제'에 대해, 김상현 교수(동국대 사학과)는 '신라의 의상과 종남산'에 대해 중국에서는 북경대학 류우열 교수(종교학)가 '중국불교현황'에 대해, 왕띠 씨(불교미술전문가)가 '불상장엄에 대하여'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서울에 도착해서도 "수천년이 지난 오늘에도 선명한 색채를 띠고 있는 불화가 아직도 생생하다"며 "그 비결이 무엇일까"라며 되뇌이는 한 일행의 모습이 긴 여운으로 남는다.

중국(山西省)=김종근 기자 (gamja@buddhapia.com)



◇불화를 그리는 중국 불교예술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동국불교미술인회원들.



◇오대산의 상징인 66m 높이의 탑원사 백탑.



◇현존하는 중국 최고의 목조 건축물인 오대산 남선사 대불전.



